

中央語文學會

第22次 全國學術大會

日 時：2009年 8月 13日（木曜日）13:30~18:00

場 所：中央大學校 文科大學 2854 尖端講義室

主 催：中央語文學會

中央語文學會

- 順 序 -

■ 개회식 (13:30 ~ 14:00) -----진행사회 : 최흥렬(강원대)

· 개회사 -----남기탁(강원대, 중앙어문학회 회장)

■ 주제발표(14:00 ~ 17:40)

국어학 진행사회 : 최흥렬(강원대)				국문학 진행사회 : 오창은(단국대)		
시간	발표자	논제	토론자	발표자	논제	토론자
14:00 ~ 14:35	박선옥 (가톨릭대)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 분석을 통한 교재 개발방향연구	진대연 (서울대)	김주현 (동의대)	「한」 연작과 「폐촌」 에 나타난 미적 전통 의 문법 -196,70년대 한승원 소설의 토속성	최강민 (선문대)
14:35 ~ 15:10	이현주 (한성대)	비유창성 발화의 유형과 수정 구조 분석	이지용 (고려대)	최흥렬 (중앙대)	현대시조의 표기 양상 고찰 -초정 김상옥 시조를 중심으로-	박영준 (인천대)
15:10 ~ 15:45	정선화 (중앙대)	구어의 특성을 반영한 듣기교육 방안 연구	최은지 (고려대)	김효석 (남서울대)	최태응 소설의 작중 인물 고찰 -결손인물형을 중심으로-	강진구 (중앙대)
휴 식 (15:45 ~ 15:55)						
15:55 ~ 16:30	엄홍준 (중앙대)/ 김용하 (안동대)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인 격표시 구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고찰	이훈 (중앙대)	강우규 (중앙대)	『소현성록』에 나타 난 遊山覽의 幻想性和 意味機能 考察	김현정 (성균관대)
16:30 ~ 17:05	정성미 (강원대)	은유의 치료적 활용	김미선 (중앙대)	심우일 (중앙대)	해방기 오영진의 반공주의에 관한 고찰	진설아 (남서울대)
17:05 ~ 17:40	고혜원 (중앙대)	공간개념어에 나타난 시간 은유- '앞'과 '뒤'를 중심으로	안인숙 (대진대)	서종원 (한국문화 원연합회)	실존 인물신앙의 등장 배경과 특징	양진조 (국립문화 재연구소)

發 表 文

<국어학>

1.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 분석을 통한 교재 개발 방향 연구
- 박선옥(가톨릭대).....1
2. 비유창성 발화의 유형과 수정 구조 분석
- 이현주(한성대).....15
3. 구어의 특성을 반영한 듣기교육 방안 연구
- 정선화(중앙대).....29
4.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인 격표시 구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고찰
- 엄홍준(중앙대)/김용하(안동대).....39
5. 은유의 치료적 활용
- 정성미(강원대).....55
6. 공간개념어에 나타난 시간 은유 -'앞'과 '뒤'를 중심으로
- 고혜원(중앙대).....63

<국문학>

1. 「한」연작과 「폐촌」에 나타난 미적 전통의 문법 -196,70년대 한승원 소설의 토성
- 김주현(동의대).....73
2. 현대시조의 표기 양상 고찰 -초정 김상옥 시조를 중심으로-
- 최홍렬(중앙대).....87
3. 최태웅 소설의 작중 인물 고찰 -결손인물형을 중심으로-
- 김효석(남서울대).....99
4. 『소현성록』에 나타난 遊山覽의 幻想性和 意味機能 考察
- 강우규(중앙대).....113

5. 해방기 오영진의 반공주의에 관한 고찰	
- 심우일(중앙대).....	127
6. 실존 인물신앙의 등장 배경과 특징	
- 서종원(한국문화원연합회).....	137

<국어학>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 분석을 통한 교재 개발 방향 연구

박선옥(가톨릭대학교)

<차례>

1. 서론
2.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 분석
3.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 방향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학문 목적 한국어(Korean for Academic Purposes) 말하기 교재를 분석하여 교육의 현황을 살핀 뒤 적절한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입학에 준비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점점 더 늘어 가고 있다.¹⁾ 그런데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한국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한국인 학생들에게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은 학업 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의 부족과 대학수학능력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학업 수행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불가피하다.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와 축적된 결과물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도 그 필요성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은규(2008:336)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현황을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및 교수 요목 설계 및 개발, 교재 개발 등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어 최근 기능 교육, 언어 사용역 분석, 담화 분석, 평가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을 연마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학문을 학습하는 기술적 능력, 학문적 주제를

1) 교과부의 스테디 코리아 프로젝트 참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해영(2001:281)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문적 목적 한국어의 언어적 숙달도 제고, 둘째 학문적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대학 수학 능력의 제고에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목적 한국어 숙달도 향상에 관한 연구는 언어의 네 영역 중 주로 읽기와 쓰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은규(2009:338~339)에서 밝히고 있듯이 언어 기능 교육 연구는 듣기, 말하기보다는 읽기, 쓰기에 관련된 논의가 더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원)에서 수행하는 학업의 많은 부분이 구어보다는 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교양 및 전공 서적과 학술적 논문 읽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과제에 해당하는 보고서 쓰기가 매 학기 강좌별로 몇 차례씩 주어진다. 그런데 강의 듣기를 비롯하여 학급 동료와 학문적 담화를 나누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듣기 또한 중요하다. 나아가 대학의 교육 방식이 교수의 강의 중심 방식에서 학습자의 발표나 토론 방식을 병행하거나 주로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분야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전문 교재가 비교적 최근에 발간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가운데 말하기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 교재 개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학문적 말하기 교재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교재 중에서도 본 연구 목적에 맞는 학문 목적과 말하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재를 선정하고 그 분석 항목을 선정한다. 그에 따라 실제 교재 분석과 평가를 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 분석

2.1. 분석 대상과 분석 기준 선정

이 연구에서는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구입이 용이한 다음 4권의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²⁾

2) 한국어연수기관의 심화과정(대학 입학 준비반)이나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 사용할 교재로 개발된 읽기 전문 교재가 2권, 쓰기 전문 교재는 3권, 읽기와 쓰기 통합형 교재는 4권이며, 언어의 네 영역을 아우르며 대학 교양 국어의 외국인을 위한 교재로 2권이 개발되어 있다.

조현용, 김남예(2008),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 도서출판 하우.

최운곤(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독해』, 한국문화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위원 편(2009),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정희, 장미라, 서진숙, 봉원덕(2007),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의 기초』, 도서출판 하우.

이정희, 장미라, 서진숙, 봉원덕(2007),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의 실제』, 도서출판 하우.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쓰기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쓰기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선이(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현대 문화』, 한국문화사.

박선옥(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국어 사회·문화 이해와 표현1』, 도서출판 역락.

최주열, 우인혜, 김경숙, 박선옥(2004),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교양한국어 I』, 선문대학교 출판부.

최주열, 우인혜, 김경숙, 박선옥(2005),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교양한국어 II』, 선문대학교 출판부.

이 외에 전공 학문 수학을 보조하는 교재로 2권이 개발되어 있다.

허용(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인문 한국어』, 다락원.

강현화, 민재훈(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영 한국어』, 다락원.

[가] ³⁾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10. 15),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 말하기·듣기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나]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9. 2. 28),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 말하기·듣기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다]	김중섭, 최문석(2008. 3. 2),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도서출판 하우.
[라]	한양대학교 국어교육위원 편(2009. 2. 20),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 한양대학교 출판부.

[가]와 [나]교재는 듣기와 말하기 영역의 주제가 연계되어 있다. 한 단원은 듣기 소단원과 말하기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대단원 ‘행동과 심리’의 소단원 학습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듣기] 제1장 행동주의 심리학	[말하기] 제2장 성격 형성과 요인
학습 목표	-행동주의 심리학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익힌다. -강의를 듣고 중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성격 형성 관련 어휘와 표현을 익힌다. -다양한 토론 표현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성격 결정론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다.
학습 내용	주제: 행동주의 심리학 문법 및 표현: 개념을 정의하는 표현, 개념 차이를 설명하는 표현 듣기 활동: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강의 듣기	주제: 성격 형성과 요인 문법 및 표현: 토론 표현(상대방의 의견에 완곡하게 반박하는 표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표현) 말하기 활동: 성격 결정론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두 소단원의 주제는 대단원 주제와 연계되어 있지만 ‘듣기’ 단원의 내용이 ‘말하기’ 단원 내용이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듣기’ 단원에서 말하기 활동으로 구성된 부분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듣기’ 단원의 도입 단계에서 말하기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거나 마무리 단계에서 말하기 영역으로 확장하도록 하는 것은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향상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말하기’ 단원의 내용과 학습 활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재 분석에 관한 진대연(1999), 이해영(2001), 황인교(2003), 김상수(2007), 김형복(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교재 분석 기준을 선정한다.

<말하기 교재 분석 항목>

- 교재 외적인 구성
- 교재 내적인 구성
 - 교재 구성 목표와 원리
 - 내용 구성: 전체 구성, 단원 구성
 - 학습 주제
 - 말하기 영역 구성: 주제 관련 말하기 기능 및 활동, 말하기 종류, 말하기 세부 유형, 과제(task), 과정 중심 구성, 상호작용성, 전략 학습, 학습 활동의 개별성, 구어적 특성, 발음, 다른 언어 영역과의 유연성, 자가 점검

3) [가], [나], [다], [라]는 각 교재를 지칭하는 약호로 사용한다.

교재 분석은 교재 외적인 구성과 교재 내적인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교재 외적인 구성에서는 교재의 물리적 형태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다른 영역 교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록 한다.

교재 내적인 구성은 말하기 교재로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먼저 교재 구성 목표와 원리를 분석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재는 어떤 이론과 원리 및 방법론을 기저로 하고 있으며, 어느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달성하도록 목표하는지를 점검하고,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교사를 위한 지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교재 내적인 구성의 두 번째 분석 항목은 내용 구성이다. 첫째 전체 구성 분석은 교재 전체 체제가 유기적이며 안정적인 형식인지와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 단원 구성 분석은 체계적인 단원 구성 형태를 취하는지와 개별적인 각 부분이 서로 어떠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록 한다.

교재 내적인 구성의 세 번째 분석 항목은 학습 주제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로서 학습자에게 적절한 주제인지, 교양 또는 전공 수준 여부, 학습자가 학문 수학이나 대학 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와 같은 주제의 실제성과 학습자 흥미나 동기 등 학습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교재 내적인 구성의 네 번째 분석 항목은 단원 구성의 세부적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 주제와 관련된 말하기 기능과 활동의 적절성과 다양성을 점검하고 장르적 관점에서 말하기 종류의 적합성과 다양성, 교재 내에서 지시하는 모든 말하기 세부 활동 유형을 분석한다. 또한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task)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절한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학문적 탐구를 위한 과제활동인지 학문적 주제를 익히기 위한 과제 활동인지를 살펴보고 학습자에게 적절한 난이도를 갖추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다음은 말하기 과제 수행이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도를 살펴보고 참여하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성 정도를 분석하고, 학문적 말하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말하기 전략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학습 활동의 개별화 항목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지, 학습자에 따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다면 개별화 방법론은 개인 활동, 소그룹 활동인지를 점검하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구어적 특성에 대한 항목, 발음 연습 항목과 발음 연습용 음성자료가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언어 네 영역의 종합적 숙달을 위하여 다른 영역과 연계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 학습 목표의 달성 확인을 위하여 자가 점검의 기회가 있는가를 살펴보고록 한다.

2.2 교재 분석

① 교재 외적인 구성

	크기와 쪽수	레이아웃	관련구성물	저자	가격
[가]	260*190 230쪽	양호함(색채와 모양이 단순함)	듣기 영역 CD	기관	15,000원
[나]	260*190 209쪽	"	"	"	"

[다]	258*188 170쪽	양호함(색채와 모양이 매우 단순함)	없음	저자	12,000원
[라]	258*188 325쪽	양호함(글자 크기가 작고 줄간격이 좁음)	없음	기관	14,000원

휴대가 간편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 말하기 단일 교재로 사용된다. [가]와 [나] 교재는 연계성을 이루고 있다. 레이아웃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다른 교재에 비해 [라]교재는 글자 크기가 작고 줄간격이 좁아 한 면에 많은 양이 담겨 있다.

② 교재 내적인 구성

가. 교재 구성 목표와 원리

	[가], [나]	[다]	[라]
교재 구성 원리	의사소통 중심, 과정 중심, 주제 중심, 과제 해결 중심	의사소통 중심, 과정 중심, 주제 중심, 과제 해결 중심	주제 중심, 과제 해결 중심
대상 학습자	중급 이상의 학문 목적 학습자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문 목적 학습자	대학 1학년 학문 목적 학습자
도달 목표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최고급의 언어 능력	학업 수행에 필요한 말하기 능력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한 기초적 말하기 능력 함양
학습자 요구 반영	있음(추정)	없음	있음
학습목표와 방법에 대한 지시	1권은 각 단원 처음에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제시 2권은 각 단원 처음에 학습 목표와 학습 주제, 전략 제시	각 단원 처음에 학습 목표 제시	없음

[가], [나], [다] 교재는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기저로 하며 내용 중심 언어학습(CBI, content-based instruction)의 한 유형인 주제 중심 언어학습(theme-based language instruction)⁴⁾을 기저로 한다. [가]와 [나]는 중급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습자가 대학 수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 최종 목표로 하며 [다]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말하기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라] 역시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한 기초적인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목표점을 두고 있다.

교재 구성을 위하여 학습자의 요구 반영에 관하여 [가]와 [나]교재에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머리말에서 교재 개발 전인 2005년부터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과 언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발견하

4) 이해영(2001:294)에서는 Snow(1991)의 논의를 인용하여 CBI는 주제 중심 언어학습(theme-based language instruction), 내용 보호 학습(sheltered content instruction), 병존 언어학습(adjunct language instruction)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였다고 한 데 비추어 학습자의 요구 조사와 실태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라]교재는 서문에서 1학년 교양 국어과목 수업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재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와 [나], [다] 교재는 학습목표나 학습 주제, 학습 내용에 대하여 단원의 처음에 제시하여 학습자와 교사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 [나]교재에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가]에서도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교재는 학습 목표와 주제, 학습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내용 구성

각 교재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구성
[가], [나]	책을 펴내면서-교재 구성-일러두기-차례-단원-정답 및 듣기 대본-찾아보기
[다]	머리말-일러두기-차례-단원-부록(말하기 기능별 표현 목록)-참고문헌
[라]	서문-차례-단원(1부, 2부)

[가]와 [나]교재는 본 단원 앞에 ‘책을 펴내면서’(머리말)과 교재 구성, 일러두기를 두어 교재 구성 원리나 교재 사용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단원 뒤에는 정답과 듣기 대본 색인을 두어서 학습자를 돕고 있다. [다]교재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교재 구성표와 찾아보기가 없다. 부록에 말하기 기능별 표현 목록을 두어 학습자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라]교재는 학습자 중심의 전체 구성이라 하기 부족한 부분이 많다.

단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원 구성
[가]	준비-어휘 및 표현 익히기-말하기-더 생각해 보기
[나]	준비-발표하기(토론하기)-마무리
[다]	말하기 기초 지식-연습
[라]	말하기 기초 지식-연습

[가]와 [나]교재의 대단원은 듣기와 말하기의 2개 소단원으로 구성되는데 [가]에서는 듣기가, [나]에서는 말하기가 선행학습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제를 단원명으로 하여 말하기 절차 학습을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가]교재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어휘 및 표현, 말하기 과정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더 생각해 보기’를 통해 발표, 소그룹 논의, 쓰기 등의 기능 통합 교육을 하고 학습 내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준비’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소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이다. ‘어휘 및 표현 익히기’는 주제와 관련된 어휘, 말하기 활동에 필요한 구어적 표현을 익히고 연습한다. ‘말하기’는 주제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토론하는 과정이다. ‘더 생각해 보기’는 다양한 기능 통합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나]교재는 발표 및 토론 전략을 각 장마다 익히고 이를 실제 발표, 토론을 통해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준비’에는 생각해 보기와 어휘 및 표현 연습, 발표 준비(토론 준비)

가 있는데 ‘생각해 보기’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내용이며, ‘어휘 및 표현 연습’은 말하기를 할 때 필요한 주제 관련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발표 준비(토론 준비)’는 발표(토론)을 할 때 필요한 표현을 익히는 것이다. ‘발표하기(토론하기)’는 다양한 발표(토론) 전략을 활용해 여러 주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토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시되어 있는 전략을 활용해 적합한 근거 자료를 찾거나 발표(토론) 내용, 구조를 구성하는 등 다양하게 연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토론하기 활동으로 구성된 과에서는 토론을 할 때 사회자, 토론자로서 지켜야 할 유의점이나 주의사항, 태도 등을 제시해 익히도록 하였다. ‘마무리’는 ‘생각 넓히기-점점해 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각 넓히기’는 말하기 주제에서 확장된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점점해 보기’에서는 각 과의 학습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였는지를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다.

[가]와 [나]교재 모두 개별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과 잘 연계되어 과정에 따라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교재는 말하기 유형을 제목으로 하고 그 말하기 유형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라]교재는 ‘제1부 효과적인 말하기와 듣기’, ‘제2부 문화로 말하기’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말을 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인 말하기 태도와 방법, 규범에 맞게 정확하게 말하기, 예의바르게 말하도록 호칭, 경어법, 공손법 연습을 하게 하며, 자기소개, 연설, 대화, 면접, 토론 단원을 두고 있다. 2부에서는 한국 문화 읽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보편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연습 항목은 단원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배치해 두었다.

나. 학습 주제/내용

	학습 주제/내용
[가]	대학생활(자기소개) ⁵⁾ , 인간관계(한국인의 결혼관), 건강한 삶(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조기교육), 행동과 심리(성격 형성의 요인), 전통문화(명절과 풍속), 언어와 문화(통신언어의 사용), 역사의 이해(사건과 사람), 언론과 사회(광고 비평), 경제와 생활(기업과 성공 전략)
[나]	대학인(성공한 인물), 인권(사형제 존폐), 현대와 사회(여가 활동), 예술의 이해(영화의 예술성과 상업성), 지역과 문화(한국 상징), 법과 질서(법과 인정), 역사의 변천(역사를 만든 발명), 과학과 윤리(생명 윤리), 성과 사회(미인 대회), 정치와 생활(집회의 자유와 기본권)
[다]	말하기에 대한 이해(대학 생활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말하기의 본질), 상담하기(진학 상담, 취업 상담, 생활 상담), 면접하기(입학 면접, 입사 면접), 인터뷰하기, 대중 앞에서 말하기에 대한 이해, 자기 소개하기(자기 소개 내용, 자기 소개 방법), 설명하는 말하기(설명 방법, 설명할 때 유의점), 감동을 주는 말하기(감동 받는 것,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주장하는 말하기(주장의 종류, 효과적인 주장의 방법), 토론하는 말하기(토론의 방법, 토론의 유의점, 토론 주제 목록)
[라]	제1부(말하기의 태도와 방법, 규범에 맞는 말하기, 예절 바른 말하기, 자기 소개, 연설, 대화, 면접, 토론), 제2부(서울, 디지털 문화, 한국 사회 시사, 문학, 대중문화)

5) 괄호 안 말하기 소단원 주제이다.

[가]와 [나] 교재는 모두 대학 교양 수업에서 자주 접하게 될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⁶⁾ [가]보다는 [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대학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항목으로는 [가]의 자기소개 정도를 꼽을 수 있고, 학사 활동을 돕는 도구적 측면의 주제는 없다. 학습자가 대학 수학을 위한 교양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사형제의 존폐,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의 주제는 학습자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라 할 수 있다.

[다]에서는 자기소개 항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과 학사 활동을 돕는 도구적 측면의 항목으로 상담하기와 면접하기를 두고 있다.

[라]교재는 말하기 중심 교재라기보다는 읽기 중심 구성에 말하기 활동을 일부 추가한 정도이다. 특히 2부의 읽기 자료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매우 부담이 큰 글이다. 또한 각 부분이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말하기 영역 구성

교재의 세부적 항목 분석을 위하여 먼저 학습자가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살펴본다.

	과제(task) 활동
[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소개하기 ·한국인의 결혼관에 대해 조사 발표하기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논의하기 ·조기교육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성격 결정론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명절과 풍속에 대한 조사·발표하기 ·통신언어 사용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사·발표하기 ·광고 비평하기 ·기업의 성공전략 조사·분석하여 발표하기
[나]	·성공한 인물 자료 조사, 발표 도입 내용 작성하고 발표하기(짝과 같이 진행) ·사형제도 존폐 여부 토론하기 ·여가 활동에 대해 시각자료 만들어 발표하기 ·영화의 예술성과 상업성에 대한 찬반 토론 ·한국 상징 자료 조사 발표개요 만들어 발표하기(조별 활동) ·법과 인정에 대한 토론 ·바퀴 발명에 대한 글 읽고 발표자료(ppt) 만들어 발표하기 ·맞춤아기 허용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미인대회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가두집회 허용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다]	·진학 상담하기 ·취업 상담하기 ·생활 상담하기 ·입학 면접하기 ·입사 면접하기 ·자기소개하기 ·인터뷰하기(글로벌 사회와 영어 공용화, 한글과 한자 병용, 호주제 폐지와 가족 관계 등록제 도입, CCTV 설치와 사생활 침해) ·음식, 의복, 생활양식, 풍속 등 자신의 나라 문화 설명하는 발표하기 ·경험 바탕으로 감동적인 이야기하기

6) 이해영(2001:288)에서는 일반적 대학 교양 수준의 주제로 ‘대학생활, 학문과 인생, 심리학, 생태학, 환경과 인간, 컴퓨터과학, 비즈니스와 마케팅, 사회학, 체벌, 조기 교육, 유전자 변형, 인간 복제, 건강과 의학, 다이어트와 영양, 스트레스와 질병, 뇌사와 장기 이식, 역사, 문화, 문학, 예술, 영화와 연극, 노인문제, 여성문제, 흡연, 마약, 정보화 사회’ 등이 있다고 하였다.

	·주장하고 싶은 주제로 주장하기 ·여러 토론 주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토론하기
--	--

과제는 대학 생활을 돕는 활동⁷⁾과 학문적 학습 태도 향상을 위한 활동⁸⁾, 학문적 주제를 익히는 활동 과제⁹⁾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학문적 학습 태도 향상을 위한 활동과 주제를 익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의 난이도는 자기소개와 자료 조사 발표, 주제에 대한 간단한 논의와 같은 낮은 난이도 과제에서 자료 조사·분석하여 발표, 찬반 토론과 같은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그런데 PPT 자료와 시각자료를 만들어 발표(토론)하는 과제는 [가]에서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많은 강좌에서 학습자가 자료를 구성하여 발표나 토론을 하도록 하므로 [가]와 [나]에서 모두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다]에서는 대학 생활을 돕는 과제 활동과 학문적 학습 태도를 향상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제의 난이도도 점차 높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교재의 1부는 각 단원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 과제 활동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연습 문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확히 어떤 주제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를 다시 장르적 관점에서 말하기 종류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 수행을 위한 말하기 종류 가운데 [가]는 발표하기가 4회, 토론하기가 3회로 [나]의 횟수와 더하면 [가]와 [나]교재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점은 [가]에서는 비평하기가, [다]에서는 상담하기, 면접하기, 인터뷰하기, 감상 말하기가 과제 해결 말하기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 관련 말하기 기능 및 활동
[가]	자기소개하기, 논의하기, 비평하기, 발표하기, 찬반 토론하기
[나]	발표하기, 토론하기
[다]	상담하기, 면접하기, 자기소개하기, 인터뷰하기, 발표하기, 감상 말하기, 주장하기, 토론하기

다음은 각 교재에 나타난 모든 말하기 활동 유형¹⁰⁾을 분석한 것이다.

	이대 1권	이대 2권	경희대	한양대
문법 및 표현의 드릴	19			
어휘와 표현 의미 말하기	2			
주어진 상황, 지시로 대화하기(의견말하기)	4	8	3	1
경험 말하기	2		2	3
자신의 상황 말하기	1		2	1
경험 바탕으로 말하기	1		3	
스키마 활성화하여 생각 말하기	11	5	1	4
자료 보고 내용 말하기	9			1

7) 대학 생활을 돕는 과제는 도서관이용, 교내기관·건물 이용, 동아리 활동, 교우 관계 형성, 학사 활동 과제 등이다.

8) 학문 탐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과제는 강의 수강, 메모하기, 요약하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등이다. 학문 수학을 위한 도구적 활동이다.

9) 학문적 주제를 익히는 과제는 내용을 익히고 내재화하는 활동이다.

10) 준비 단계와 어휘 및 표현 익히기, 더 생각해 보기 등 모든 단계에서 지시하고 있는 말하기 활동 유형을 말한다.

자료(사진)보고 의견 말하기				6
자료 조사하여 내용 말하기	2	1		5
자료 조사하여 의견 말하기		2		
자료 조사하여 요약해서 말하기		4		
발표 자료(글) 만들어 발표하기	2		3	
발표 자료(시각자료) 만들어 발표하기		2		
발표 개요 만들어 발표하기			2	
분석하여 발표하기	2			
발표 듣고 의견 말하기	1			1
조별 토의 후 조장 발표하기				1
발표 주제 보고 발표하기				1
읽고 질문에 답하기	10	1	10	5
읽고 요약해서 말하기			1	
읽고 의견 말하기		3	1	15
읽고 문제점 설명하기				1
읽고 정리하여 발표하기				1
메모하여 말하기	3			
인터뷰하고 내용 말하기	1		1	
모의 면접하기			2	1
상담하고 내용 말하기			5	
비교해서 말하기	4	1	1	2
정의하고 설명하기			1	
비유하여 설명하기			1	
자료 조사하여 설명하기			1	3
분석·종합하여 설명하기			1	1
소개하기	2	1		
설명하기	1			1
설명하고 의견 말하기		1		
자료보고 설명하기	3			1
토의(논의)하기	1	4		1
토의(자료 보고) 하기				2
이유(근거) 들어 말하기	4	3	1	1
주장하기	2			
자료 읽고 찬반 입장에서 주장하기				1
자료 찾아 정리 후 의견 주장하기				1
토론하기	4			3
자료 보고 토론하기		8	1	5
토론 후 변화한 생각 말하기	3			
추측하여 말하기	1	1		1
연상하여 말하기				1
자료 보고 비평하기	3			1

말하기 과제 활동과 달리 세부 말하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다양한 말하기 활동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와 [나]교재에서 말하기 활동을 위하여 제시된 읽기 자료와 예제문은 중급 학습자에게 다소 난이도가 높다. 말하기 과제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최종 목표인 말하기 활동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거나 말하기 활동보다는 준비 과정에 더욱 주력하여 정작 말하기 활동 수행이 만족할 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 활동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말하기 활동 준비에 필요한 내용의 난이도도 고려하여 교재를 구성하여야 한다.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말하기 세부 활동의 응집성은 [가]와 [나] 교재는 매우 양호하다.

정확성과 유창성을 기르도록 말하기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가]교재에서 문법 및 표현의 드릴을 19회 하게 하는 이는 정확성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교재에는 다른 교재와 달리 여러 가지 매체(시각 자료, 시청각 자료)와 문학 작품을 활용한 말하기 활동이 있다.

[라] 교재의 말하기 활동 특징	
사진 찍고 찍은 이유 말하기(1) ¹¹⁾ , 답사 후 요인 분석하여 말하기(2), 소설 읽고 내용 정리하여 말하기(4), 몇 편의 소설 읽고 비교하기(1), 통영상보고 자료 찾아 팀발표하기(1), 동영상 보고 해결 방안 찾아 말하기(1), 동영상 보고 의견 말하기(11), 동영상 보고 토론하기(1), 영화·동영상 보고 비교하여 말하기(3), 영화 보고 소설 읽고 토론하기(1), 영화보고 토론하기(3), 소설 읽고 자료 조사하여 발표하기(1), 영화·드라마·광고·뮤직비디오·만화에서 사례 찾아 분석하여 발표하기(2), 미술 작품 정보 찾아 소그룹 발표하기(1), 영화 보고 소설 읽고 장단점 말하기(1), 영화보고 분석하여 말하기(1), 뉴스보고 토의하기(1), 드라마보고 분석하여 말하기(2)	

[가]와 [나] 교재에서는 말하기 활동을 위한 자료로 제시하는 대부분이 텍스트 자료이고 간혹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하는 데 반해 [라]교재에서는 사진과 그림 등 시각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교사가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말하기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과 소설 같은 자료를 보고 읽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개 이상의 활동을 병행하게 하여 매우 난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과제 수행을 위한 말하기 활동이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가]	[나]	[다]	[라]
과정 중심 활동 구성	과정 중심 구성	과정 중심 구성	과정 중심	일부 과정 중심

[가]교재는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단계에서 스키마를 활성화 시키거나 개인적 경험과 의견을 말하게 하여 도입을 하고, 어휘와 표현 학습에서는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어휘와 문법, 표현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선행학습을 하도록 한다. 말하기 본단계에서도 과제 수행을 위한 전단계로 읽기 자료나 필요한 자료의 조사 과정을 거쳐 말하기를 위한 내용 구성을 하고 실제적 말하기를 한다. 말하기 후단계는 ‘더 생각해 보기’로서 비슷한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도록 하거나, 확장된 말하기, 쓰기와 연계하고 있다. [나]교재 역시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스키마 활성화, 주제 학습에 필요한 어휘 의미 익히기와 연습이 있다. 발표(토론) 준비에서는 단원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발표(토론)하기’에서는 먼저 발표(토론)을 위한 자료(주로 읽기 자료)를 이해하고 본격적인 발표(토론)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 후 실제적인 발표(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말하기 본 단계 학습이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제 확장 활동을 하고 자감 점검의 과정을 거친다. [다]교재도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재가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단계의 긴밀성은 [가], [나]교재보다는 다소 약하다. [라]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할 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심 구성이 부족하다.

교재는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성을 익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실제성 있는 상호작용성

11) 괄호 안의 숫자는 활동 횟수이다.

인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학습자 간 상호작용성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실제적 상호작용성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대학의 강좌는 교수 주도의 강의 방식에서 점차 학습자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의, 토론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 강의에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상호작용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도 피하고 있다.

학문적 말하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말하기 전략을 [가]와 [나]교재는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말하기 유형에 따른 구어적 표현 전략¹²⁾에 치중하고 있고, 몸짓언어와 말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습 활동(거울 보고 연습하기, 녹음하여 들어보기 등) 전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교재에서는 ‘주요 표현’이라는 항목에 말하기 유형별 구두 표현을 두었다. [라]에서는 따로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말하기 유형별 이론적 설명 부분에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다른 교재와 달리 적은 분량이라는 하지만 [라]교재에서는 연습할 때 적절한 몸짓 언어 사용과 면접에서의 태도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	[나]	[다]	[라]
말하기 표현 전략	유형에 따른 구두 표현	유형에 따른 구두 표현	유형에 따른 구두 표현	다소 있음
말하기 연습 전략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몸짓 언어 사용 전략	없음	없음	없음	있음

다음으로 학습 활동은 대체로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에서의 학습 활동은 학습자 중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휘 및 표현 연습·익히기’를 제외한 ‘준비’와 ‘말하기’ 활동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 활동은 모든 학습자 동일하게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의 개인적 성향, 관심도, 전공에 따라 적절한 활동이나 소주제를 선택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다]교재는 토론의 주제 선정이나 발표하기 주제를 여러 가지로 제시해 학습자 관심도에 따라 선택하게 하고 있다.

	[가]	[나]	[다]	[라]
학습자 중심 활동	학습자 중심 활동	학습자 중심 활동	학습자 중심 활동	대체로 학습자 중심 활동
학습 활동(주제)의 개별화와 방법	선택할 수 없음	선택할 수 없음	일부 선택할 수 있음	선택할 수 없음

자연스러운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발음 연습과 구어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	[나]	[다]	[라]
구어적 특성 반영	공식적 말하기 중심	공식적 말하기 중심	공식적 말하기 중심	공식적 말하기 중심
발음 연습	없음	없음		있음
발음 연습용 음성자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2) 토론에서 사용하는 표현 전략을 예로 들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찬성하는 표현: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A씨와 같은 의견인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가 있다.

[가]와 [나]교재에서는 공식적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문장 종결어미는 대부분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강의실과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실제적으로는 ‘하세요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다]교재는 일부 예문이 ‘하세요체’로 구성되어 있다.

[라]교재에는 문장 바르게 읽기와 ‘애’와 ‘에’ 구별하여 소리 내기, 옆 사람에게 문장 읽어 주고 옆 사람이 바르게 적었는지를 확인하기,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차이 나는 사례를 찾아 말하기 활동이 있다. 그런데 ‘애’와 ‘에’의 구별이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른 사례 찾기 활동은 한국인 대학생에게도 쉽지 않은 항목이다. 현실 발음 위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에게 적절한 발음과 구어적 특성을 좀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발음 연습을 위한 음성자료(CD)가 포함되는 것도 학습자를 위한 방안이다.

언어의 다른 영역과의 유연성을 꾀하는 항목을 분석한다.

	[가]	[나]	[다]	[라]
다른 언어 영역과 연계	쓰기	쓰기	쓰기	쓰기

[가]와 [나]교재는 말하기 후단계에서 말하기 본단계의 내용을 응용한 말하기 활동과 본단계 내용을 정리, 주제와 관련된 쓰기 활동과 연계하고 있다. [라]교재는 말하기 활동과 관계없이 쓰기 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교재의 서문에서 이 교재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글쓰기 교재와도 접목하여 구체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자가 점검 항목을 설정한 교재는 [나]교재이다.

	[가]	[나]	[다]	[라]
자가 점검	없음	있음		

[나]교재는 ‘마무리’ 활동에 자가 점검 항목이 있다. 해당 단원의 어휘, 표현을 정확히 익혔는지, 발표나 토론을 위한 표현 전략과 유의할 점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3.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 방향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이혜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제 18호, 이중언어학회, pp.281~301.
- 최은규(2009), 國內 學問 目的 韓國語 教育의 現況과 課題, 語文研究. 37권 1호 통권14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333~358.
-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 연구와 적용, 國語教育學研究 9, 국어교육학회, pp.407~434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8집, 연세대학교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287-329
- 김상수(2007), 한국어 교재의 말하기 활동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24집, pp.39~58.
- 김형복(2008), 고급 단계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언어 기술 및 전략 개발을 위하여-, 동남어문논집 제26집, pp.5~23.

비유창성 발화의 유형과 수정 구조 분석

이현주(한성대학교)

<차례>

1. 머리말
2. 비유창성 발화의 유형
3. 비유창성 발화의 수정 구조
4. 맺음말

1. 머리말

화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말실수를 수정하거나 발화를 하는 중간에도 이어질 발화 내용을 계속해서 점검·조정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화의 흐름이 중단되거나 주저, 반복, 삽입 등의 비유창한 발화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는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황’(ideal communicative setting)이나 ‘이상적인 화자(ideal speaker)’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역동적인 의사소통 환경에서 비유창성이 일어나는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머뭇거리는 속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발화보다 의미가 더 잘 전달된다. 예를 들면, 인터뷰에서 전문가는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을 읽는 대신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werts, 1998:486).

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유창성이 즉흥적이고, 준비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자에게 고도의 인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정확하게 발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발화 단위와 흐름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상위인지 활동을 경험한다. 이는 비유창성 발화가 불규칙적으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형적인 유형이 있고, 이를 수정해 가는 규칙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화자는 비유창성을 일으키는 오류를 감지하는 즉시 발화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이어질 발화 내용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음”, “뭐지”, “그러니까” 등의 ‘수정 표지(editing terms)’를 사용한다.¹⁾ 수정 표지는 화자가 발화 수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를 말한다.²⁾ 수정 표지는 대체로 간투사, 접속표지, 의문사,

1) 최진희(2007:7)에서는 수정(repair)을 유발하거나 다음에 수정을 할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하여 ‘수정표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김혜영(2009:19)에서는 수정을 유발하는 표현 중에 문장 단위의 표현들이 있기에 ‘수정표지어’보다는 ‘수정 표현’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수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담화 표지를 독립적인 기능 범주로 묶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정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담화 표지는 기능적인 범주로 미시적인 어휘부터 거시적인 문장 단위까지 포함하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2) 기존의 연구에서 ‘수정의 기능’이 있는 담화표지는 ‘아니(김미숙, 1997)’, ‘그니까, 그러니까(신지연, 1998; 이희정, 2003)’, ‘뭐(이한규, 1999)’ 등이 있다. 이외에 ‘시간별기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 ‘뭐냐하면, 뭐냐(임규

부정 표현 등의 언어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³⁾ 또한 수정 과정에서는 문법적 또는 의미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발화를 하는 중간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면 유창성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화의 흐름을 이어주는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한다. 주로 화자가 발화 계획을 조정하거나 이어질 발화 내용을 기억하는 등의 시간을 버는 데 사용되며, 청자가 수정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거나, 일부 수정 행위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Postma & Kolk, 1993:476).

이처럼 화자가 비유창성이 일어나는 발화를 조정하는 과정이 일련의 인지적 처리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정을 하는 방식에도 구조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수정 표지가 비유창성이 일어난 발화에서 조정의 기능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를 분절적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으리라 짐작한다. 이에 ‘수정 표지’를 발화 단위의 경계로 삼아 비유창성이 일어난 발화에 대하여 화자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지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발화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유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수정 표지를 경계로 비유창성 발화의 수정 구조를 분석하겠다.

2. 비유창성 발화의 유형

우리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유창성을 빈번하게 일으킨다. 특히, 준비가 부족하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발화를 하게 되면 비유창성은 더욱 증가한다. ‘유창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읽는 것이 물 흐르듯이 거침이 없다.(표준국어대사전)’이다. 반면에 화자가 말을 하거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유창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화자의 발화에 막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한다.⁴⁾ 이런 현상을 비유창성 발화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창성 발화는 화자가 이어질 발화 내용을 계획하거나 자체적으로 감지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비유창성 발화의 유형을 분류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Honal & Schultz(2003)에서는 화자의 자발적인 발화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잘못된 시작(False start)은 한 문장이 완성되기 전에 오류를 감지하고, 발화를 멈춘 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발화를 하는 과정이다. 반복·교정(Repetition-Correction)은 하나의 구를 두 번 반복하거나 대체 또는 단어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유창성 발화이다. 이 유형은 수정의 대상이 오류와 수정한 대체어가 동일한 구조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홍, 1995)’, ‘무슨(김명희, 2006)’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기능은 화자가 의도한 지시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정확한 지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쓰이거나 시간을 버는 담화표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위한 담화표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이창호(2004:270-274)에서는 화자가 이어질 발화 내용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벌거나 말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현으로 간투사, 편집발화, 접속어, 휴지를 나누어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편집발화’는 지시적 기능이 없으면서 문장 구성상 생략되어도 상관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여 ‘그, 그런, 어떤, 인제, 이케, 뭐라할까’ 등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이창호, 2004:270-271).

4) 유창성의 개념과 기준은 학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며, 평가자의 주관적 인상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발화 속도와 휴지, 망설임, 반복, 간투사 등의 사용을 유창성 평가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김태경·이필영, 2007; 이을지, 2007; 김상수, 2008 등), 이완기(2003)에서는 말하기 평가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가자의 자질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정 표지(Editing terms)는 잘못된 시작(False start)이나 반복(Repetition) 구간의 휴지 부분에 나타나는 비유창성이다. 채움말(Filler word)은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s) 또는 채워진 휴지(filled pauses)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의미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단어들을 말한다. 이 유형은 화자가 발화를 시작하거나 발언 순서를 지키는 기능을 한다. 간투사(Interjection)는 비어휘적인 음성으로 “mhm”, “uh-uh”와 같이 긍정 혹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기본적으로 맞장구치기로 사용된다고 한다. 각 유형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밑줄 그은 부분은 수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이고,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수정 혹은 담화 표지로 기능하여 비유창성을 일으킨 형태들이다.

<표 1> 비유창성의 유형(Honal & Schultz, 2003:2782)

유형	예문
잘못된 시작(False Start)	I <u>have</u> - I am free the twenty third.
반복/교정 (Repetition/Correction)	We need <u>two tickets</u> , no, three tickets to Boston.
수정 표지(Editing terms)	We need <u>two tickets</u> , no , <u>three tickets</u> to Boston.
채움말(Filler word)	Alright, Well , this is a good idea.
간투사(Interjection)	“ mhm ”, “ uh-uh ”

이상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유형은 위계적으로 동등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유형(False Start)과 반복·교정(repetition-correction)은 발화를 수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설정한 비유창성의 유형이고, 수정 표지(editing terms)와 채움말(filler word), 간투사(interjection)는 발화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 표지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유형이다.

Honal & Schultz(2003)에서 비유창성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을 Rao et al.(2007:385)에서는 화자가 발화의 의도에 맞게 대화를 조정하거나 주저할 때 사용하는 삽입어(filler), 발화의 일부 내용을 반복(repetition)하는 현상, 원형의 구문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에 발화를 수정하는 교정(corrections)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수정 표지와 채움말, 간투사의 유형을 ‘삽입어’로 묶고, 잘못된 시작은 교정에 포함시켜 반복과 교정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Rao et al.(2007)에서도 비유창한 발화 중간에 사용되는 표지들을 삽입어로 범주화하였듯이 실제 발화 상황에서 기능 범주를 수정 표지, 채움말, 간투사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나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형태가 동일한 담화 표지가 맥락에 따라 다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유창한 발화에서 휴지 구간을 채워 주는 표지들을 수정 표지(editing terms)로 묶어 범주를 설정하거나(LaSalle & Conture, 1995), 채워진 휴지(filled pauses)로 범주를 설정하거나(Swerts, 1998), 간투사(interjection)로 범주화하는 경우(남현옥 외, 2006) 등이 있다.

본고는 비유창성 발화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표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정 표지’라는 기능 범주를 설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수정 표지는 기존의 간투사, 담화 표지, 채움말, 삽입어 등의 용어로 부르던 표지들과 형태는 같을 수 있으나 고유의 기능과 구조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비유창성의 유형을 크게 ‘수정 표지(editing terms)’와 ‘수정(repair)’으로 구분하였다.⁵⁾ 여기에서 수정은 화자의 발화에 의해 겉으로 드러난 오류를 수정하는 ‘외적 수정’과 오류가 산출되기 전에 발화의 계획 과정에서 미리 감지하여 내적으로 수정을 시도하는

‘내적 수정’을 모두 포함한다.⁶⁾ 외적 수정은 오류가 발생된 지점에서 발화의 흐름이 중단되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내적 수정은 오류의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화자가 내적으로 오류를 감지하여 수정하는 과정(혼적)이 수정 표지나 반복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를 ‘민수는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라는 기본 발화를 중심으로 예문을 살펴보면, (1) ~ (4)는 외적 수정에 해당하고, (5) ~ (8)은 내적 수정에 해당한다(이현주, 2008).

- (1) 민수는 **싫어하는 과목**을, 어려워서 **하기 싫다**고 **피하던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
- (2) 민수는 싫어하는 **과목**을, **사회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
- (3) 민수는 싫어하는 **과목**을, **사회**를 공부하고 있어.
- (4) 민수는 싫어하는 **과목**을, **과목도** 공부하고 있어.
- (5) 민수는 싫어하는, **음...** 싫어하는 **어...** 사회를 공부하고 있어.
- (6) 민수는 싫어하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회를 공부하고 있어.
- (7) 민수는 싫어하는, **뭐...** **뭐지?** 사회를 공부하고 있어.
- (8) 민수는 싫어하는, **사회**를, **그러니까 사회**를 공부하고 있어.
- (9) 민수는 싫어하는, **어...** **사, 사, 사회**를 공부하고 있어.

3. 비유창성 발화의 수정 구조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화 단위를 조정해 간다.⁷⁾ 화자는 하나의 발화 단위를 완성하기 위해 발화를 계획하고, 이미 말한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하는데, 이는 발화를 비유창한 형태로 만들기도 한다. 화자는 비유창성을 일으키는 오류를 감지하는 즉시 발화를 중단하고, 이어질 발화 내용을 계획하기 위해 수정 표지를 사용한다. 발화 중단 지점과 수정 표지는 발화 단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정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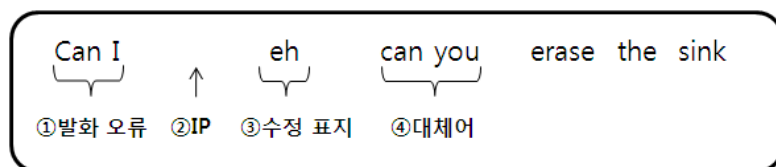
수정 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인 Moreno & Pineda(2006)의 분류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유창성 발화를 수정하는 구조는 하나의 발화 단위에서 ① 새로운 발화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발화 오류(reparandum)’, ② 발화 오류가 끝나는 지점인 ‘발화 중단 지점(interruption point)’, ③ “um”, “let's see”

5) 교정(correction)은 명백하게 잘못된 언어적 오류가 발화로 산출된 것을 정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에 수정(repair)은 언어적인 오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고 발화를 이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Levinson, 1980:340).

6) Postma & Kolk(1993)에서는 화자가 잘못 발음된 것을 규칙 지배적인 방식으로 수정하는 데서 비유창성이 나타난다고 논의한 Levelt(1983)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 내적수정가설(the covert repair hypothesis)을 제안하였는데, 이 가설에서는 화자가 내적으로 자기 발화를 수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산출되기 전에 감지하여 예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발화의 진행을 비유창한 방식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발화의 잘못된 계획이 이미 조음화가 되어 다소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조음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기억력 제한이나 주의력 결핍과 같은 과도한 인지적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화자는 자신이 계획한 발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올바른 형식으로 발화를 산출할 때까지 몇 번의 수정을 반복적으로 시도한다고 보았다.

7) 전영옥(2003, 2006)에서는 구어 전사 말뭉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위 설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억양단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억양단위(intonation unit)는 Chafe(1994)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화자의 의식에서 그 순간에 활성화된 정보가 말로 나타난 것으로 ‘하나의 억양 윤곽에서 나타나는 발화’를 의미한다. 결국, 발화단위는 구어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억양과 휴지에 의해 구성되는 운율 단위이며, 그것이 통사적으로는 단어, 절, 문장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와 같은 선택적인 ‘수정 표지(editing terms)’, ④ ‘발화 오류’에 대한 ‘대체어(altern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수정 표지는 대체로 발화 오류에 영향을 받아 발화가 중단되는 지점 이후에 나타나며, 화자의 발화 습관이나 사용 환경에 영향을 받아 선택되고, 둘 이상의 언어 단위가 사용될 수 있다. 비유창한 발화를 수정하는 전형적인 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Moreno & Pineda, 2006).



<그림 1> 발화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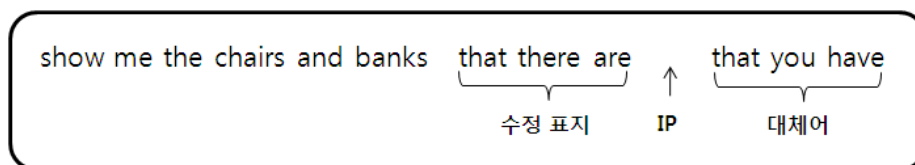
① 발화 오류(reparandum)는 화자가 수정하기를 원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반복되거나 교정되거나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 ② 발화 중단 지점(IP)은 화자의 의도와 발화 내용이 어긋나면서 비유창성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다. 이 지점은 주로 발화 오류가 끝나는 지점에서 나타난다. ③ 수정 표지(editing term)는 한 단어나 구로 구성될 수 있고, 다음에 이어질 발화 내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채우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간투사 ‘ah, mm, eh’나 ‘this is, well, pardon me’와 같은 관용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대체어(alternation)는 발화 오류가 일어난 부분을 화자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 절차가 끝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절차를 기반으로 Moreno & Pineda(2006:64-66)에서는 발화 오류와 대체어의 관계에 따라 수정의 구조를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시작(fresh start) 구조는 화자가 방금 말한 내용을 간단하게 중단하고, 새로운 내용을 발화하는 유형이다. <그림 2>와 같이 ‘발화 오류 → IP → 수정 표지 → 대체어’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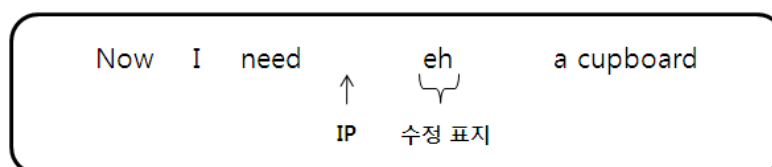
<그림 2> 새로운 시작(fresh start)

둘째, 부분 수정(modification repair) 구조로 발화 오류 다음에 수정 표지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어로 수정하는 유형이다. 발화 오류의 한 단어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체어와 일부 내용이 반복될 수 있고, 발화 오류와 대체어의 통사 구조가 동일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발화 오류 → IP → 대체어’로 진행이 되는 구조이다.



<그림 3> 부분 수정(modification repair)

셋째, 생략된 수정(abridged repair)은 발화 오류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발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발화의 계획 과정에서 오류를 감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수정 표지에 의해 드러나는 내적 수정과 동일한 형태이다. <그림 4>와 같이 ‘IP → 수정 표지’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그림 4> 생략된 수정(abridged repair)

이상에서 살펴본 Moreno & Pineda(2006)의 세 유형은 하나의 발화 단위를 단순히 구성하여 발화 오류와 대체어의 관계에 따라 수정 구조를 분류한 것이다. 본고는 비유창성의 유형으로 제시한 수정 표지와 수정의 관계에 주목하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정 표지는 Chafe(1994, 김병원·성기철 역, 2006:79-81)와 전영우(2006:278)의 견해에 따라 ‘조정 기능 역양단위’로 설정하여 독립된 발화단위로 다루고자 한다.⁸⁾ 이를 기반으로 실제 비유창한 발화에서 어떠한 수정 양상이 나타나고, 구조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발화 자료는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10명의 학생(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을 선별하여 ‘의견 말하기’ 과제를 통해 수집하였다. 피험자에게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즉흥적인 상황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집한 발화 중 피험자의 발화 10,427어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의견 말하기 주제는 ‘인류가 한 가지 언어만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영어 공용화, 영어 조기 교육, 영어 마을, 대학 영어 수업’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⁹⁾

수정 구조는 수정 표지를 발화 단위의 경계로 삼아 발화 오류와 대체어의 관계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유형 1~3>은 발화 오류가 산출된 이후에 수정을 하는 외적 수정의 구조이고, <유형 4~5>는 발화 오류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질 발화 내용을 계획하는 과정이 수정 표지에 의해 드러나는 내적 수정의 구조이다.

8) Chafe(1994, 김병원·성기철 역, 2006:79-81)에서는 발화 흐름을 조정하여 담화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설정하는 발화단위를 ‘조정 기능 역양단위’로 설정하고, 정보성이 있는 발화는 ‘내용 기능 역양단위’로 구분하였다. 전영우(2006:278)에서도 발화 중간에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근데, 어, 저기’ 등을 발화하고 휴지를 길게 두면 이는 정보성이 없는 발화임에도 불구하고 앞뒤의 역양패턴과 분리된 독립된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9)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와 방법은 이현주(2008)에서 참조할 수 있다.

<유형 1>은 화자가 발화 중간에 오류를 산출하고, 즉시 발화를 중단한 후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오류를 대체하는 과정이다. 간단히 도식화하면 (1) ~ (5)와 같이 ‘발화 오류 → IP → 수정 표지 → 대체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인다. 더 복잡하게는 (6)과 같이 ‘발화 오류 → IP → 수정 표지’의 구조로 시작하여 발화 오류와 수정 표지가 하나의 절로 나타나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오류가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7)과 같이 ‘발화 오류 → IP → 수정 표지’의 절차가 2회 반복된 후에 오류가 대체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유형 1> ‘발화 오류 → IP → 수정 표지 → 대체어’

- (10) 적극적으로 대처 ↑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위하고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대체어
- (11) 일단 우리들의 의견을 ↑ [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대체어
- (12) 영어 ↑ [아]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대체어
- (13) 약간 회의 같은 것 하거나 ↑ [뭐] 국제 회의 같은 것 할 때는 필요하니까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대체어
- (14) 또 그렇게 좋은 행 ↑ [아우] [뭐라고 해야지] 바른 비판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대체어
- (15) 단도 ↑ [아] 단[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들겠고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발화 오류/수정 표지 대체어
- (16) 낭, 낭비 ↑ [그러니까] 소,소비 ↑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하고 낭비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대체어

<유형 2>는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발화 단위를 계획한 후에 발화를 시작하다가 오류가 발생하여 발화를 중단하고, 오류를 대체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이어질 발화 정보를 계획하고 발화의 흐름을 이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정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를 시작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Chafe(1994; 김병원·성기철 역, 2006:78)에서는 휴지 이후에 정보가 모두 활성화되다가도 말을 더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순간에 표현 어휘의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화자가 발화를 시작하기 전뿐만 아니라 발화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내용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수정 구조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17) ~ (19)와 같이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IP → 대체어’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20)은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이어질 발화 내용을 기억해 내고 발화를 이어가려다가 정보가 비활성화되어 발화를 중단하고, 수정 표지를 재사용하여 발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과정이다. (21)은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IP’의 구조가 2회 반복된 후에 오류가 대체된 구조이다. (22)는 ‘수정

표지'와 '발화 오류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인데, 이 사례에서는 발화 오류와 수정 표지가 하나의 절로 나타나서 조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형 2>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IP → 대체어'

(17) 한국 사람이 [모] 외국 ↑ 미국을 가던가
수정 표지 발화 오류 IP 대체어

(18) [그러니까] [음] 일단 공용화라는 자체가 ↑ 그 공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어떤 행정상이라든지
수정 표지 발화 오류 IP 대체어

(19) [뭐][뭐지] 선 ↑ 영어를 쓰는 국가들을 좀 더 좋게 보고
수정 표지 발화 오류 IP 대체어

(20) [그러니까] 리플 문화가 ↑ [그러니까] 리플 문화라는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고
수정 표지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대체어

(21) [뭐지] 영어가 ↑ [어] 영어가 ↑ 영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수정 표지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발화 오류 IP 대체어

(22) 지금도 [뭐][뭐야] 인터넷 ↑ [뭐야] 인터넷[이 아니라] 사이버 경찰
수정 표지 발화 오류 IP 수정 표지 발화 오류/수정 표지 대체어

<유형 3>은 발화 오류가 산출된 후에 발화를 중단하고, 이어질 발화 내용을 조정하여 대체하는 수정 구조이다. 이 유형은 화자가 계획한 내용과 발화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을 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휴지 구간을 수정 표지로 채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23) ~ (26)과 같이 '발화 오류 → IP → 대체어'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7)은 발화 오류의 대상이 되는 일부 음절이 반복적으로 산출된 후에 대체가 이루어지는 사례이다.

<유형 3> '발화 오류 → IP → 대체어'

(23) 인터넷이 아니라 사이버 경찰 ↑ 사이버 수사대도 있는데
발화 오류 IP 대체어

(24) 1분 있다가 사회자 ↑ ○○○교수가
발화 오류 IP 대체어

(25) ○○대녀가 그거할거라고 ↑ 고소할거라고
발화 오류 IP 대체어

(26) 왜냐하면 국어로 ↑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
발화 오류 IP 대체어

(27) 최서? ↑ 최조? ↑ 최소 6학점?
 발화 오류 IP 발화 오류 IP 대체어

<유형 4>는 오류가 겹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화자가 내적으로 발화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 구조이다. 이 구조는 이어질 발화 정보를 완전하게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를 시작하다가 발화 중간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시간을 벌고 이어질 발화 내용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간단하게 ‘IP → 수정 표지’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주로 주어나 부사어 뒤에서 발화를 중단하고, 이어질 발화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형 4> ‘IP → 수정 표지’

(28) 그거는 ↑ [그러니까] 따로 따로 산다면 모르겠는데
 IP 수정 표지

(29) 그런 것은 ↑ [음] 인터넷상에서 한 명을 이렇게 마녀 사냥격으로 하는 행동을 말씀하시는지
 IP 수정 표지

(30) 지금은 ↑ [뭐] 다민족이고, 다언어, 여러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IP 수정 표지

(31)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 [그러니까][뭐][뭐] 여행이나 국제거래 이런 것할 때
 IP 수정 표지

(32) 그렇게 ↑ [음][보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IP 수정 표지

(33) 아직 ↑ [뭐지][음] 아직 인터넷 뉴스 이런 거에서는
 IP 수정 표지

(34)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에게 ↑ [뭐랄까] 자극적으로만 그렇게
 IP 수정 표지

(35)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IP 수정 표지

<유형 5>는 화자가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발화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음절의 일부, 단어, 구 등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화자가 발화를 하는 중간에 적절한 후행 발화가 떠오르지 않거나 발화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이미 발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화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이현주, 2008:53). 반복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수정 표지와 같이 발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어가도록 조정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1음절을 반복하는 현상은 단순한 말더듬으로 볼 수도 있는데, 수정 표지를 동반한 반복 현상은 정보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수정 구조의 한 유형으로 다룰 수 있다.

(36) ~ (38)은 수정표지를 사용한 후에 반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정 표지를 사용한 구간에서 발화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39) ~ (41)은 수정 표지를 사이에 두고, 앞뒤 구간에 반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발화를 하는 중간에 이어질 발화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조정하고, 다시 발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례이다.

<유형 5> ‘수정 표지 → 반복’

(36) [그러니까] 언 ↑ 어떤 기사를 올리면 기사라든가 자신의 견해를 올리는데
수정 표지 IP

(37) [그러니까] 그 ↑ 그 ↑ 그렇게 북과 공작원인가
수정 표지 IP IP

(38)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서 ↑ [음] 이렇게 ↑ 이렇게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IP 수정 표지 IP

(39) 영어가 ↑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하고
IP 수정 표지

(40) 그런 언어들이 ↑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인터넷 사용은 안 하고
IP 수정 표지

(41) 훈민정음 ↑ [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IP 수정 표지

4. 맺음말

비유창성 발화가 불규칙적으로 무질서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변별적인 유형이 있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은 고도의 상위인지 활동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2장에서 비유창성 발화의 유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수정 구조를 유형화하였다. 비유창성 발화는 크게 수정 표지(editing terms)와 수정(repairs)으로 이루어지고, 수정 표지를 수반한 비유창성 발화의 수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화 오류, 발화 중단 지점(interruption point), 수정 표지, 대체어의 네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변별적인 절차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수정 구조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① ‘발화 오류 → IP → 수정 표지 → 대체어’, ②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IP → 대체어’, ③ ‘발화 오류 → IP → 대체어’, ④ ‘IP → 수정 표지’, ⑤ ‘수정 표지 → 반복’의 다섯 가지로 유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발화 오류가 발생하여 발화의 흐름이 방해받는 지점에서 발화가 중단되고, 후행 발화 내용을 조정하는 동안 휴지 구간이 발생하거나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휴지 구간을 채우고 있었다.

실제 발화 자료를 분석하면, 이상의 다섯 가지의 유형은 기본적인 구조이고, 이를 약간씩 변형하거나 반복한 절차에 따라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정 절차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화자가 한 번의 시도로 비유창한 발화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몇 차례에 걸쳐 시도한 후에 발화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화자 개인의 언어적 습관이나 발화 환경에 영향을 받아 하나의 발화 단위를 완전하게 계획하고 발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발화를 먼저 시작하고 중간에 계속해서 발화 내용을 수정해 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작업으로 화자의 언어적 습관, 성별, 언어 환경, 초분절적 요소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각 유형에 대한 빈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정 구조에서 수정 표지는 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단위이기 때문에 구어 자료의 양을 보충하여 좀 더 많은 형태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순수 언어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말하기 교육¹⁰⁾과 구어 말뭉치를 데이터 처리¹¹⁾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0) 한국어 교육에서도 반복, 탈락, 머뭇거림, 간투사, 휴지, 수정 등의 비유창성과 관련한 항목을 대화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어 문법 교육에서 강조할 필요가 크다고 논한 바 있다(지현숙, 2007:265).

11) Rao et al.(2007)에서는 구어 말뭉치를 데이터 처리하는 작업에서 비유창성 반복 및 오류 수정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화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발화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소영(2006), 구어 담화에 나타난 수정 양상 연구-수업 내용을 화제로 한 대학 강사들의 대화 중심으로-,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1-29.
- 구현정(2002). 말실수의 유형 연구: 대중매체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0-2, 1-24.
- 김명희(2006). 국어의문사 ‘무슨’의 담화표지 기능, 『담화와 인지』 13-2, 21-42.
- 김미숙(1997). 대화구조로 본 ‘아니’의 기능, 『담화와 인지』 4-2, 77-101.
- 김상수(2008), 한국어 학습자 발화의 유창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9-2, 1-16.
- 김선희(1994), 감탄사와 담화표지의 관련성, 『우리말글연구』 1, 265-283.
- 김태경·이필영(2007), 유창성 요인으로 본 말하기 능력, 『한국언어문화』 34, 25-44.
- 김혜영(2009), TV 토론 텍스트의 수정 화행 연구, 텍스트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남현옥 외(2006), 말더듬인의 삽입어의 기능적 특성, 『언어치료연구』 15-4, 19-32.
- 신지연(1998). 『국어 지시용언 연구』, 태학사.
- 이완기(2003), 대학생의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 모형, 『언어평가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을지(2007), 의미 중심 형태 교수가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2004), 말실수와 탐색 이론, 『한국어학』 24, 251-287.
- 이한규(1999). 한국어 담화 표지어 ‘뭐’의 의미, 『담화와 인지』 6-1, 137-157.
- 이현주(2008), 자기발화수정의 언어적 유형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31-64.
- 이희정(2003). 한국어의 [그러-]형 담화표지 기능 연구 - 일상대화 분석을 바탕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규홍(1995), 담화 표지 '뭐냐, 있지'에 대하여, 『어문학』 56, 51-68.
- 임지룡(1996). 말실수의 인지적 분석, 『문학과 언어』 17-1, 57-79.
- 전영옥(2003), 한국어 억양단위 연구, 『담화와 인지』 10-1, 241-265.
- 전영옥(2006), 구어의 단위 연구, 『한말연구』 19, 271-299.
- 지현숙(2007),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을 위한 과제 기반 교수법, 『국어교육연구』 20, 247-270.
- 최진희(2007), 한국어 대화의 수정 유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afe(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김병원·성기철 역(2006), 『담화와 의식과 시간:언어의식론』, 한국문화사),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x Tree(1995), The effects of false starts and repetitions on the processing of subsequent words in spontaneous speec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4, pp 709-738.
- Honal, M. & Schultz, T.(2003), "Correction of disfluencies in spontaneous speech using a noisy-channel approach", *In EUROSPEECH*, 2781-2784.
- LaSalle, L. R. & Conture, E. G.(1995). Disfluency Clusters of Children Who Stutter: Relation of Stutterings to Self-Repai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 965-977.

- Levelt, W. J. M.(1983). Monitoring and self-repair in speech, *Cognition* 14, 41-104.
- Levinson, S. C.(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eno, I. & Pineda, L.(2006), Speech repairs in the DIME Corpus, *Research in Computing Science* 20, 63 – 76.
- Postma, A. & Kolk, H.(1993). The covert repair hypothesis: Prearticulatory repair processes in normal and stuttered disfluencies, *Journal of Speech & Hearing Research* 36-3, 472-487.
- Rao, S. et al.(2007), "Improving Spoken Language Translation by Automatic Disfluency Removal : Evidence from Conversational Speech Transcripts.", *In Proc. MT Summit XI* 385-389.
- Swerts, M.(1998), Filled pauses as markers of discourse structure, *Journal of Pragmatics* 30, 485-496.

< 口語의 특성을 반영한 듣기 敎育 方案 연구 >

- 통사적 특성 중 省略 현상을 중심으로 -

정선화(중앙대학교)

<차례>

1. 序論
2. 듣기 敎育의 내용 영역
3. 口語의 통사적 특성
4. 敎育 方案
5. 結論

1. 序論

본고는 效率인 듣기 敎育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서 듣기는 口語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文語와 口語는 언어의 사용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듣기敎育에서 구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말하기도 물론 음성언어를 대상으로 하지만 표현의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선택의 유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듣기와는 다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듣기는 理解의 영역으로서 활동의 대상인 음성언어를 학습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듣고 정보를 해석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부담량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敎育에서 구어는 교수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 듣기敎育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¹⁾. 1990년대 이후 한국어 敎育에서는 意思疏通 중심의 교수법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敎材의 중심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文法이나 表現 항목들은 문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합교재의 대화문과 듣기 텍스트 역시 현실적인 한국인의 發話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 문어와는 달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구어의 구체적 항목들을 敎授시키고 실제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敎실에서의 듣기와 현실 세계 듣기의 격차를 줄여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구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중 교수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닌 것은

1) 권재일(2006)에서는 구어가 독자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은 실제로는 구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화 자료 분석과 함께 구어 문법 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어의 규범, 문법 敎育,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敎育 등 언어 敎育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된 교수내용들은 어떻게 제시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2. 듣기 敎育의 內容 領域

기존의 듣기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연구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實際資料 활용에 대한 제안(문금현(2000); 김정화.황인교(2002); 이해영(2002) 등)으로 한국어 교실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또는 뉴스를 이용한 듣기 수업도 실시되고 있다. 이 또한 한국어의 실제 발화에 좀 더 가까운 자료를 통한 교수와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자료들은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교수단계나 목표,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교사는 적절한 자료를 찾고 개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제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교사나 학습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일시적인 보조 자료로서의 기능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다 체계적인 듣기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교수하느냐'에 앞서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즉, 듣기교육 내용 영역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한국어 교육은 文語를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읽기·쓰기는 文語를 매체로, 말하기·듣기는 口語를 매체로 함에도 불구하고 규범언어를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언어체계가 읽기·쓰기, 말하기·듣기 교육에 구별없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문어와 구어는 담화 樣式(mode)을 달리 하는 언어의 사용으로 서로의 언어 사용역(register)²⁾이 다르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는 문어를 교육 대상으로 하고 말하기와 듣기는 구어를 교육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문어와 구어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은 아니어서 이 둘의 中心 文法 및 語彙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가지 언어기능의 공통 교육 내용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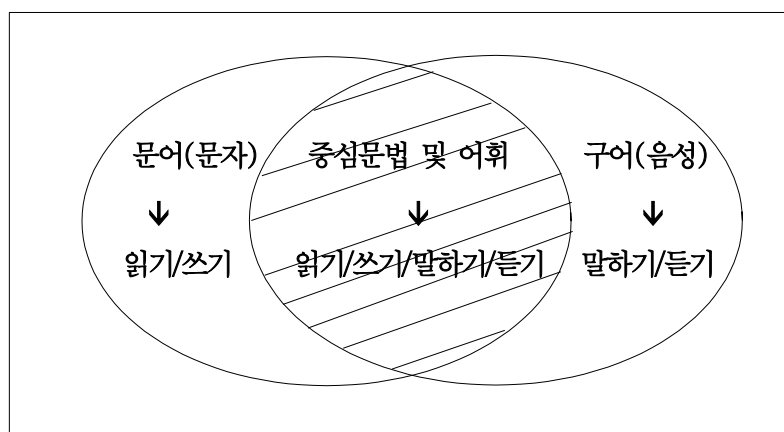


표1.< 담화 양식에 따른 언어사용역과 언어 기능 >

2) 텍스트를 연구함에 있어서 언어 사용자의 시간적, 물리적, 사회적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어들을 언어의 방언 자질이라고 부르는 반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 메시지의 내용을 밝히고 문맥상의 의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언어사용역이라고 부른다(Hatim & Mason 1990:46). Halliday는 언어사용을 다시 담화영역(field), 담화양식(mode), 담화주체(tenor)로 분류하였는데 이때 담화양식은 언어활동의 매개체를 일컫는 것으로서 사용역의 차이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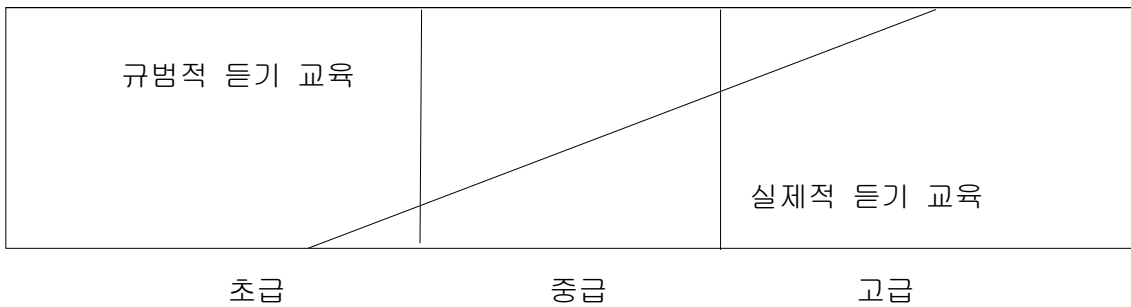
위 표에서 공통부분인 중심문법 및 어휘 부분은 현재 한국어 읽기/쓰기/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 교육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성언어가 갖는 특성들에 대한 교육이 간과되어 완전한 듣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학습자들은 현실듣기와 교실에서의 가상듣기로부터의 괴리와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듣기 교육의 내용은 規範的인 듣기 교육과 實際的인 듣기 교육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규범적 듣기 교육'은 문어와 구어가 공통적으로 갖는 한국어의 중심문법과 어휘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어의 음소구별, 음절구별, 어휘 및 문장구조 인식, 나아가 談話 차원의 듣기를 위한 것으로서 표준 어법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들이 듣고 재생산할 수 있는 모범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고 의도된 듣기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實際的 듣기 교육'은 구어만이 갖는 고유의 영역으로서 구어 사용 시 나타나는 현실 발음, 연속되는 발화로 인한 음운 변화, 축약이나 생략, 어순의 자유로움, 간투사, 구어적인 어휘 및 표현을 듣고 담화 차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표2. 듣기교육의 종류

종류	규범적 듣기 교육		실제적 듣기 교육
내용	표준 어법에 맞는 규범적인 한국어의 어휘와 문장 및 담화로 이루어진 음성자료		실제 구어의 음운적, 어휘적, 통사적, 화용적 특성을 반영한 음성자료
목적	한국어의 음소, 음절, 어휘, 기본문형, 담화, 음운현상 등을 음성자료를 통해 듣고 이해하도록 연습하고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제시		실제 한국인의 담화에 나타나는 구어적 특성을 알고 익숙하도록 하여 실제 듣기능력을 향상시킴
활동 유형	문장 반복하기, 듣고 쓰기(받아쓰기, 괄호넣기),	요점 찾기, 특정 정보 찾기, 화제 추론하기, 적절한 반응 선택하기, 전반적이고 종합적 이해	실제 담화의 특성 알기 축약형, 생략형, 도치 등 듣고 인지하기, 기본형으로 바꾸기,

물론 이 두 가지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목적이나 숙달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일 경우와 일상생활 목적의 학습일 경우는 분명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학습하고자 하는 중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의 듣기의 비율을 각각 달리 해야 할 것이다.

표3. < 단계별 듣기 교육 >



3. 구어의 통사적 특성

다음은 세종 말뭉치 현대 구어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실제자료가 갖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³⁾

표4. 구어자료에 나타난 구어적 특성

P1 : 근데 머리 길이(가) 지금 어느 정도네 지금<도치>?
P3 : (머리길이)가 애만 해.
P6 : (머리)를 다 잘라 냈겠다.
P3 : 근데 일자 머리였는데 그까 움직이구 그러잖아.
그러면 지금 머리가 이렇게 되거든. 지금 머리 길이가<도치, 반복>.
P5 : 아 어떡해?
P3 : 내 동생(이) 비게(들) 비구(서) 못 자. 맨바닥에서 자.
P2 : 그 다음 날(이) 되면 다 머리(가) 이케 돼 가지고 막
P5 : 어디에서 했어요? 이대에서 (머리)를 한 거예요?
P3 : 아니 아니야 집 근처에서 (머리)를 했어요.).
P1 : (돈이) 얼마(들) 줬는데?
P3 : 내 동생이 십육만 원(을) 줬어).
P1 : 기연이가 (줬어?), 아니. 그렇게 했는데두:: (머리가) 왜:: 그래?
P3 :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야 과실이야. <반복> 과실이야.
P6 : (머리)를 너무 오래 한 거야?
P3 : 아니 아니야 기계가 잘못 돼서 (그렇게 됐어).
P6 : 난 십육만 원(을) 주고 난(반복) 매직할 엄두도 못 내겠다.
P2 : 기연이가 쫌 동아퀴서 (그 가격에 했어).
P6 : 맞아 맞아<반복> (나는) 이만오천 원(에) 했어)
P1 : 어 지원네(는) 부잔 거 같애. (지원이)를 다시 봐야겠어.
P3 : 이제 딱 미용실(에) 다닌다. 딱 미용실(에) 딱 갔더니. 미용실 디자이너가 하는 말이 뭐 줄 알아? 그 한마디. 머리(들) 깎아 노니까 장난(아)아니야.

근데, 그까, 어떡해, 이케, 했는데두, 쫌, 깎아 등 축약과 비표준 발음 등의 音韻的 特性과 예문에서 ()안에 보이는 생략된 부분이나 반복, 도치와 같은 통사적 특징, 어, 딱, 막과 같은 간투사나 화자나 청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話用的 特性, ‘장난 아니다’와 같이 구

3) 21세기 세종계획(2007) 최종 성과물 중 현대 구어 원시 말뭉치(일상대화 중)

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나 어휘 등 짧은 대화 속에서도 구어와 문어의 차이는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구어와 문어는 음운적 현상에서부터 어휘, 통사, 화용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여러가지 특성들 중 본고에서는 통사적 특성을 다루고자 하는데 구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인 노대규(1996)에서는 한국어 입말의 통어론적 특성을 글말과 비교하여 자유어순, 조사나 문장 성분의 생략, 비문법적 문장과 미완성의 문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글말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⁴⁾. 본고는 이외에도 실제 口語 資料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의들⁵⁾을 참고로 하여 구어의 통사적 특성 중 省略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3.1. 문장성분의 省略

타 언어에 비해 통사적 제약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한국어의 특수성과 화자와 청자가 시간적·공간적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외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구어의 보편성으로 인해 주어 성분이나 목적어 성분이 생략된 문장이 대화 문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조사의 생략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강지수(2005)에서는 구어체 담화와 문어체 담화의 문법 현상 비교에서 필수논항의 생략(명사구의 생략비율이 59%)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대명사화나 어순이동보다도 생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화자가 자신이나 청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사건이나 사실 등을 표현하여 굳이 주어를 제시하지 않아도 대화 맥락상 짐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어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나 : 만나기로 한 친구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철수 씨는요?
 가 : 저는 어제 영숙 씨 생일 파티에 갔다 오느라고 늦게 들어갔어요.
 나 : 어머, 그래요? 나는 어제 영숙 씨 생일인 줄 몰랐어요.
 가 : 영숙 씨가 제인 씨한테 전화해 보자고 하는 걸 내가 바쁠 테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나 :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나만 빼고 파티하니까 재미있었어요?
 가 : 그럼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하하. (표5. 서울대3권 듣기지문 참조)

위 지문에서 화자는 계속적으로 주어를 밝힘으로써 실제 발화에서 보이는 경제성에 적합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구어자료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화제를 기반으로 주어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예는 실제 구어자료에서 서술어나 목적어 등의 문장성분이 생략된 경우이다.

p5 : 어디에서 (했어요)? 이대에서 (머리를/파마를) 한 거예요?
 P3 : 아니 아니야 집 근처에서 (머리를 했어요.).
 P1 : (돈을) 얼마(를) 줬는데?
 P3 : 내 동생이 십육만 원(을 줬어).
 P1 : 기연이가 (줬어?),아니.그렇게 했는데두::
 (머리가) 왜:: 그래? (표6. 실제자료 문장성분 생략 참조)

이와 같이 문장성분이 생략된 듣기지문이 주어진다면 완결된 規範的 문장에만 익숙해져 있

4) 구어에 대한 연구가 드물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의의는 있지만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5) 권재일(1989), 서상규:구현정(2002), 서은야:남길임:서상규(2004), 김건화:권재일(2004), 강지수(2005), 정화재(1997), 이숙(2009)

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이러한 생략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연후에 脈絡을 통한 듣기 연습이 필요하다.

3.2 조사의 省略

발화에 나타나는 조사의 省略⁶⁾은 언어 수행상 잉여성 제거라는 언어의 경제 원칙에 의한 것(최상진, 1985 참조)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로 권재일(1989)에서는 속격 조사의 생략이 67%, 목적격 46%, 주격 22%, 처격 8%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 모두 서술어 바로 앞에서 생략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명사구의 정보 내용이 신정보일 때보다는 구정보일 때 생략 비율이 높았고 초점을 받을 때보다 초점을 받지 않는 정보구조의 문장에서 두 조사가 더 자주 생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숙, 2009). 듣기교육 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듣기 텍스트 구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교수 학습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기존 교재에 나타난 몇몇 동사와 관련한 조사의 실현 양상들이다. 기존 교재는 서울대, 연대, 이대 3.4권의 듣기 지문을 조사한 것인데 이대 교재는 대화보다는 1인 발화가 많고 지문 내용 또한 일상적인 내용이 많지 않아서 구어의 특성을 더욱 보여주지 못했고 조사 대상 동사들의 제시가 극히 드물어서 조사결과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조사들은 구어자료에서의 비실현양상과는 달리 기존 한국어 교재에는 모두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 담화와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에 (가다)			-을/를 (먹다)			-을/를 (보다)			-이/가 (있다)		
자료	구어	서울 대	연세 대	구어	서울 대	연세 대	구어	서울 대	연세 대	구어	서울 대	연세 대
실현	4(4)	15	10	2	7(5)	7	4	1(1)	1	26	48	13
보조사		3	2	3	5	1	9	3		12	4	2
비실현	24	5	1	10	5	8	5	1		16	2	2
축약								2	2	13	2	
전체	28	23	13	15	12		18	7	3	67	56	17

* () 안의 숫자는 서술어와 명사구 사이에 다른 부사나 부사구가 삽입된 경우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가다'는 'N에 가다'로 제시되는데 실제 구어 자료에서 보면 'N 가다⁷⁾'의 형태가 훨씬 많이 등장한다. 현대 口語 資料(일상대화-가족과 사랑에 대해, 9140어절)에서 조사'에'가 실현된 곳은 1.4%에 불과했는데 모두 서술어 '가다'와 명사구 사이에 다른 부사가 삽입되었을 경우였다. 나머지 98.6%는 모두 'N 가다'의 형태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실제 듣기에서 학습자는 기대와는 다른 듣기를 하고 이해해야 한다. '먹다'의 경우에는 'N을/를 먹다'로 교재에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 자료에서는 1.1%에서만 교과서의 제시형으로 실현되었고 55%에서 생략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약형을 보이고 있어서 목적어와

6) 안병희(1966)의 부정격이나 민현식(1982)의 무표격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부정격을 따로 설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 종류의 추가보다는 생략 현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7) 1음절인 집, 방, 산 등에는 생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가 함께 전혀 다른 소리 덩어리로 뭉쳐져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청취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동사 ‘있다’의 경우 주격조사는 구어에서는 조사가 실현된 양상과 비 실현된 양상, 보조사와 축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반해 교재에서는 모두 주격 조사 ‘이/가’의 실현으로만 제시되고 있어서 실제 구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조사 생략을 敎授要目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조사가 일본어 학습자를 제외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것이고 의미나 기능이 학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자들이 조사사용의 오류를 피하려는 回避 현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 초기 ‘조사’는 교수나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쉽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예를 들면 연어의 형태로 가르칠 것인가 등)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조사의 생략 현상에 대한 것은 학습자들이 조사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인지하고 난 연후에 고려해야 할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한국어 교육에서는 조사의 省略⁸⁾보다는 올바른 사용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습자들은 음성언어를 듣고 이해하려고 할 때 소리나 의미단위로 묶거나 끊어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한다. 학습자들은 조사를 포함한 어절 단위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조사가 생략 되면 주어나 목적어가 서술어와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완전한 형태에 익숙해져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하나의 생소한 구절로 인식되어서 듣기의 장애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전 학습과 듣기연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생략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교수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문장 성분 생략은 주로 담화 상에서 의미나 형태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으로서 문장뿐만 아니라 談話 차원에서의 脈絡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략된 성분을 가진 문장의 의미 推測, 생략된 성분 찾기를 연습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 생략은 생략으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이 적을 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기존 교재에 조사와 함께 연어의 형식으로 제시되던 동사는 실제 담화에서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듣기 교재에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생략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敎育 方案

생략 현상은 도치, 반복, 삽입 등과 같이 구어의 통사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앞서 2장에서 듣기 자료와 목적, 활동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實際的 듣기 교육의 교수요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수법은 상향식 듣기 교육과 하향식 듣기 교육을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이다. 상향식 교수기법은 전형적으로 소리와 단어, 억양, 문법 구조를 비롯한 구어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하향식 교수기법은 사전 지식의 활성화와 의미 추론, 내용의 전체적 이해, 텍스트의 해석과 같은 활동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H.D Brown 2001:320)으로서 모두 궁극적으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교수법이므로 서로 고유의 영역이 있고 어느 하나를 소홀히 다루거나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다.

먼저 듣기 전 단계에서는 해당 교수 항목을 포함한 듣기 텍스트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배

8) <Integrated Korean>는 1권 3과에서 격조사 비실현을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설정하고 대화체와 서술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격조사 비실현/생략이 어떤 의미기능을 전달하고, 격조사가 있는 경우와 어떤 담화-화용론적 차이가 있는지 언어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위의 예들에서 격조사를 붙이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이해가 아직 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과서들이 최소한 구어에서 격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런 발화를 본문과 예문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다. 이효상(2005 참조)

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듣기 단계에서는 대화를 듣고 전체적인 메시지와 의도를 찾아내는 내용 중심의 확장형 듣기활동을 한다. 그리고 나서 형태 중심의 세부적 활동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장 구성 및 구조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교수 항목으로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즉 담화의 구성요소(음소, 단어, 억양, 대화 표시장치 등)를 집중해서 듣고 구어의 일정한 요소를 가려내도록 하고 그러한 특성들을 인지시킨다. 이때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활동을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인지 단계가 끝나면 주어나, 목적어 혹은 서술어가 생략된 문장 등의 예를 각각 들려 주면서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의미의 중복으로 인해 생략된 성분을 찾는 연습을 한다. 그 다음은 활용 단계로서 인지와 연습을 거친 뒤 실제 말하기에서 문장 성분을 생략하여 대답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그리고 생략되지 않고 중복된 성분이 그대로 있는 문장에서 생략하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여 생략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듣기 후 단계에서는 들은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거나 주제 관련 상호 작용 활동 등을 한다.

＜ 실제적 듣기 교육 단계 ＞ - 문장성분 생략 -

학습 목표 : ‘문장성분 생략’에 대해 알고, 문장성분이 생략된 텍스트를 듣고 이해하기

듣기 전 단계 : 배경지식의 활성화 단계



듣기 단계 : 전체적 내용 이해와 구조 인지 및 연습 단계(상향식+하향식)



1. 확장적 듣기 활동 : 전체적인 메시지와 의도를 찾기
2. 세부적 듣기 활동 : 문장 구성 및 구조에 관심(각 항목별)
 - 의미파악 후 문장의 특성 찾기
 - 인지 : ‘문장 성분 생략’에 대해 알기
 - 연습 : 생략된 문장 듣고 이해하기 ⇨ 생략 성분 찾기
 - 활용 : 듣고 생략된 형태로 대답하기
 - 확인 : 중복된 문장 성분 찾고 생략하기



듣기 후 단계 : 들은 내용 점검 및 관련 상호 작용 활동

5. 結論

본고는 效率的인 한국어 듣기교육을 위하여 언어 사용역에 따른 듣기교육 內容領域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듣기교육을 規範的 듣기교육과 實際的 듣기교육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구어의 통사적 특성 중 省略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기존 교재와 실제 구어 자료에서의 실현 양상을 살펴 보고 그에 대한 教育方案을 마련해 보았다.

문장 성분의 생략은 대화 속에서 의미나 형태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학습자들이 문장뿐만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의 맥락 파악이 필수적이며 그 속에서 생략된 것을 찾아내고 전체적인 의미를 추측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의 생략은 생략으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이 적을 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조사보다는 격조사의 생략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존 교재에 조사와 함께 連語의 형식으로 제시된 동사는 실제 담화에서 조사가 비실현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듣기교재에는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는 생략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듣기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目的은 意思疏通에 있다. 그러므로 실제 한국인의 發話가 듣기수업에서 연습하고 기대했던 양상과 다를 때 학습자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진다. 듣기 자료와 현실 세계와의 격차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문어를 기반으로 한 듣기자료의 구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듣기교육의 내용은 구어의 특성 중 頻度가 높으면서 의사소통을 妨害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되, 지나치게 非文法的이거나 未完의 문장이어서 한국어 화자조차 이해하기 힘든 현상은 除外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수(2005), 「구어체 담화와 문어체 담화의 문법 비교」, 『어문연구』 47, 어문연구학회.
- 권재일(1989), 「조사의 성격과 그 생략 현상에 대한 한 기술 방법」, 『어학연구』 제25권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2006), 「구어문법과 조사의 생략」, 『국어학논총:이병근선생퇴임기념』, 어문연구회편집위원회.
- 김건희, 권재일(2004), 「구어 조사의 특성」, 『한말연구』 제15호, 한말연구학회.
- 김정화.황인교(2002), 「초급단계에서의 듣기 자료의 실제성」, 『이중언어학』 제20호, 이중언어학회.
-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 문금현(2000),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0차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 서상규.구현정 공편(2002), 『한국어 구어 연구(1)』-구어 전사 말뭉치와 그 활용-한국문화사.
- 서은아.남길임.서상규(2004),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조각문 유형 연구」, 『한글』 264, 한글학회.
- 심재기.문금현(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 연구」, 이중언어학회 제9차 국제학술회발표 요지.
- 이숙(2009), 「대화체 문장에 나타나는 조사 생략의 분포적 특징」, 『인문과학』 제43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주행(2006), 『한국어 문법』, 도서출판 월인.
- 이해영(1999a), 「한국어 듣기교육의 원리와 수업구성」, 『한국어 교육』 제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2002), 「한국어 듣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영순 편,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이효상(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제1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 정희자(1997), 「생략의 담화기능적 연구」, 『외대논총』 제17집, 부산외국어대학교.
- 최상진(1985), 「국어발화상 조사생략의 화용론적 특성」, 『어문연구』 통권 4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H.Douglas Brown(2000), *Teaching by Principles(2nd Edition)*, Longman. 권오량.김영숙 .한문섭 공역(2001), 『원리에 의한 교수』, Pearson Education Korea.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인 격표시 구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고찰

엄홍준(중앙대학교)·김용하(안동대학교)

<차례>

1. 서론
2. 주어 인상 구문
3.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
4. 복사 인상 분석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모색
5. 결론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영어와 터키어에서 주어 인상 구문을 분석하여 보고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한국어의 ‘ㄴ 것 같다’ 구문에서 역시 주어가 인상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영어에서 seem류 동사들의 보어절에 있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인상하는데 그 보어절이 정형절(finite clause)일 때는 불가능하고 비정형절(non-finite clause)일 때는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터키어에서는 정형절일 경우와 비정형절일 경우 모두 보어절에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러한 이동을 복사 인상(copy rais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이동 아래에서는 이동한 요소가 그것의 원래 자리에 명사구 흔적 대신 pro를 남기는 것으로 가정된다. 한국어에서 ‘ㄴ 것 같다’ 구문이 주어 인상 구문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구문은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옳은 분석인지를 살펴본다.

한국어는 영어와 터키어와는 달리 시제와 일치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존칭 어미 ‘-(으)시-’가 일치 현상을 보이는 요소로 간주된다. 이 존칭어미를 이용하여 한국어에는 주어 인상 구문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고 만약 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둘째, 영어와 터키어에서의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어에서 이 구문은 어떻게 분석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한다. 예외적 격 표시 구문으로 알려졌지만 생성 문법 초기에는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으로도 알려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구문 역시 주어 인상 구문과 비슷한 양상을 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예상대로 영어와 터키어는 주어 인상 구문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고려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 외에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가 보여주었던 이동하는 요소의 이동 과정보다는 이 이동이 남기는 흔적에 대해서 세밀히 고찰하여 앞서 알아보았던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 격 표시 구문에서의 공범주(empty category, e.c.) 간의 공통점을 제시한다.

2. 주어 인상 구문

2.1 영어에서의 주어 인상 구문

이 장에서는 영어에서의 인상 구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영어에서는 (1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정형절 또는 부정사절(infinitival clause)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1b)에서와 같이 인상을 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 (1) a. John seems [to be happy.]
b. *It seems [John to be happy.]

(1b)가 비문인 이유는 격여과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내포절의 주어인 외현적인 명사구인 John(즉 음성내용을 지닌 명사구)은 격을 지녀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 (2) 격여과(Case filter, Chomsky 1981:49)

모든 음성내용을 지닌 명사구는 격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3)에서 볼 수 있듯이 내포절이 정형절(finite clause)일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 (3) a. *John seems [that is happy.]
b. It seems [that John is happy.]

(3a)에 대해서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에서는 소위 시제절 조건(Tensed S Condition)으로 설명하였다.

- (4) 시제절 조건(Radford 1981:249)

시제절의 어떤 요소도 그 절 밖으로 이동할 수 없고 그 절 밖에 있는 다른 요소로 해석될 수 없다.

(3a)에 대해 알아보면, 시제절인 내포절에서 John이 이동을 하여 비문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John이 인상되지 않고 it을 주절의 주어자리에 삽입하면 (3b)에서처럼 정문이 된다. 잠시 (3a)에서 John의 이동 전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 위치는 명사구가 이동한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구는 이 위치에 NP-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 흔적은 통상 격이 없는 위치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 자리는 주어의 위치이고 따라서 주격이 할당되는 자리이다. 결국 격 여과에 의해서도 이 문장은 비문으로 처리될 수 있다. 만약에 이 자리가 PRO라고 가정해보자. PRO도 역시 통상적으로 격이 없는 위치에 나타난다. 그리고 PRO는 독자적으로 의미역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이 PRO가 의미역

을 지닌다면 주어로 이동된 주어 John은 의미역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비문으로 처리된다. 마지막 가능성이 *pro*인데 영어는 *pro*-탈락 언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2. 2 터키어에서의 주어 인상 구문

2. 1장에서 우리는 영어에서의 주어 인상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영어에서는 내포절이 비정형절일 때는 그 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운 반면에 정형절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이 터키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Moore(1998)에서는 2 장에서 알아 본 정형절과 비정형절을 (5)와 (8)에서처럼 각각 일치 직접 보어절(*agreeing direct complement*)과 불일치 직접 보어절(*non-agreeing complement*)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터키어에서는 CP와 IP의 구별이 일치소(*Agr*)에 의해 선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¹⁾

(5) 일치 직접 보어(*Agreeing Direct Complement*)

- a. **Biz** *san-a* *süt iç-ti-k* *gibi görün-dü-k*
 we-NOM you-DAT milk drink-PST-1PL like appear-PST-1PL
 'We appeared to you to have drunk milk' (Mulder 1976)
- b. *San-a* *çocuk-lar* *süt-ü* *iç-ti-ler* *gibi gel-di-ø*
 You-DAT child-PL-NOM milk-ACC drink-PST-3PL like-seem-PST-3SG
 'It seemed to you that the children drank the milk.'

술어 *gibi görün*(appear like)과 *gibi gel*(seem like)은 직접 보어를 취하는 동사이다. (5)에서는 그 보어절에 일치소가 있어 영어에서의 CP와 대응하고 (8)에서는 그 절에 일치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P와 대응된다. 먼저 (5)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5a)에서 *gibi görün*(appear like)과 (5b)에서 *gibi gel*(seem like)의 보어절은 일치소가 있는 절이다. 즉 영어에서의 (3a)와 같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영어와는 달리 정문으로 판정된다. 즉 영어에서는 소위 시제절 조건을 위배하여 비문이 되는데 터키어에서는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Biz_i san-a [_{CP} pro_i süt iç-ti-k]* *gibi görün-dü-k*

Moore(1998)에 의하면, (6)에서 *Biz*는 원래 내포절의 주어에 있었는데 주절의 주어로 인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는 발음되지 않는 *pro*가 복사된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서로 연결된다. 내포절의 주어가 NP-흔적과 *PRO*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알아보았기 때문에 *pro*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Moore(1998)에서는 *pro*만이 이 위치에 적합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pro*는 NP-

1)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Moore(1998:159-160)를 참조하길 바란다.

흔적과 PRO와는 달리 격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pro*는 격을 필요로 하는 요소이며 이 문장에서 내포절의 주어 위치는 격이 할당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다.²⁾

Moore(1998)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터키인들이 (6)과 같은 분석에 동의를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촌스럽거나’ 비문법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방언 A와 B로 나뉘어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즉 방언 A는 (6)의 구조를 허용하지 않고 방언 B는 (6)의 구조를 허용한다.

한편, (5b)에서와 같이 주어 인상이 일어나지 않은 구문은 다음과 같이 그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7) *pro* San-a [[çocuk-lar sût-ù iç-ti-ler]] gibi gel-di-Ø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이동하지 않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 서는 주절의 주어는 발음되지 않는 허사적인 주어(pleonastic subject)가 가정된다. 이러한 설정은 EPP와 주어 위치의 격 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문장 술어가 일치소를 지니지 않은 보어절을 취하는 경우인 (8)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8) 불일치 직접 보어(Non-Agreeing Direct Complement)

- a. Sen herekes-e [IP viski-den iç-miş] gibi görün-üyor-sun.
 you-NOM everybody-DAT whisky-ABL drink-EVID like appear-PROG-2SG
 'You appear to everyone to have drunk some whisky.'
- b. **Biz** san-a [IP sût iç-ti] gibi gel-di-**k**
 we-NOM you-DAT milk drink-PST like appear-PST-IPL
 'We seem to you to have drunk milk'

(8)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포절의 주어 위치에 있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을 했지만 이 이동은 복사 인상인 (7)과는 달리 NP-이동이라는 것이다. 이 내포절은 (6)의 내포절과는 달리 술어가 일치소를 지니고 있지 않아서 내포절에서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격을 할당받지 못한다.³⁾ 이 내포절의 주어는 일치를 하기 위해 주절의 주어로 이동하여 주절의 동사와 일치를 이루고 격을 할당받는다. 이 이동이 복사 인상이면 *pro*가 내포절의 주어 위치에 있게 되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요소는 격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위치는 격을 받을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복사 인상으로 분석할 수 없다.

2.3 한국어의 주어 인상 구문

이 장에서는 한국어에서도 2.1과 2.2에서 알아 본 것처럼 그것과 같은 인상구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영어의 *seem*와 터키어의 *gibi görün*(appear like)과

2) 이러한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쇄조건의 위배를 들 수 있다. 연쇄의 머리는 격을 꼬리는 의미역을 받는 것이 이 조건인데 이것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Moore(1998)는 이러한 위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Yoon(1996)의 주장을 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 George and Kornfilt(1981)에 의하면 격은 일치 작용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생성문법에서는 이것을 Chomsky(1995)이래로 받아들이고 있다.

gibi gel(seem like)과 같은 술어로 한국어에서는 대표적으로 ‘ㄴ 것 같다’를 들 수 있다.

(9) a. 철수가 바쁜 것 같다.

‘Choesu seems to be busy.’

‘It seems that Choelsu is busy’

b. 철수가 바빴던 것 같다.

‘Choesu seems to have been busy.’

‘It seems that Choelsu was busy’

한국어에서는 ‘ㄴ 것 같다’에서 분석할 수 있듯이 ‘ㄴ’이 어느 정도 시제를 나타낸다고 보는 바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구문에는 비정형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어에는 터키어와는 달리 일치자질이 선명히 나타나는 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9)에서 ‘철수’가 어느 절에 위치해 있느냐를 분별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어에서 존칭선어말 어미 ‘-시-’가 일치자질의 역할을 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10) a. 할아버지께서는 [CP 철수가 책을 본다고] 생각하신다.

b. *할아버지께서는 [CP 철수가 책을 보신다고] 생각한다.

c. *?할아버지께서는 [CP 철수가 책을 본다고] 생각한다.

d. *할아버지께서는 [CP 철수가 책을 보신다고] 생각하신다.

(10b)-(10d)가 비문법적이거나 어색한 문장이라고 판정하는 근거는 역시 존칭 어미 ‘-시-’와 같은 절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일치를 준수하고 있는 (10a)의 문장은 정문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ㄴ 것 같다’와 만약 ‘할아버지’가 일치를 이룬다면 한국어에서도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인식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ㄴ 것 같다’의 의미 구조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김동욱(2000)은 (9a)의 구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⁴⁾ ‘철수가 바쁘다’라는 명제내용을 형식 명사 ‘것’이 하나로 묶어 [[철수가 바쁘] 것]이라는 명사절을 만들어 놓고 이를 선행절로 삼는다. 이 때 형식명사 ‘것’을 수식하기 위해 술어인 ‘바쁘다’는 관형형어미 ‘ㄴ’을 내포하는 ‘바쁘’으로 형태가 바뀐다. 이를 다시 명사절이 나타내는 명제내용과 화자가 예측하는 내용이 동일함을 나타내는 등식술어 ‘같다’로 묶는다. ‘같다’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명제내용을 서술대상으로 할 때 ‘같다’의 ‘가정적 동일성’의 의미를 통해 추측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것’은 명제내용을 명사절로서 묶어 주는 문법적인 역할을, 같다는 가정적 동일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적 기능을 함으로써 ‘ㄴ 것 같다’ 전체로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고 한다.

‘ㄴ 것 같다’가 추측의 의미를 지니면 추측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김동욱(2000:182-184)은 화자 자신이 판단의 주체임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과의 공기관계를 시험한다.

(11) 내가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우리는 (11)의 문장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추측의 주

4) 김동욱(2000)에서는 ‘범인이 잡힌 것 같다’로 분석하고 있는데 편의상 (9a)로 대신함을 밝힌다.

체는 화자 자신임을 알 수 있다.⁵⁾⁶⁾ 따라서 (12)의 문장을 우리가 매우 어색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화자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

(12) * 내가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이제 다시 할아버지와 ‘같다’와의 일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 (13) a.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b.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c.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던 것 같다.
d.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던 것 같으시다.

(13b)에서 ‘같다’가 ‘할아버지’와 일치가 되어 거기에 ‘-시’가 붙은 경우인데 이것은 ‘할아버지’가 ‘같다’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d)는 시제가 과거인 경우만을 제외하면 (13b)의 경우와 같다.⁷⁾ 내포절의 주어가 존대를 수반하는 명사일 때 그 술어에 존칭 어미가 붙지 않고 주절의 술어 ‘같다’에 존칭이 붙은 다음 경우를 고려해보기로 하자.

(14)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간 것 같으시다.

할아버지는 앞서 알아보았듯이 내포절에 있기 때문에 그 내포절의 술어와 일치를 해야 하고 주절의 술어 같다는 화자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존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ㄴ 것 같다’의 주체는 화자 자신이다. 따라서 화자 자신을 높이는 존칭 어미 ‘-시-’는 ‘같다’에 수반될 수 없다. 만약 (13)과 같은 문장에서 내포절에 있는 ‘할아버지’가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이동한다면 그 술어 ‘같다’에 존칭어미가 붙어야 하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한국어에서의 ‘ㄴ 것 같

5) 김동욱(2000:182)은 이러한 추측을 주체 추측이라고 부르고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체추측이란 화자가 자신의 판단 및 판단이 나타내는 명제내용에 대해 주체적인 서술태도 즉 판단의 주어진 태도를 취하는 추측형식이라고 정의한다. 화자고유의 판단이라는 의식이 있고 판단의 최종적인 책임이 화자 자신에게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6) 유목상(개인 교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존칭의 접사(particle) ‘-시-’는 호응(呼應, 照應, 一致, concord)에 의하여 채택하게 마련이다. 내가 나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일인칭과는 조응하지 못한다. 화자가 이인칭의 말 상대자나 또는 화제에 오르는 분을 높이려면 그분에 관계되는 동작이나 상태에 대하여 ‘-시-’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곧 ‘선생, 철수, 만나다’를 소재로 한 구문은 ‘선생님이 철수를 만나시다.’로 윤색된다.

선생님이 철수를 만나신 것 같으십니다.
선생님이 철수를 만나시기가 불가능하십니다.

에서 ‘같으십니다.’와 ‘불가능하십니다.’의 ‘같다’와 ‘불가능하다’가 어떤 주체와 호응하는가를 살펴보면 화자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님이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를 요즘 젊은 층에서 ‘어머님이 신문을 보시고 계십니다.’로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호응관계로 보아 겹치기는 하지만 비문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에 기대어 해석한 잘못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7) 한국어에서 시제와 일치소(‘-시-’)를 구별하면 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3b)와 (13d)를 구별하여 분석해 보았다.

다'구문은 주어 인상 구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pro* [[_{CP}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과는 다른 직관을 가진 한국인 화자도 제법 있는 것 같다. 즉 (13)의 비문법성이 다음과 같이 판정하는 화자도 있다는 것이다.

- (16) a.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b.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c.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던 것 같다.
 d.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던 것 같으시다.

(16)과 같이 판정을 하는 화자라 하더라도 (14)의 문장은 비문으로 혹은 아주 어색한 문장으로 판정한다. 서정목(2000)에서는 이 예문을 용인 가능하다고 보는 직관은 아마도 것 같다 상황이 할아버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직관 아래서는 (15)의 공범주(이 공범주를 임홍빈(1985)의 용어를 따라 상황 공범주라고 부른다.)가 나타나는 자리에 할아버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문의 '(으)시'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모문에 있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구조는 흥미롭게도 터키어의 경우((6)과(7) 참조)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할아버지께서 [[_{CP} e.c. 노인정에 가신]것] 같으시다]

(17)에서의 e.c. 즉 공범주는 할아버지가 이동한 자리에 남겨두는 요소인데 이것은 명사구 흔적이 아니라 *pro*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는 시제절의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이 인허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구 흔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어에서도 터키어와 같이 두 직관을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한국어의 주어인상구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8)

	정형절에서 명사구이동	정형절에서 복사인상	비정형절 (명사구이동/ 복사인상)
영어	불가능	불가능	가능/불가능
터키어	불가능	불가능/가능	가능/불가능
한국어	불가능	불가능/가능	해당 없음

3.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

3.1 영어의 경우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은 생성 문법 초기에서부터 연구되어 온 구문으로 초기에는 내포절의 주어와 모문의 주어로 인식되었다는 분석이 받아들여지다가 Chomsky(1973)에서 내포절이 S'가 아니라 S로 하위범주화되어 모문의 동사가 직접 내포절의 주어에 격 즉 대격을 인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9) a. We believe [them to have resolved this issue]
b. We believe them [e.c. to have resolved this issue]

즉 (19)와 같은 구문은 두 가지 분석으로 대표되는데 우리는 (19a)의 경우를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이라고 하고 (19b)를 주어-목적어 인상구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러한 구문은 내포절이 비정형절일 때만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정형절일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 a. *We believe them that e.c. have resolved this issue.
b. *We believe that them have resolved this issue

(20a)가 비문인 이유는 2장에서 알아본 것과 같다. 즉 명사구 이동의 흔적(내포절의 공범주 e.c.)이 주어 위치에 있고 명사구 흔적은 격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20b)가 비문인 이유는 모문의 동사가 내포절의 주어를 인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포절의 주어는 주격이 인허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또한 영어는 pro를 지니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배제된다. 또한 PRO의 가능성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PRO가 시제절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어 이 가능성도 배제되어 이 구문은 비문이 된다.

다시 (19)의 문장으로 돌아가서 (19a)의 분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19b)의 분석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구문이 비록 예외적 격 표시 구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따라서 (19a)의 분석이 옳은 듯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19b)의 분석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굳이 Postal(1974)의 분석으로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Lasnik과 Saito(1991) 그리고 Lasnik(1995)에서처럼 이 구문은 주어-목적어 인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1) [?]The DA prove the defendant [t to be guilty] during each other's trial.

모문에 있는 each other는 내포절에 있는 주어 the defendant에 의해 인허된다. 이러한 설명은 the defendant가 내포절에서 모문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Lasnik(1995)은 위의 구문에서의 내포절 주어는 외현적인 이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3.2 터키어의 경우

터키어의 경우에는 앞서 알아보았던 주어 인상 구문과 거의 같은 현상을 보인다. 방언 A의 경우는 비정형절 즉 불일치 직접 보어절에서의 주어-목적어 인상은 허용한다. (22)에서 내포절은 일치자질이 없기 때문에 격을 인허할 수 없다. 따라서 'sen'이 격을 인허받기 위해서는 모문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해야한다. 그 결과 대격을 모문의 술어로부터 인허받는다. 하지만 정형절(일치 직접 보어절)에서는 주어-목적어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23)의 구문은 비문이 된다.

(22) 불일치 직접 보어절

Sen-i öl-dü san-ıyor-du-m.
you-ACC die-PST believe-PROG-PST-1SG
 I believed you to have died.

(23) 일치 직접 보어절

Sen-i öl-dü-n san-ıyor-du-m.
you-ACC die-PST-2SG believe-PROG-PST-1SG (Brendemoen and Csató 1986)

하지만 방언 B의 경우 (22)와 (23)의 구조 모두를 허용한다. 즉 명사구 이동과 복사 인상을 모두 인정한다. 복사인상의 경우 역시 연쇄의 꼬리는 주어 인상 구문에서와 같이 pro로써 분석된다.

(24) **Sen-i** [[pro_i öl-dü-n] san-ıyor-du-m]

이렇게 본다면 터키어에서는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 격표시 구문의 경우 모두 같은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방언 A의 경우는 명사구 이동만을 허용하고 방언 B의 경우는 비정형절(불일치 직접 보어절)에서는 명사구 이동이 가능하고 정형절(일치 직접 보어절)에서는 복사 인상이 허용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의 전제는 터키어도 영어에서와 같이 이 구문에서 내포절의 주어가 모문의 목적어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25)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a. **Biz_i** **birbirmiz-i_i** [[pro_i viski iç-ti-k] san-ıyor-uz]
 we-NOM_i **each other-ACC_i** whiskey drink-PST-1PL believe-PROG-1PL
 b. ***Biz_i** [[**birbirmiz** viski iç-ti-k] san-ıyor-uz]
 we-NOM_i **each other-NOM_i** whiskey drink-PST-1PL believe-PROG-1PL

3.3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의 경우는 주어 인상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형절에서만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이 나타난다고 본다. (cf. 우순조(1995), Yoon(2007))

- (26) a. 철수가 영화를 [CP e.c. 예쁘다고] 생각한다.
 b. 철수가 [CP 영화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어떻게 영화가 모문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냐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내포절의 공범주(e.c.)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별 논의가 없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Yoon(1996)에서는 이 공범주가 pro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27) a. %영화는 철수를_i [그가_i 천재였다고] 믿는다.
 b. 영화는 철수를_i [pro_i 천재였다고] 믿는다.

(27a)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절의 공범주가 외현적인 대명사로 문자화될 수도 있지만 문법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비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27b)에서 볼 수 있듯이 내현적인 대명사가 그 자리에 놓이면 완벽한 정문이 된다.

터키어의 주어 인상 구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공범주가 명사구 흔적이라면 명사구 흔적은 정형절의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가 없다. 통상적으로 이 자리는 격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즉 명사구 흔적은 격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명사구 흔적은 상정될 수가 없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PRO가 상정될 수도 없다. 또한 결정적으로 PRO는 이동에 의해 생겨나는 요소가 아니다. 만약 pro가 상정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pro는 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주어-목적어 인상이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우리의 분석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

- (28) a. 철수가 순희를 바보처럼 천재라고 생각한다.
 b. *철수가 순희가 바보처럼 천재라고 생각한다.

‘바보처럼’이 모문에 속하는 부사인데 이 부사의 왼쪽에 있는 ‘순희를’은 정문이 된다는 것은 모문으로 내포절의 주어가 이동하여 모문의 동사로부터 격을 인허받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순희가’는 비문이 되는 것은 내포절에서 ‘순희’가 주격을 인허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문의 요소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 Kim(2003), Tanaka(2002)). 지금까지 3장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

	정형절에서 명사구이동	정형절에서 복사인상	비정형절 (명사구이동/ 복사인상)
영어	불가능	불가능	가능/불가능
터키어	불가능	불가능/가능	가능/불가능
한국어	불가능	가능	해당 없음

4. 복사 인상 분석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모색

지금까지 우리는 터키어와 한국어에서의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의 이동을 복사 인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연쇄 조건의 문제와 pro 설정의 문제이다. 먼저 연쇄 조건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연쇄 조건은 다음과 같다(Chomsky, 1986:137)

(29) 연쇄 조건

$C=(A_1, \dots, A_n)$ 이 최대 연쇄라면 A_1 은 고유의 격 표시 위치이고 A_n 은 고유의 의미역 위치이다.

복사 인상 분석에서는 이러한 연쇄 조건을 어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사 인상 분석에서는 머리에 해당하는 요소가 격을 갖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꼬리에 해당하는 요소가 의미역뿐만 아니라 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연쇄 조건을 어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Yoon(1996:138)은 다음과 같이 수정 연쇄 조건(Revised Chain Condition)을 제시한다.

(30) C의 각 구성원이 같은 지표를 지니고 (i)과 (ii)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대 수열이라면 $C=(A_1, \dots, A_n)$ 는 논항-연쇄이다.

(i) A_n 이 고유 의미역을 지닌다.

(ii) $1 \leq i \leq n$, A_i 에 대해 A_i 의 격은 고유 격 인허자⁸⁾에 의해 결정된다.

(30)에서 (i)는 (29)의 연쇄조건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ii)는 고유 격 지배자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격이 인허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29)의 조건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따라 격은 다음과 같이 인허될 수 있다(Yoon(1996:139)).

(31) a. $\{ \dots .a. \dots .b. \dots \}$

$C(x) \quad C(y)$

b. $\{ \dots .a. \dots .b. \dots \}$

$C(x)C(y)$ (다른 격 인허자)

c. $\{ a \}$

$C(x)C(y)$ (다른 격 인허자)

d. $\{ \dots .a. \dots .b. \dots \}$

$C(x)C(y)$ (같은 격 인허자)

e. $\{ a \}$

$C(x)C(y)$ (같은 격 인허자)

8) Case Governor를 격 지배자라고 하지 않고 격 인허자라고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지배라는 용어가 지배-결속 이론 하에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31a)는 두 개의 다른 격 인허자가 한 연쇄에 각각 격을 인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Yoon(1996)에 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수정 연쇄 조건이고 연쇄 조건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⁹⁾

이러한 수정 연쇄 조건을 받아들이면, 한국어에서의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 격 표시 구문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32) a. [할아버지께서 [[_{CP} e.c. 노인정에 가신]것] 같다]
b. 철수가 영화를 [_{CP} e.c. 예쁘다고] 생각한다.

(32a)는 한국어에서의 주어 인상 구문이고 (32b)는 예외적 격 표시 구문이다. 물론 (32a)에서 공범주 e.c.는 pro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구문에서도 격을 두 개를 허용하는 연쇄를 지니게 된다. 즉 내포절의 시제소가 인허하는 주격과 모문의 시제소가 인허하는 주격을 지니게 된다. 즉 수정 연쇄 조건 하에서 이러한 사항이 정확하게 예측된다. (31a)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32b)도 (32a)처럼 내포절의 시제소와 모문의 동사에 의해 각각 주격과 대격이 인허된다.

이제 pro 설정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보기로 하자. 이동을 할 때 흔적 대신 대명사를 설정하는 것은 A'-연쇄에서 사용된 재현대명사 책략(resumptive pronoun strategy)과 거의 흡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 외현적인 재현대명사

- a.*This is the painting that everyone wonders whether **t** will be for sale.
b.?This is the painting that everyone wonders whether **it** will be for sale

(34) 내현적인 재현대명사

- a. ecco la ragazza [che mi domano chi crede [che **pro** possa VP]
this is the girl who I wonder who thinks that she may VP
이탈리아어 (Chomsky, 1981, Bouchard 1983)
b. 이 사람은 **pro** 어제 영화를 보았었는지를 모두들 궁금해 하는 사람이다.

(33)은 영어에서의 예인데 흔적이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하지만 외현적인 대명사 it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그 문법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4)는 이러한 현상이 이탈리아어에서는 내현적인 대명사 pro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이 자리에 흔적이 나타나면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게 되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영어와 마찬가지로 대명사가 이 자리에 와서 문법성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이탈리아어는 pro-탈락 언어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A-이동에서도 발견된다.

(35) 외현적 복사 인상

9) Yoon(1996:139)에서 연쇄 조건으로도 (31d,e)가 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고 (31b,c)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31a)의 허용 여부가 이 두 연쇄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다.

Jan sanble li pati

John seems he leaves 아이티 크레올 (Vivian Depreze, 1992)

(36) 내현적 복사인상

- a. **Biz_i** san-a [_{CP} **pro_i** sūt iç-ti-k] gibi görün-dü-k
we-NOM you-DAT milk drink-PST-1PL like apper-PST-1PL
'We appeared to you to have drunk milk' 터키어(Mulder 1976)
- b. **할아버지께서** [[_{CP} **pro** 노인정에 가신]것] 같으시다]

(35)는 Jan이 내포절의 주어에서 모문의 주어로 이동하고 난 후 외현적인 대명사 he가 연쇄의 꼬리에 나타난 경우의 예이고 (36)은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경우의 예이다. 이러한 문장에서는 (35)와는 달리 연쇄의 꼬리에 내현적인 대명사 pro가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재현대명사 책략은 A'-이동에서뿐만 아니라 A-이동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책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영어, 터키어, 그리고 한국어에서의 주어 인상 구문과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영어에서의 주어 인상은 비정형절에서는 가능하고 정형절에서는 불가능하다. 터키어에서는 방언 A의 경우에는 영어와 같은 속성을 나타내었고 방언 B에서는 주어 인상이 비정형절뿐만 아니라 정형절에서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명사구는 이동을 할 때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비정형절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P-흔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형절에서는 이동하는 요소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 요소는 격을 인허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NP-흔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Moore(1998)는 이 요소를 pro로 분석하는 복사 인상을 채택하는데, 이 분석 하에서 A-연쇄의 꼬리는 pro가 된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터키어와는 달리 주어 인상 구문에 비정형절이 없기 때문에 영어와 터키어의 비정형절에서 볼 수 있는 A-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형절에서는 주어가 인상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경우와 인상된다고 보는 경우로 나뉘었다. 인상된다고 보는 경우는 터키어의 방언 B의 경우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정형절에서 주어가 이동한다는 것은 격이 있는 자리에서 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NP-흔적이 남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자리는 pro로 설정하는 것이 옳은 설정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주어 인상 구문에서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예외적인 격 표시 구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주어 인상 구문과 다른 점은 보어절의 주어가 모문의 주어 위치로 이동하는 것과는 달리 보어절의 주어가 모문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연쇄의 머리어는 격을 꼬리는 의미역 인허 받는 위치라는 연쇄 조건을 위배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oon(1998)의 수정 연쇄 조건을 받아들인다. 이 조건에 의해 연쇄의 꼬리도 의미역뿐만 아니라 격 위치가 되어 우리의 분석에서 발생하는 연쇄의 문제를 해결한다.

또 다른 문제는 A'-이동에서 사용되는 재현대명사 책략에 관한 문제인데 A-이동에서도 이 책략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범언어적으로 발견되는 실례로 통해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동욱. 2000. '한국어 추측표현의 의미차이에 관한 연구 - 'ㄴ' 것 같다', 'ㄴ' 듯 하다'와 'ㄴ' 가 보다', 'ㄴ' 모양이다'의 의미차이를 중심으로'', 국어학 35, 171-197.
- 서정목. 2000. 변형과 제약. 서울: 태학사.
- 우순조. 1995. '내포문과 평가구문,' 국어학 26, 59-98.
- 임홍빈. 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 331-384.
- Brendemoen, Bernt and Eva A. Castó. 1986. 'The Head of S in Turkish: A Comparative Approach to Turkish Syntax', In Ayan Aksu-Koç and Eser Erguvanh-Taylan eds., *Proceedings of the Turkish Linguistics Conference*, 85-100, Boğaziçi University Publication, Istanbul.
- Chomsky, Noam. 1977. 'Conditions on Transformation,' In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 American Elsevier: New York.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ger, New York.
-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Deprez, Viviane. 1992. 'Raisig Construction in Haitian Creol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0, 191-232.
- George, Leland M. and Jacklin Kornfilt. 1981. 'Finiteness and Boundedness in Turkish', in *Binding and Filtering*, ed., Frank Heny, 105-127. Cambridge Mass.: MIT Press.
- Kim, Dong Suk and Yong Ha Kim. 2003. 'Korean ECM Consruction and the Theory of Phase,' *Studies in Modern Grammar* 33, 47-77.
- Lasnik, Howard. 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 615-633.
- Lasnik, Howard and Mamoru Saito. 1991. 'On the Subject of Infinitives,' *Papers from the 27th Regional Meeting of th Chicago Linguistic Society*, 324-343, Chicago Linguistic Society.
- Moore, John. 1998. 'Turkish Copy-raising and A-Chain Localit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149-189.
- Mulder, Jean. 1976. 'Raising in Turkish',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eds., Cathy Cogen et al. 298-307.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 Radford, Andrew.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aka, Hidekazu. 2002. 'Raising to Object out of CP,' *Linguistic Inquiry* 33, 637-652.
- Ura, Hiroyuki. 1994. 'Varieties of Raising and the Feature-based Bare Phrase Structure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 Department of Linguistics, MIT, Cambridge, Mass.

- Yoon James Hye-Suk. 1996. 'Ambiguity of Government and the Chain Condi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 14, 105-162.
- Yoon James Hye-Suk. 2007. 'Raising of Major Arguments in Korean and Japanes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5, 615-653.

은유의 치료적 활용

정성미(강원대학교)

<차례>

I. 서론

II. 본론

1. 상담, 치료에서의 은유의 활용
2. 촉매제로서의 은유와 치료도구로서의 은유
3. 은유의 치료 과정

III. 결론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은유가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의 사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살피는 데 있다. 은유(metaphor)는 그리스어 동사 metapherein에서 온 것으로 ‘meta’와 ‘phora’가 합성된 단어로, ‘meta’는 ‘초월(over, beyond)’의 뜻을, ‘phora’는 ‘옮김, 전이(carrying, transfer)’의 뜻을 나타낸다. 박영순(2000:10)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은유는 다른 것에 속하는 명칭을 어떤 사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수사학」에서는 ‘like’라는 단어를 삭제한 비교로서의 은유’를 언급하였다. 전통적으로 은유는 수사학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생성언어학에서도 은유는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생성언어학에서는 은유를 선택제약에 위배된 일탈표현으로 처리하였다.

인지언어학에서 레이코프 & 존슨(Lakoff & Johnson 1980)은 새로운 은유관을 제시하였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가 언어표현만이 아니라 개념이나 사고에 해당하는 더 넓은 개념의 것이며, 수사적 목적 외에 의사소통의 전략으로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박영순(2000:35)에서 은유는 가장 생산적인 언어기능이고 언어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은유표현의 구조는 ‘A는 B다’로 ‘-같이’, ‘-듯이’의 개입 없이 원관념(tenor)과 보조관념(vehicle)으로 구성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I. A. Richards(1936)의 용어로 은유는 보조관념(vehicle)과 원관념(tenor)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Goatly(1997:9)에서는 한 언어단위의 관습적인 지시 대상을 Vehicle(보조개념), 비관습적인 실체의 지시 대상(원관념, 목표개념)은 Topic, 유추에 의한 유사성은 Ground(바탕)라고 하였다. 이것을 각각 V-term, T-term, G-term으로 불렀다. 김동환 역(2009:31-34)에서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으로 구성되고, 근원영역은 물리적 영역이고 목표영역은 추상적 영역이라고 하였고,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에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개념적 대응인 사상¹⁾이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인 은유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조관념, 원관념 대신 각각 근원영역, 목표영역으로 할 것이다.

은유는 장식의 기능뿐 아니라, 은유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 세계관, 가치관을 반영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은유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와 정서를 드러낸다. 리콰르는 과학적, 논리적인 언어보다 비논리적인 언어표현인 은유에 의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언어적인 언어표현은 직선적이고 논리적인 언어표현보다 안정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내적인 상처(트라우마)를 지닌 사람들의 경우 표현의 어려움이 클 것을 고려한다면 은유 같은 간접표현은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표현하게 돕는다. 변학수(2007:13)에서는 문학치료의 핵심은 잃어버린 언어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말할 수 없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언어를 재생하는 것이 문학치료라고 하였다. 은유를 통하여 표현된 내담자의 사고, 가치관, 세계관은 내담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언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창조성에 의해 변화, 확대, 축소되는 하나의 유기체라면, 언어의 변화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박영순(2000:25)에서 은유는 매체를 이루는 계슈탈트가 주제를 이루는 계슈탈트에 작용해서 주제를 부분적으로 재구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잘못된 사고를 반영하는 은유는 새로운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을 재구성하여 왜곡된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은 은유가 치료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이다.

본론에서는 은유의 치료적 활용에 대해서 살펴기 위해 기존의 상담, 치료 현장에서 은유를 활용한 예를 소개하고 ‘죽은은유’와 ‘개인은유’를 활용한 치료의 방법과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II. 본론

인지언어학에서의 은유의 개념은 언어표현으로서의 은유와 언어표현을 넘어서는 개념, 사고로서의 은유로 구분할 수 있다. 은유는 언어표현으로서의 은유보다 큰 개념으로 김동환 역(2009:35)에서 언어적 용법에 기초하여 어떤 개념적 은유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에 도달하기 때문에 무엇이 은유적 언어표현으로 간주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개념, 사고로서의 은유를 유추하는 데 은유적 언어표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은유적 언어표현의 형식은 어휘에서부터 문장, 이야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상담, 치료 분야에서의 은유 활용은 언어표현으로서의 은유와 개념, 사고로서의 은유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상담, 치료에서의 은유의 활용

간접적 의사소통의 한 전략으로서 은유는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므로

1) 김동환 역(2009:31-34)

예 : 개념적 은유 사랑은 여행이다

사상 : 여행객 →연인

차량→사랑 관계

내담자의 사고, 가치관, 세계관을 진단하게 하고, 새로운 은유를 통해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은유는 내담자의 사고와 현실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²⁾.

상담에서 은유를 이용한 상담기법으로 밀턴 에릭슨(Milton H. Erickson)을 들 수 있다³⁾. 밀턴 에릭슨은 현대 심리치료 분야에 속한 상담가로 상담에 있어서 정형화된 이론적 틀을 거부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근거로 한 상담의 개별화를 강조하였다. 에릭슨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관계중심의 내담자에게 은유적 의사소통은 상담의 중심이다 이윤주·양정국(2007:91). 에릭슨은 내담자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의사소통이 간접적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한 저항을 피하기 위해 서라도 상담자의 접근이 은유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Rosen, 1982)⁴⁾. 또한 이윤주·양정국(2007:106)에서 은유는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의미 혁신을 통해 세상을 다시 그려 내고, 우리에게 실재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은유의 힘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은유 구조를 확인하고, 목표 설정을 돕는 은유, 감정패턴의 재구조화를 통한 은유, 관계 맥락에서의 은유를 파악하기도 하고, 은유의 활용구조를 만들기도 하는 등 상담기법을 구체화하였다. 에릭슨의 영향을 받아 은유를 상담으로 활용한 또 다른 상담으로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도 있다.

그 이외의 치료분야인 이야기치료나 미술치료, 가족치료 등에서도 은유를 활용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촉매제로서의 은유와 치료도구로서의 은유

은유적 언어표현의 단위는 어휘에서 문장,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박영순(2000:2)는 “은유의 정도성(degree of metaphoricity)”에 따라 그 의미나 화자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난해한 것도 있고, 매우 난해한 정도 등 정도성에 의해 은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김기수(1993)는 은유를 관용적 은유, 유사성-기초은유, 유사성-창조은유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관용적 은유인 죽은은유는 은유의 정도성이 누구나 그 의미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는 은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사학자들은 문학적 은유를 중요하게 다루고 관습화된 죽은은유에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죽은은유는 일상언어처럼 사용되는 은유로 더 이상 은유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은은유라고 하였다. 하지만 박영순(2000:39)에서는 죽은은유의 보편적 의미와 사용을 고려해서 ‘일반화된 은유’, ‘대중화된 은유’로 명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신체어로 구성된 감정 관용표현이다.

- (1) ㄱ. 눈에 쌍심지를 켜다, 눈에 불이 나다
- ㄴ. 가슴에서 불이 나다
- ㄷ. 얼굴이 뜨겁다
- ㄹ. 가슴이 따듯하다

(1ㄱ, ㄴ)은 [분노는 불]이라는 개념은유를 설정할 수 있다. 각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신체

2) 은유는 성인(聖人)들의 의사소통 방법으로서도 많이 활용이 됐는데, 성인들이 주는 깨달음도 이러한 은유적 의사소통에 기인한 면도 있다.

3) 이윤주·양정국(2007:13-). 밀턴 에릭슨 상담의 핵심 -은유와 최면. 학지사.

4) 이윤주·양정국(2007:84)에서 재인용.

어가 다를 뿐이다. (1ㄷ)은 [창피함은 뜨거움], (1ㄹ)은 [사랑은 따뜻함]이다. (1)의 예는 모두 [감정은 열]이라는 개념은유의 언어표현들이다. 여러 언어표현을 통해 [감정은 열]이라는 언어현상에 나타난 개념은유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표현에 있어 상처를 가진 내담자의 경우 감정에 대한 표현을 회피하는 경우 [감정은 열]을 이용해서 직접 열을 이용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제시하면 무의식에 있던 감정의 문제가 의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편적인 개념은유는 내담자의 무의식에 갇혀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들춰내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다음 내담자에게서 감정의 문제가 의식 수준으로 표현이 되면 개인은유로 문제의 감정을 표현하게 할 수도 있다. 은유에 의한 사고의 활성화는 새로운 은유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ㄱ)의 관습적이고 보편적인 분노는 개인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떠오를 수도 있다. 어떤 내담자는 분노를 불을 뿜는 용, 어떤 이는 가마솥에서 물이 펄펄 끓는 것일 수도 있다. 자기 분노의 은유를 찾게 하고 그 은유를 새로운 은유로 바꿔 주면 내담자의 감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가능성이 있다.

관용화된 은유는 그 언어표현 속에 개념은유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에 간접적으로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찾은 자기 분노의 은유를 새롭게 반응하게 해서 수정하게 하면 치료도구로서도 은유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2) ㄱ. 입 혹은 전, 아가리, 주둥이

ㄴ. 배, 중배, 복판배, 밑배, 가슴배, 가슴

ㄷ. 몸통

ㄹ. 목

ㅁ. 허리

ㅂ. 굽, 겹굽, 안굽, 통굽⁵⁾

(2)는 모두 그릇을 부분을 지칭하는 어휘들이다. (2)에는 [그릇은 신체]라는 개념은유가 전제된다. 용기장인과 사기장인들은 그릇을 신체로 인식하며 그릇의 부분 명칭을 신체어로 은유화하였다. 박영순(2000:232)에서 사물에 대한 이해를 몸을 지닌 인간과 물리적 세계와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그릇을 신체화해서 그 부분 명칭을 각각의 신체어로 대치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신체를 이용해서 그릇을 효율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의 예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체를 은유적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세계를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잘 이해하는 것은 상담이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자기 몸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때도 은유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자기 신체를 의인화하여 신체부위에 독립된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자기 신체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와의 화해, 자기와의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것 또한 은유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3) ㄱ. 마음을 비우다

ㄴ. 마음에 차다

5) 정성미(2009). “직업어에서의 은유적 의미에 대하여,” 강동엽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 미발행 논문. 위의 논문 1)의 예이다. 이 어휘의 예는 2007년, 2008년 두 차례의 민족생활어 조사(국립국어원, 한남대학교)에서 조사된 어휘이다.

- ㄷ. 마음이 더럽다
- ㄹ. 마음이 가라앉다
- ㅁ. 마음이 흔들리다
- ㅂ. 마음을 주고받다

(3ㄱ, ㄴ)에서는 [마음은 그릇]이라는 개념은유가 전제된 언어표현이고, (3ㄷ, ㅁ)은 [마음은 그릇]이라는 개념은유를 전제로 해서 활용이 가능한 표현들이다. 상담이나 치료에서는 마음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릇이라는 사물로 마음을 구체화해서 실물 그릇을 통해 그 마음을 조용히 관조하게 하거나 물에 띄워 흔들리거나 가라앉게 할 수도 있다.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생각, 감정, 기억, 상처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 (4) ㄱ. 아버지는 왕이다.
- 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토론장

(4) 은유구조의 문장이다. (4)에서 근원영역은 ‘왕, 전쟁터’이고, 목표영역은 ‘아버지, 토론’이다. 근원영역을 통해 목표영역을 이해하게 된다. ‘아버지는 집에서 가장 높은 분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은유는 그 부분을 강조(전경화)하는 기능이 있다. (4ㄴ) ‘토론은 전쟁이다’는 토론의 전쟁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은유구조를 갖춘 은유표현을 통해 내담자의 ‘아버지, 토론’이라는 대상에 다른 부분은 강조된 부분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있다. 가려진 부분을 부각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방법이 될 것이다. ‘토론은 파티다’라는 은유는 토론을 자기의견을 관철시키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다양한 정보와 관계를 나누는 파티와 같은 토론의 속성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 이 또한 은유를 활용한 치료이다. 또한 (4)와 같은 은유구조는 다의미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내담자가 불리한 경우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게 되어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

- (5) ㄱ.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 ㄴ. 곧은 나무가 쉬 꺾인다.
- ㄷ.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ㄹ.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ㅁ.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5)는 ‘나무’와 관련된 속담이다. (5)에서 ‘나무’는 식물인 ‘나무’가 아니다. (5)는 공통적으로 [나무=사람]이라는 개념은유를 전제로 한다. 미술치료에서는 ‘나무그림’을 자아그림으로 본다. 나무의 굽기나 나무의 잎, 주변에 그려진 다른 사물 등을 통해 진단을 하기도 한다. (5)와 같은 공통된 개념은유를 통해 시쓰기를 통해 자아의 문제를 접근하게 할 수 있다.

- (6) 나는 () 나무 ----- 객관적 자아정체감
- 나는 (장소) 서 있는 나무 ----- 주관적 자아정체감(구체적 조건 제시)
- 나는 (감정) 나무

나는 (시간)의 나무

나는 (상황)의 나무

(6)과 같이 [나무=나]를 통해 괄호 안에 조건을 주어 통제된 글쓰기를 통해 자기 표현을 하게 한다. 이는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표현들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유도하고 완성된 글을 통해 자기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게 한다.

(7) 왕따의 경우

광장에 서 있는 나무

광장에 서 있는 외로운 나무

사람들은 내 곁에 머무르기를 싫어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나는 다른 마당에 옮겨 심겨진 나무

3. 은유의 치료 과정

치료에서 은유를 만드는 과정으로 번의 PRO접근법이 있다. ‘PRO’는 ‘P는 문제(Problems), R은 자원(Resource), O은 결말(Outcome)’이다. G.콕스 & J. 프리드만의 과정은 여섯 단계로 좀 더 분화해서 ‘관계개발, 정보 수집, 자원 탐색과 활용, 아이디어 제안, 재구조화, 사고·감정·행동양식의 새로운 양식 촉진’으로 구성된다.

(8) 관습화된 개념은유를 활용한 활동하기(촉매) -개인 은유로 표현하기 - 개인은유에 반응하기 - 새로운 은유로 바꿔보기 -은유표현으로 표현하기(글쓰기, 정리하여 말하기)-피드백

(8)의 과정은 은유를 치료에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제안이다. 첫 번째 단계는 보편적인 개념은유를 활용해서 활동하기를 통해 내담자의 무의식에 연결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개인 은유를 통해 표현하기이다. 개인은유 표현하기는 상상이나, 말하기, 글쓰기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표현한 개인은유에 대해 반응하기이다. 내담자가 자기의 은유표현에 표현된 대상에 반응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수정을 통해 새로운 은유(긍정적 은유)로 바꿔보기이다. 다섯 번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글로 표현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이 네 단계를 통해 얻은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이고 마음에 각인시켜 장기기억으로 넘기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새로운 의미 부여 단계이다.

III. 결론

다양한 단위의 은유 표현이나 은유 표현 속의 개념은유를 통해 상담과 치료의 활용 가능

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은유는 상담과 치료 분야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언어표현에 보편적인 개념은유와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한 개념은유 등 은유에 대한 국어학 연구 결과는 상담과 치료에서 은유를 통한 구체적인 방법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담, 치료도구로 활용될 은유는 문화적, 발달적인 것 고려해서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기수(1993). 은유의 인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환 역(2009). 은유와 문화의 만남, Zoltan Kövecses.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옥동(1999). 은유와 환유. 민음사.
- 나익주 역(2003).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
- 노양진·나익주 역(2008).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G.레이코프·M존슨. 박이정.
- 박영순(2000). 한국어 은유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은유치료(2007). “은유치료-문학치료에 대한 은유적 접근-” 경북대석사학위논문.
- 이윤주·양정국(2007:72). 밀턴 에릭슨 상담의 핵심 -은유와 최면. 학지사.
- 이정화와 3 역(2003). 은유, ZOLTAN KOVECSSES. 한국문화사.
- 임지룡(2007). 인지의미론. 탐출판사.
- 전경숙 역(1996). 새 심리치료 개론, Joseph O' connor & John Seymour. 하나의학사.
- 정성미(2009). “직업어에서의 은유적 의미에 대하여,” 강동엽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 미발행 논문.
- 한국사회언어학회 역(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Nancy Bonvillain. 한국문화사.
- Saeed, John I.(1997). Semantics, Cambridge : Blackwell Pub.

空間概念語에 나타난 時間 隱喻

-‘앞’과 ‘뒤’를 中心으로-

高惠媛(중앙대학교)

<차례>

I. 緒論

II. 概念的 隱喻

2.1 隱喻에 대한 두 가지 觀點

2.2 概念的 隱喻의 定義와 特徵

III. 空間概念語의 時間的 隱喻

3.1 時間移動 隱喻

3.2 사람移動 隱喻

IV. 結論

1. 緒論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에서 時間概念이 空間概念을 통해 이해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Fillmore 1971, Clark 1973, Givón 1973, Traugott 1975, Lakoff 1993 등)(박정운 1998:85). 그리고 국어에서도 時間語와 空間語의 相關性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¹⁾ 시간개념들이 공간의 개념을 통해 표현되고 이해되는 예들은 쉽게 볼 수 있다.

(1) ㄱ. 철수 뒤에 영화가 있다.

ㄴ. 철수가 온 뒤에 영화가 왔다.

(2) ㄱ. 이 물은 산에서 와서 강으로 간다.

ㄴ.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

(1)-(2)에서 밑줄 친 요소들이 ㄱ문장에서는 空間概念을 나타내고 있는데, ㄴ문장에서는 時間의 概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時空의 관계는 어휘뿐만 아니라 推論的 關係에서도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한다.²⁾ 이를 통해 보건데 이 두 개념 사이에는 체계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런데 아래의 문장에서 보면,

1) 空間語와 時間語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高永根(1980), 임지룡(1984), 朴京賢(1986), 김선희(1987), 민현식(1990, 1991), 전수태(1997), 박정운(1998)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2) III장의 예문(9)-(12), (14)-(16)참조.

(3) 십년 {앞/뒤/후}를 내다보다.

空間上으로는 반대의 개념인 ‘앞’과 ‘뒤’가 時間上으로는 미래라는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 사이에 일정한 체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시간의 개념적 은유를 통해 탐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과 뒤가 각각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일정한 인지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概念的 隱喻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 空間概念語의 時間的 隱喻에 대한 체계와 특성을 고찰한 후 4장에서 요약정리한다.

2. 概念的 隱喻

隱喻에 대한 시각은 Lakoff & Johnson(1980)의 ‘삶으로서 隱喻(Metaphors We Live By)’의 출간을 기점으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 아래에서는 隱喻에 대한 傳統的 見解와 새로운 見解를 대비하고, 概念的 隱喻의 基本 概念과 특징을 記述하기로 한다.

2.1 隱喻에 대한 두 觀點

傳統的으로 隱喻는 아리스토텔레스³⁾ 이래로 ‘正常的인’ 언어사용에서 逸脫된 장식적 요소로서 문학과 修辭學의 주요 관심사였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은유적 표현에서 ‘호수’라는 단어가 그것의 文字的인 의미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을 隱喻라고 하였다. 그리고 은유의 작용은 은유적 표현(예: 호수)과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예: 마음의 상태) 사이의 類似性에 근거한 類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은유란 斬新하고 詩的인 言語的 表現으로 그 속에 사용된 단어가 그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유사한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Lakoff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언어학의 한 분파에서는 ‘概念的 隱喻(conceptual metaphor)’라고 하는, 기존과는 다른 관점의 은유 체계가 제기되었다. Lakoff & Johnson(1980:3)에서는 전통적 이론과 달리 은유는 言語뿐만 아니라 思考와 行動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삶에 널리 퍼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日常的 概念體系는 근본적으로 隱喻的 本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上述한 은유의 전통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의 주요 차이점을 <표1>과 같이 구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Kövecses, 2003: x-xi).

傳統 理論에서의 隱喻	Lakoff & Johnson(1980)에서의 隱喻
(1) 言語的 現象	(1) 概念的 屬性

3) 아리스토텔레스의 ‘詩學’에서는 명사를 ‘(1) 사물에 붙이는 일상어, (2) 외래어, (3) 은유, (4) 수식어, (5) 新語, (6) 延長語, (7) 短縮語, (8) 變形語’로 나누고, ‘은유는 한 사물에서 다른 사물의 이름을 轉移하는 것인데, 그 전환은 類에서 種으로, 혹은 종에서 유로, 혹은 종에서 종으로, 또는 類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김재홍 옮김, 1998: 114-115).

(2) 美的·修辭的 목적을 위한 수단 (3) 비교되고 동일시되는 개체와의 類似性에 기초 (4) 특별한 능력을 지녀야 사용할 수 있음 (5) 比喻表現이기 때문에 은유 없이도 살 수 있음	(2) 예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 (3) 유사성에 기초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평범한 사람이 별다른 능력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음 (5) 裝飾이 아닌 인간 思考와 推論 過程에 불가피한 과정
---	---

<표1> 은유의 두 가지 관점

결국 새로운 개념의 은유이론에서는 참신하고 시적인 표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은유 연구들과 달리 日常의 言語生活에서 사용되는 慣習化된 隱喻的 表現들을 주된 研究 對象으로 하여 이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해 은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은유의 기제와 특징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해보자.

2.2 概念的 隱喻의 定義와 特徵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은유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해왔었는데, 개념적 은유이론에서는 은유를 본질적으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思考나 概念 차원의 問題’로 다루고 있다. 2.2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정리한 Lakoff(1980, 1993 등)를 중심으로 인지언어학에서 제시하는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새로운 隱喻研究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概念的 隱喻의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즉 은유의 본질은 사고에 있으며 은유는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을 통해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認知的 裝置라는 것을 [人生은 旅行]이라고 하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상 언어에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다음과 같은 혹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 (4) 가. 그들은 출발부터가 우리와 다르다.
 나. 그는 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였다.
 다. 어차피 인생이란 홀로 걸어가야 하는 거야.
 라. 선생님께서 학생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그 역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처지이다.
 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일상의 慣用化된 표현에서 인생의 개념들이 여행의 개념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體驗을 통해서 여행은 출발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이고, 이동을 하다보면 장애물이나 이정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안내자나 동반자도 만날 수 있다는 여행의 개념구조를 도식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정리된 여행이라는 概念 構造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抽象的 概念을 構造化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인생과 여행의 相應關係들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생(목표영역)	여행(근원영역)
삶을 살아가는 주체	여행자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목표들	여행의 목적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길
삶에서 나타나는 난관	장애물
인생의 조언자	안내자
인생에서의 선택점	갈림길
삶의 진행 정도를 알리는 것들	이정표

즉 은유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영역들이 관여하고 그 중 하나는 이해하고자 하는 概念領域(여기서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理解의 觸媒 役割을 하는 概念領域(여기서는 여행)이다. 그리고 전자를 ‘目標領域(target domain)’이라고 하고 후자는 ‘根源領域(source domai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은유는 목표영역과 근원영역 사이의 相應關係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개념 체계 속에 인생이라는 개념 영역과 여행이라는 개념 영역 사이에 고정된 상응관계들이 구축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이다.⁴⁾

이러한 [인생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고전적 은유와는 다른 새로운 은유만의 일반적인 사실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4)에 나타난 은유적 표현들은 별개의 은유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여행]이라는 概念的 隱喩의 言語的 具顯들이다. 둘째, (4)에 나타난 ‘막다른 골목길’, ‘출발하다’ 등에서 나타나는 多義語 현상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다의어를 형성하기 보다는 [인생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에 근거한 의미 확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에서는 여행의 개념구조를 통해서 인생의 개념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에서 적용되는 推論의 類型들이 인생의 개념영역에도 유지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하게 살펴보았던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관용화된 은유표현들을 전통적으로 ‘죽은 은유’라고 했다. 그러나 慣用화된 개념적 은유는 死隱喩라기보다는 인간의 인지작용을 추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은유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관용화된 은유표현들 속에 나타난 개념적 시간은유의 양상을 찾아보도록 하자.

3. 空間 概念語의 時間 隱喩

본장에서는 국어에서 공간개념을 통해 시간 개념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가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어에서 공간개념을 통한 시간은유는 크게 水平的 時間隱喩와 垂直的 時間隱喩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前後左右’의 개념어들이 후자는 ‘上下’의 개념어들이 주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前後’ 개념을 통해 구조화되는 수평적 시간은유를 중심으로 살펴

4) 이외에도 개념적 은유의 예를 좀더 보면 다음과 같다(Ungerer & Schmid 1996:121 참조).

목표 영역	화	토론	토론	의사 소통	죽음	일생	사랑	이론	시간	이해
근원 영역	위험한 동물	여행	전쟁	보내기	떠남	하루	전쟁	건물	돈	보기

보겠다.

사람이 장소를 이동할 때 그 움직이는 과정을 외부 사물과 관련지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정지해 있는 외부 사물을 사람이 통과하여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사람이 버스 등을 타고 움직일 때 사람은 고정되어 있고 외부 사물이 사람을 통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김선희, 1987:6). 이와 같은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시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

fillmore(1971, 1993)는 시간과 인간을 관련지어 움직임의 은유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첫째 인간을 고정시켜 놓고 시간이 인간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둘째 시간을 정지한 것으로 생각하여 정지된 시간을 인간이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에서 착안하여 전자를 ‘시간이동은유’로 후자를 ‘사람이동은유’로 개념화하여 한국어의 공간개념어에 대입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3.1 時間移動 隱喩

시간이동은유의 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앞/뒤’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을 먼저 살펴보자.

- (5) ㄱ. 건물 {앞/뒤}를 살펴보다.
- ㄴ. 십년 {앞/뒤}(을)를 내다보아야 한다.
- ㄷ. 앞을 내다 보다.

(5ㄱ)에서 ‘앞/뒤’는 空間的으로 사용되는데 반하여 (5ㄴ)에서는 ‘앞/뒤’가 未來라는 時間을 나타낸다. 그리고 (5ㄷ)의 표현에서는 ‘앞’이 공간상 前方과 시간상 未來를 동시에 활성화해 주는데, 이것은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의미 확장이 일어남을 뜻한다.

그렇다면 공간을 나타내는 ‘앞/뒤’가 어떻게 (5ㄴ), (5ㄷ)처럼 時間의 의미로 전이될 수 있는가? Fillmore(1971)는 앞과 뒤를 결정짓는 기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非對稱的 構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非對稱的 構造 중에서 知覺器官 특히 눈이 있는 쪽이 앞이 되고 그 반대가 뒤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內在的으로 공이나 지하철처럼 對稱 構造를 가지고 있는 물건의 前後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Fillmore는 그 기준 중 하나가 ‘移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一定한 方向으로 움직일 때 먼저 到達하는 쪽이 앞이고 그 반대쪽이 뒤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의 경우 停車해 있을 때는 ‘앞/뒤’ 區分이 不可하지만, 일단 움직인다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먼저 도달하는 쪽이 앞이 되고 그 반대가 뒤가 된다.

時間이 앞과 뒤를 갖는다고 인식되는 것은 위와 같은 概念化 過程과 類似한 推論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앞과 뒤를 가질 수 있는 것은 時間이 物體로 概念化되어야만 可能할 것이다. 그런데 물체로 개념화된 시간은 인간과 같이 어느 한쪽에 지각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비대칭적인 것으로 概念化된다는 證據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물체가 ‘앞/뒤’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상술한 지하철의 예처럼 一定한 方向으로 움직일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로 개념화됨으로써 앞과 뒤라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 (6) ㄱ. 시간이 流水같다.
 ㄴ. 시간이 빨리 흐른다.
 ㄷ.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

등과 같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관용화된 표현들을 보면 시간이 움직이는 물체로 개념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결정짓게 하는 화자의 위치에 대해 시간이동은유 차원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먼저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7) 철수가 노래한 뒤에 영희가 노래할 것이다.
 (8) 철수가 노래하기 전에 영희가 노래했다.

(7)에는 미래형 어미가, (8)에는 과거형 어미가 사용되었다. 전자는 철수/영희가 노래한 사건이 모두 미래일 때((9)참조), 후자는 과거일 때((10)참조) 문제없이 사용되는 문장이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9), (10)과 같다.

- (9) <-----|-----|-----|-----
 앞 화자 철수 영희 뒤
 -과거---] 현재 [---미래-----

- (10) <-----|-----|-----|-----
 앞 영희 철수 화자 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철수가 노래한 사건이 과거이고 영희가 노래한 사건이 미래인 경우에는 ((11)참고) 영희가 철수보다 순서상으로 뒤(미래)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문(7)은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12)도 철수가 노래한 사건은 미래이고, 영희가 노래한 사건은 과거일 경우에도 예문(8)의 문장을 사용할 수 없다.

- (11) <-----|-----|-----|-----
 앞 철수 화자 영희 뒤
 ---과거-----] 현재 [--미래----

- (12) <-----|-----|-----|-----
 앞 영희 화자 철수 뒤
 -----과거-----] 현재 [--미래----

부연하자면 앞과 뒤에 의해 시간상 순서가 비교되는 두 사건이 하나는 과거이고 다른 하

나는 미래일 때는 (7)이나 (8)과 같은 문장은 성립되지 못한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앞/뒤’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위의 문장처럼 ‘앞/뒤 관계’로 비교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의 탐색을 위해 동일한 상황이 공간영역에서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유추하여 보자.

(13) 철수 앞에 영화가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14)와 (15)가 모두 가능하며, 이 도식은 (9)와 (10)과도 일치한다. 즉 (9), (10), (14), (15)처럼 화자가 앞뒤 관계 비교 대상인 영화와 철수 사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간영역에서와 동일하게 공간영역에서도 영화와 철수 간에 ‘앞/뒤 관계’를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다.

(14) 앞<----화자----영화----철수----뒤

(15) 앞<----영화----철수----화자----뒤

그러나 공간영역에서도 시간영역과 마찬가지로 영화는 화자 앞에 있고, 철수는 화자 뒤에 있을 때는 (13)의 문장을 나타낼 수는 없다.

(16) 앞 <----영화----화자----철수---뒤

위의 도식은 시간상 관계를 나타내는 (11)이나 (12)와 일치한다. 이럴 경우 시간 영역과 마찬가지로 공간 영역에서도 두 개체는 직접적으로 앞/뒤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시간영역과 공간영역에서 동일한 제약이 나타난 것은 현재를 나타내는 화자의 위치가 전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동은유에서는 화자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을 통해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時間移動隱喩에서는 움직이는 物體로 概念化된 時間이 뒤인 未來로부터 現在를 나타내는 話者를 거쳐 앞인 過去로 移動하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개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7) [시간이동은유]
<-----|-----시간
앞 화자 뒤
----과거-----] 현재 [--미래-----

3.2 사람移動 隱喩

공간을 통한 시간의 이해에 또 하나의 유형에는 사람이동은유가 있다. 이것은 fillmore(1971)에서 본 것처럼 話者が 固定된 時間을 따라서 移動하는 것으로 시간이 개념화되어 있다.

(18) ㄱ. 연말에 가서 봅시다.

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시점에 와 있다.

ㄷ. 지금까지 너를 믿어 왔다.

(18)과 같은 관용화된 표현을 보면 시간인 ‘연말’이나 ‘이 시점’이나 ‘지금’은 고정되어 있고, 이러한 고정된 시간들을 향해 화자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시간은 화자가 이동하는 경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현 위치는 현재를 나타내고 지나온 길을 과거이고, 앞으로 갈 길은 미래를 나타낸다. 이것을 도식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19) [사람이동 은유]

사람 -----|----->
뒤 화자 앞
시간 -----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시간이동은유와 사람이동은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은유를 통해 서론에서 제시한 ‘십년 {앞/뒤}를 내다보다.’ 표현을 살펴보자. ‘앞’과 ‘뒤’는 空間上으로는 反對의 개념이지만, 時間上으로는 모두 ‘未來’를 나타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아 공간어와 시간어에 일관성이 결여된 모순된 체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문장에서 ‘앞’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동은유에 근거한 것이었고, ‘뒤’ 또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동은유에 근거한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寫像(mapping)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IV. 結論

본고에서는 국어에서 時間이란 抽象的인 개념이 空間이란 具體的인 개념을 통해서 隱喻적으로 概念化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틀인 인지언어학에서 198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은유에 대한 이론을 고전적 이론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에서 고찰한 개념적 은유이론을 토대로 하여, 국어의 시간은유 중 수평적 은유를 시간이동은유와 사람이동은유로 분류하여 각각 그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간은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십년 {앞/뒤}를 내다보다.’에서 공간영역에서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 ‘앞/뒤’가 시간영역에서는 동일한 ‘미래’를 나타내는 원리를 설명하였다. 즉 이 문장에서 앞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동은유에 근거한 것이고, 뒤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시간이동은유에 근거함을 밝혔다.

<참고문헌>

- 高永根(1980), 국어 進行相 형태의 處所論의 해석, 語學研究 16-1,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 閔賢植(1990), 時間語와 空間語의 相關性(I), 國語學 20, 國語學會.
- 김선희(1987), 현대국어의 시간어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남기심(1995), 어휘 의미와 문법, 東方學志 87,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 朴景賢(1986), 現代國語 空間概念語의 意味 研究, 명지대 박사학위 논문.
- 박영순(2001), 한국어은유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정운(1998),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 언어와 언어학 제23집, 한국외대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 배도용(2001),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 成煥甲(1990), 國語史의 對照的 樣相(下)人文學研究 17, 中央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_____(1991), 意味의 縮小와 擴大, 현산 김종훈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집문당.
- 신은경(2002), 국어 시·공간 표현의 통시적 연구, 어문논집 45, 민족어문학회.
- 심재기(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이기동 편저(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 이수련(2001), 한국어와 인지, 박이정.
- 이정식(2002), 국어 다의 발생의 양상과 원인,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이종렬(1998), “가다”의 다의성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어의미학3, 한국어의미학회.
- 임지룡(1984), 공간 감각어의 의미 특성, 배달말9.
- _____(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혜원(2004),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 전수태(1997), 시간 개념어의 반의 연구,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
- Aristotle(1940), *Aristotle's Art of Poetry with and introduction and explanation* by W. Hamilton Fyfe. 김재홍 옮김(1998), ‘시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 Fillmore, Charles J(1971), *Santa Cruz lecture on dexis*,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Fillmore, Charles J(1993), *Elements of Space Semantics*, M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Johnson, M(1987), *The Body in the Mind :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이기우 옮김(1992), 마음 속의 몸: 의미·상상력·이성의 신체적 기초, 한국문화사)
- Kövecses, Zoltan(2002), *Metaphor : A Practical Introduction*.(이정화 외 옮김(2003), 은유, 한국문화사)
- Lakoff, G(1987),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이기우 옮김(1994), 인지의미론 : 언어에서 본 인간의 마음, 한국문화사.)
- Lakoff, G(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Metaphor and Thought*(2nd edition), ed. by A. Orto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eorgd and Mark Johnson(1980), *Metaphor,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 나익주 옮김(1987),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Ungerer, F& H-J. Schmid(1996/200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 Longman.(임지룡·김동환 옮김(1998), 인지언어학 개론, 태학사.)

<국문학>

「한」 연작과 「폐촌」에 나타난

미적 전통의 문법*

-196,70년대 한승원 소설의 토속성-

김주현(동의대)

<차례>

1. 4.19 바깥의 「목선」
2. 뱀강쉬와 미륵레-속화된 장수들
3. 묘사되는 한-미학화의 새로운 공식들
4. 신생의 의미

1. 4.19 바깥의 「목선」

1960년대는 신세대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기였다. 60년대 후반에 등단한 작가들은 전후세대와는 다른 감각으로 신세대 문학을 알렸는데, 이에 대해 평론가 김현은 그 자신을 포함한 신세대 작가를 묶어 '4.19세대'로 칭한 바 있다. 이 명명은 당시 '한글 논쟁', '한국적인 것' 논쟁이 세대 간 논쟁의 성격을 띠던 상황에서 문단의 세대 교체론을 주도했던 신진 평론가가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구사했던 측면이 있었다.¹⁾ 그러나 이로써 많은 신세대 문인들은 기성 문인들과 구분되는 새로운 감성을 보유한 존재가 되었다. 김승옥, 이청준, 박태순, 서정인 등이 그 수혜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현의 이러한 명명은 이후 60년대 문학 연구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60년대 문학을 연구할 때는 언제나 이들이 중심에 있었다. 이른바 4.19나 도시적 감성 외에도 60년대의 근대성을 문학사회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한승원은 표면상 이들의 정반대쪽에 위치해 있다. 등단작 「목선」(1968)은 70년대를 눈앞에 둔 신인의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근대적인 세계와 친근하다. 바닷가 벽촌에서 벌어지는 「목선」의 인물 구도나 배경은 60년대에 뒤늦게 각광받은 김유정의 작품

* 이 논문은 2007년 중앙대학교의 신진우수연구자 지원을 받아 연구됨.

1) 1960년대 문단에서 세대교체론은 '한국적인 것'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상계』 좌담에서 촉발된 한국적인 것 논쟁은 미래지향적인 전통 논의로 이어졌고 여기에 김현, 구중서, 등 신진 비평가들이 가담하면서 한국적인 것은 대미 대일 주체성에 대한 태도로 전이되어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그 와중에 한글 전용 문제가 불거져 격렬한 찬반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김현, 유종호 등이 한글 전용에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4.19 혁명의 시민 사회적인 이념과 부합한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들은 4.19세대와 함께 '한글세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현, 「1960년대 한국적인 것의 담론지형과 신세대의식」, 상허학보 17집, 상허학회, 2006 참고.

과 도 닮아 있어서, 그가 천승세와 더불어 김유정의 문학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추정을 낳는다. 이는 「목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점이지만 실은 60년대 문단에서 김유정 자체도 간단하게 언급될 존재가 아니다. 60년대 문단에서 김유정은 기성세대와 신세대 양측으로부터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었고, 따라서 김유정 특유의 해학이나 골계 역시 양 진영에서 순수/저항의 기교로 동시에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선」이 홀아비 석주의 화법과 내면 묘사를 통해 창출하는 골계미는 분명 ‘김유정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김유정에 비해 「목선」의 현실인식은 매우 미약하여²⁾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 부족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또 그것은 60년대에 한승원과 비슷하게 토속적 세계에 몰두했던 다른 신인 작가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한 작가의 등단작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한승원은 「목선」 이후 70년대 내내 바닷가 마을의 토속적 세계에 매달렸으므로 그다지 작품 경향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목선」에서 「목선」 이후를 연속선에 놓고 살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당대 문단에서 「목선」의 동지가 없지도 않다. 넓게 보아 60년대에 후반에 등단했으나 앞에서 말한 4.19세대라는 용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작가와 작품들 중 방영웅은 토속성을 전면에 내세워 혜성처럼 등장한 작가이다. 평가가 선명하게 갈렸지만 그의 「분례기」는 전에 없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청준은 어땠던가. 대표적인 4.19세대 작가로서 지적이고 실험적인 문제작을 쏟아냈던 이청준의 60년대 작품 중에 「줄」, 「과녁」, 「매잡이」는 전근대적인 민속을 소재로 김동리적인 미의식이 신세대 문학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³⁾ 이밖에 「열명길」을 위시한 박상룡의 작업 역시 4.19세대의 도시적 감수성과 완전히 다른 전근대적인 세계-토속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50년대부터 문단에서 전통론의 한 축을 이루었던 문협 중심의 전통적 미학주의가 신세대 문인들에게로 이어지면서 다양하게 심화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흥미롭게도 이러한 시도들은 당대의 저항적 민족문학론과 특별히 대립적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백낙청의 적극적인 「분례기」 옹호나 이청준, 박상룡에 대한 김현의 선호는 미학적 자율성이 저항적 민족문학에 못지않게 6, 70년대 문학을 구성했던 인자로서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바, 70년대에 들어서도 거듭 언급되는 김유정의 문학⁴⁾은 양자를 통합한 모범으로서 60년대부터 일찌감치 주목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간단하게 말하면, 김유정의 사례는 60년대 신세대 문인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사회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작품을 창작해야 할 시대적 요구 앞에 직면했음을 일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은 4.19 바깥에 「목선」의 자리를 설정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다. 한승원 소설의 미학은 6,70년대의 리얼리즘 서사 미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농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탈역사적이지도 않다. 이 글의 목적은 「목선」 이후 한승원의 소설이 그

2) 영악한 과부 양산택과 어리숙한 홀아비 석주가 빚어내는 바닷가 풍경은 60년대에 각광받은 김유정의 문학을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다. 작달막한 몸집에 “사십대에 들어선 여자치곤 매끈하고 옛날 얼굴”의 양산택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석주를 구슬린다. 석주는 양산택의 제안에 혹해 겨우내 김채취를 해주고도 배신당할 상황에 처하자 완력을 쓰고도 결과적으로 패하는 등 인물 관계가 「동백꽃」과 흡사하다. 그러나 석주가 홀아비가 된 사정은 시대적 배경이 생략된 채, 아내 복님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친 것으로만 요약되어 있다. 1960년대 문단에서 김유정의 문학이 재조명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주현, 「1960년대 문학의 토속성 읽기 I - 「분례기」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동남어문학회, 2008.5 참고.

3) 김주현, 「1960년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민속의 미의식 참고-줄, 과녁, 매잡이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1집, 상허학회, 2007 참고.

4) 대표적으로 『문학사상』이 1974년 7월호에 마련한 김유정 특집 참고.

의 문학적 스승들과 60년대가 부과한 ‘역사의식’이라는 이중의 압력으로부터 나온 결과임을 밝히는 데 있다. 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지식인들에 의해 합의된 ‘역사의식’은 포괄적인 의미를 띠지만 4.19의 선물로서 역사적 관점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역사의식은 지식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최소 공배수로서 어떤 세대적 등질감각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했다.⁵⁾ 한승원의 소설이 개인적인 삶의 과정을 그 개인성의 바탕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와 역사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예리함이 있다⁶⁾고 본 견해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다. 「목선」 이후 한승원은 스승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찾아 나서게 된다. 70년대의 대표작 한 시리즈와 「폐촌」은 미적 전통에 대한 한승원의 방식이 하나의 문법으로 정리되는 작품들이다.

2. 뱀강쉬와 미륵레-속화된 장수들

아무도 지적한 바 없지만 「폐촌」(1974)은 첫눈에 김동리의 황토기를 연상시킨다. 물론 「황토기」가 김동리의 대표작이고, 서라벌 예대에서 그가 귀찮을 정도로 습작품을 들고 스승을 찾았다는 고백⁷⁾이 이에 대한 근거일 수는 없다. 쌍룡 전설이 내려오는 경주 인근 마을과 폐촌이 된 하룻머릿골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공동체인 점에서 닮아 있기는 하나, 그 자체는 전쟁 이후에 나온 술한 작품들도 유사한 배경을 취하고 있기에 특별하지 않다. 그러나 도입부에서 하룻머릿골을 에워싼 봉우리 묘사가 황토골과 인물을 결합시킨 「황토기」의 구성과 흡사한 것은 사실이다.

금오산과 수리재에서 뱀쳐 내리는 두 산맥이다.

등성이를 벌거벗은채 이십리 삼십리씩을 하나는 서북 하나는 동북으로 뛰어내려와서는, 겨우 황토골이란 조그만 골짜기 하나를 낳은것 뿐으로, 거기서 그 앞을 흘러가는 내물을 바라보며, 동네 늙은이들의 입으로 전하는 상룡(傷龍), 혹은 쌍룡(雙龍)의 전설을 이룬 그 지리적 결구(地理的結構)는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다.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각시봉을, 찾아가 낳은 여인네의 젖무덤에 바야흐로 젖이 분기 시작하는 모양 같다고 하기도 하였고,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린 여자가 치마폭을 펴피짐하게 펼치고 앉아 오줌을 누고 있는 형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방봉을, 귀두 끝에 검은 사마귀붙어 있는 남근이 불끈 일어서 있는 형용이라고 하기도 하였고, 먹다 둔 썩떡같이생긴 거인이 각시봉을 향해 팔을 벌리고 금방 달려들려고 하는 형용이라고 하기도 하였다.⁹⁾

「황토기」에 비해 설명이 길지만 남쪽 봉우리의 생김새를 각시봉에, 동쪽 봉우리를 서방봉으로 기술하고 거기에 맞는 인물을 대응시키는 발상이 매우 유사하다. 더욱이 「폐촌」은 이 인물들을 날개 꺾인 불구로 설정함으로써 거듭 「황토기」의 영향을 드러낸다. 사실

5) ‘역사의식’은 60년대 신생 잡지들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용어이다. 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는 잡지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식과 민중의식 중 한쪽으로 강화되지만 그 내부에는 인간을 역사속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파악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있었다. 이는 4.19의 영향이었다. 김주현, 「1960년대 한국적인 것의 담론지형과 신세대의식」, 405-406쪽 참고.

6) 권영민, 「토속적 공간과 한의 세계」, 임철우 외, 『한승원 삶과 문학』, 문이당, 2000, 128쪽.

7) 「한승원 연보」, 위의 책, 63쪽.

8) 김동리, 「황토기」, 『황토기』, 선양사, 1947, 101쪽.

9) 한승원, 「폐촌」, 『앞산도 첩첩하고』, 창작과비평사, 1977, 6쪽. 이하 작품 인용은 쪽수만 명시.

「폐촌」의 주인공은 「황토기」의 주인공들과 닮아있다. 「황토기」의 득보와 역쇠가 친구 이면서도 서로 싸워 그 힘을 끝없이 소진하는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부여받았듯이 뱀강쇠와 미륵레도 그러하다.¹⁰⁾ 이들은 서로의 짝으로 맞추어진 듯 태어났으나 역사의 비극에 말려 원수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난 민중 영웅에 해당한다.¹¹⁾ 그런데 「황토기」와 달리 「폐촌」에서는 이러한 비극성이 뱀강쇠 설화 덕분에 중반부까지도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우선 뱀강쇠는 「황토기」의 인물들에 비해 매우 속화되어 있다. 욕척이 넘는 키에 살빛이 거무튀튀하고 털투성인 “우악스런 괴물” 뱀강쇠에게서 유일하게 인간다운 자취는 “둔하고 순한 맛이 있어 보이는” 눈 정도이다. 이렇듯 비상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외모에, 10살에 이미 성적으로 성숙한 점은 그를 더욱 속화시켜, 그의 육체와 정신은 전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요컨대 그는 불행하게도 너무 이른 시기에 성에 눈 뜬 미숙한 장사이다. 이러한 뱀강쇠에게 어울릴 여자로 역시 일찍부터 신체가 발달한 미륵레가 꼽혔으니, 동일하게 지형에 얽힌 설화의 구속을 받으면서 범인의 이해를 초월한 기인으로 그려지는 「황토기」의 장사 비하면 그는 아예 내면이 없는-도무지 장수답지 않은- 장사라고 할 수 있겠다.

내면이 없다는 것은 예사문제가 아니다. 득보와 역쇠의 싸움에는 비록 명시적이지 않아도 일제 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배후에 무겁게 깔려 있다. 「황토기」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토기」에는 일제 말기 피지배층의 의지가 다소간 폭력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그들의 장수다움을 입증하는 연쇄 작용을 한다. 반면 뱀강쇠의 장수다움은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 나날이 쇠퇴한다. 세 번째 여자가 도망친 후 삶의 의욕을 잃은 뱀강쇠의 ‘광태’는 절정에 이르러 그의 겁탈을 염려하는 마을사람들에 의해 추방될 상황에 처한다. 이렇게 홀아비가 되기까지의 사연은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의 성기에 관한 온갖 ‘카더라’식 소문을 동반하며 그를 성적인 인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전래 뱀강쇠 설화에 비해도 한참 모자라는 뱀강쇠 형상화를 다소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뱀강쇠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 인물로 회화화되어 있을까. 혹 그것은 다른 어떤 효과를 위해 과장되게 연출되지 않았는가. 본디 뱀강쇠 설화에서 강쇠와 웅녀는 기존 사회 구조에서 소외되어 유랑하는 인물¹²⁾이다. 또 강쇠는 웅녀보다 부정적 인물이지만 「폐촌」의 뱀강쇠보다 교활하고 문자를 쓰기도 하는 등 보기에 따라서는 의식 있는 건달로도

10) 한편, 득보와 역쇠를 지나치게 신비화하고 이들을 기꺼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서술 태도 때문에 「황토기」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열린 텍스트로서 「황토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일제 말기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를 터이나 여기서는 「황토기」에서 「폐촌」으로 장수 설화가 이어지면서 그 설화가 70년대에 맞게 변형되는 감각에 주목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감각을 정의하는 이 글의 입장과도 관계가 있다. 누구도 전통은 무엇인가? 무엇이 전통인가? 와 같은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기 어렵다. 오히려 특정 시대에 전통이 전통으로서 안착되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이 질문에 우회적인 답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점에서 60년대 중후반은 전통이 인습과 대립하는 긍정적 지표로 자리를 잡는 시기였고, 그것은 지배/저항 담론에 공통된 현상이었다. 한승원의 소설 역시 이 지반 위에 있다. 한승원은 60년대 신세대의 위치에서 김동리적인 것을 거둬 우리의 문학 전통으로 끌어안으려했고, 그것은 70년대 문학에서 전통 미학의 한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한승원 개인에게도, 70년대 문단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대대적인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패 또한 아니었다. 이 점이 중요하다. 방영웅의 경우 사실상 「달」 이후 주목받지 못하지만 한승원은 평판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었고 훗날 그것은 여러 장편을 통해 신화적 토속성의 세계로 각광받는다. 이는 상이한 두 세계를 동시에 추구하며 문학 세계를 구축했던 이청준과도 다르다.

11) 조동일,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전수업, 「아기장수이야기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1994 참고. 두 연구에 따르면 우리 설화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민중영웅은 미천하게 태어나 비범한 능력을 가졌으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모 등 가까운 이들에 의해 살해당한다. 조동일은 이러한 도식은 민중의 향기가 계속 비참하게 패배해온 역사적 경험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12) 김태준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4-흥부전/뱀강쇠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파악된다.¹³⁾ 이렇듯 성적 능력을 빼면 공통점이 희박하지만 우직한 뱀강쉬가 세 차례 혼인에 실패하고 광기를 내보이면서 그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적대적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를 민중성의 반영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변강쇠 설화의 성적 욕망이 지배층의 통치권에 맞서는 피지배층의 원초적 욕망을 의미한다는 지적을 참고하면 이 작품에서 뱀강쉬의 본능을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일탈로 받아들이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뱀강쉬의 적이 되는 것이다. 이상한 전개지만 이로 인해 뱀강쉬는 성적 성숙을 놀림감으로 삼아 그의 장수다움을 속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특별한 개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¹⁴⁾ 마을 사람들이 뱀강쉬의 고뇌를 고려하지 않는 공동체의 이기적 구성원이 될 때 독자에게 뱀강쉬는 인간적 동점심을 유발하는 날개 꺾인 장수로 다가온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뱀강쉬의 성욕 때문에 위험해진 공동체를 위해 끝내 추방이라는 오래된 관습을 택한다. 따라서 여기서 갈등 축은 해소하지 못한 성욕으로 괴로워하는 뱀강쉬: 그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마을 사람들이다.

한편 또 다른 장수로서 미륵레는 어떤가. 용녀의 변형인 미륵레는 나이 열두 살에 이미 성숙한 여성이다. 체구도 크려니와 마흔에도 앓된 용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그녀 역시 뱀강쉬에 못지않게 근거 없는 소문의 희생자이다.

물론 미륵레가 이 하룻머릿골에 들어서기 며칠 전부터, 가파른 기침고개 너머에 있는 큰물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많았다. 미륵레가 하룻머리골로 들어오더라도 분명히 혈혈단신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등, 마흔살이 다 되기는 했지만 갓서른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피둥피둥하고 살결이 고울 것이라는 등, 호말같이 덩치가 큰 나뭇으로로는 그래도 밍상이 아닐 것이라는 등, 코찌개 내기를 하면 해도 미륵레가 송아지만한 수캐 한 마리만을 데리고 올 것이 분명하는 등, 그리고 그 개는 미륵레가 예전부터 데리고 다니곤 하던 것인데 지금은 많이 늙었을 것이라는 등……(중략) 이렇게 남정네들은 입술에 맹물같이 흐르는 침을 바르고 음탕한 눈빛들을 한 채 게걸거리곤 하였는데, 그것은 그 미륵레가 자기의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사실, 말하자면 미륵레의 드센 팔자를 전적으로 수궁해버린 나머지 하는 소리들이었다. 미륵레 쪽에서 지나치게 성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 응하다 못한 남편이 급기야 췌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것이며, 그 뒤로 미륵레는 개서방을 데리고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인 것이었다.(14-15쪽)

인용문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미륵레의 남편이 죽은 것과 미륵레가 큰 개를 데리고 하룻머리골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과부가 개를 데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온 사실이 중년 아낙네들의 입을 거치면서 미륵레가 신이 들렸다는 소문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결국 이 의혹도 미륵레가 용녀에 버금가는 성욕의 화신이라는 것, 신이 들렸다는 것 두 개로 압축되는데, 이러한 미륵레 형상화의 문제점은 명약관화하다. 일찍이 무당은 김동리가 예사롭지 않은 토

13) 전신재, 「「변강쇠가」의 비극성」, 《선청어문》 18집, 1989, 8, 115~124쪽.

14) 뱀강쉬의 성적 성숙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다음 지문을 참고.

“묘한 일이란게, 저놈 커췌 것 조간 보소.” “글쎄 말시. 저놈, 앞으로 두고 보소마는, 이 동네에서는 비바우 영감네 작은딸한테는 맞을랑가 몰라도, 글안하면 몽달귀신으로 늙어 죽을 꺼시지.” “저놈이 인자 열두어 살 목었는디도 저러는디, 앞으로 스무남은 살 목도록 커보소, 어짜졌는가?” “비바우 영감네 작은딸도 거 커췌 것 보소.” “미륵레라는 가시내 말이제?” “맞네, 맞아, 그 미륵같이 생긴 작은딸 말이시. 시방 시집보내도 평평 애가 만 잘 낳고 사쁘시네.” “아암, 그라고말고!” “차암마로, 우리 하룻말머릿골에 장사 났어!” “장사가 나면, 꼭 그 짝 될 여자가 따라 생긴닥 하등만잉.” 하고 주고받던 것이었다. 그날 밤 그가 들은 이러한 말들은 그 후 별 까닭이 없이 그를 들썩거리게 하곤 하였다.(9-10쪽)

이밖에도 그에게 뱀강쉬라는 별명을 붙여준 '말미잘 사건' 역시 마을에 회자되면서 그를 속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속적 인물의 전형으로 「무녀도」에서 모화를 창조한 후 모더니티와 불화하는 토속적 인물의 전범처럼 그려진 측면이 있었다. 이후 김동리는 장편 「을화」에서 더욱 강력해진 무당을 선보였고,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1969년에 연재를 시작한 박경리의 「토지」에서도 무당 월선의 존재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무당이 성적 일탈과 연관됨은 위 작품들로서도 알 수 있거니와, 방영웅의 「분례기」를 보더라도 무속과 성욕이 광기와 더불어 토속성을 창출하는 단골 테마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가 1960년대 한국적인 것-전통 논쟁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발상이었다고는 해도, 이는 계보가 있는 미적 전통으로서 산업화 시대 리얼리즘 서사의 문법에 도전하는, 역설적으로 매우 근대적인 미학임에는 틀림없다. 「무녀도」, 「황토기」의 파괴력이나 전복성에 미치지 못하는 미륵례를 둘러싼 소문에는 한국 문학의 오래된 미적 도식이 무속과 일탈적 성이라는 형태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문협 정통파로부터 계보를 이어온 전통으로서 산업화에 맞춰 그 모습이 변형된 미학적 자기 인식의 메커니즘으로 추리할 수 있다.

요컨대 속화된 장수로서 미륵례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탄생했다고 보인다. 뱀강쉬처럼 미륵례 역시 과도한 성적 표상 때문에 살아있는 인물이라는 실감은 덜하다. 게다가 근대사의 희생양인 미륵례를 성적으로 불결한 인물로 만드는 데는 수간 혐의가 크게 작용한다. 미륵례가 데리고 온 검둥이는 보호견이었지만 뱀강쉬가 미륵례를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개서방'으로 그 의미가 급속히 변질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동물스러움'은 마을 사람들이 미륵례와 뱀강쉬를 함께 쫓아내도록 만드는 구실이 되는데, 한승원은 이러한 수간 모티프를 여러 곳에서 상징적으로 활용해 한편으로 그러한 의구심이 완전히 낭설이라고도 보기 어렵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수간 모티프 때문에 미륵례의 기구한 운명이 더욱 성적 화합에 실패한 체구 큰 여성의 한으로 왜곡되는 것이다.

허나 검둥이를 앞세워 뱀강쉬의 구애를 한사코 거부하는 미륵례의 태도는 강쇠가 죽은 후 다시 여덟 번째 남편을 구해서라도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려는 옹녀의 현실적 방식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미륵례는 검둥이를 내세워 뱀강쉬의 구애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그러한 결합 자체가 도의적으로 불가하다고 외치는 등 현실 원리를 좇아 계속해서 남편을 구하는 옹녀와 달리, 일부종사에 가까운 태도를 견지한다. 즉 미륵례에게 현실 원리는 개를 데리고 살지언정 뱀강쉬와는 결합할 수 없다는 의식을 뜻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뱀강쉬가 원수 집안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심각한 상황이 거듭되는 수간 모티프에 의해 미륵례의 태도를 이해 불가능한 광기로 만들고¹⁵⁾ 그녀를 '치료해야 할 병인'으로 전락시킨다. 그런즉 수간 모티프는 뱀강쉬와 미륵례의 광기를 초논리적인 차원에서 형상화하는 고도의 미학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뱀강쉬의 입장에서 그것은 자신에게 가해진 광인의 낙인을 벗고 이성(異性)과 이성(理性)을 동시에 얻는 기회이다. 미륵례의 수간을 목격한 뱀강쉬는 정적인 개를 죽이고 미륵례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속화된 뱀강쉬를 사내

15) 「폐촌」에서 수간 모티프는 곳곳에 나타난다. 이는 마을의 소문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뱀강쉬의 상상과 목격으로 구체성을 획득한다. 보이는 미륵례와 보는 뱀강쉬라는 설정은 남성 주체에 의해 특정 방식으로 재현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공식을 충실하게 따른다. 대표적으로 뱀강쉬가 바다에서 문어를 잡는 미륵례와 한 바닷난리를 치른 후, 다시 미륵례를 찾아가 들여다본 헛간 장면이 그렇다.

“헛간 안은 햇빛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컴컴했다. 한데, 빙빙거리던 개가 엽포를 놓듯 굵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이때, 그의 눈은 점차 헛간 안의 어둠에 익어졌고, 그 헛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 눈에 훑어 읽을 수 있었다. 피뢰피뢰하고 주글주글한 이불 위에서 미륵례는 실오라기 한 개 걸치지 않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한데, 누운 그 여자는 개의 꼬리를 두 손으로 휘감아 배꼽 아래로 바짝 끌어당기면서 바르르 몸을 떨고 있었다.”(92쪽)

다운 장수로 되돌리는 일종의 입사식이다. 이로써 「폐촌」은 어떻게 해도 파국으로만 열려 있던 「황토기」와도 다르게 날개 꺾인 주인공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장수로서 살아갈 가능성을 확보한다. 하필 그것이 사나운 개를 죽이고 한 여성의 광기를 치료하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는 속화되어 있지만 적어도 그가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태도만큼은 그가 쟁취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미륵레와 그가 부부로 살아갈 가장 개인적인 차원의 생존욕임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또한 한-근대사의 비극이라는 불가항력적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묘사되는 한-미학화의 새로운 공식들

근대 이후 한은 정적이고 수동적인 한국적 정서를 표상하는 단어였다. 한의 미학은 선의 미학과 더불어 한국적 미(美)로까지 격상되어 한국적 미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전통의 의미가 변화하는 60년대에 이르러 한 역시 기존의 의미와 상반되는 의미를 획득한다. 역사로부터 상처입은 자들이 운명을 수용하고 개인적 초월로 나가는 것이 과거 문협 중심 문인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한 개념이었다면 60년대 후반에 그것은 피지배층의 혁명적 힘을 뜻하는 계급적 의미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60년대 후반 전통론의 전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이론적 작업이 진행되면서 70년대에는 민중적 한 개념을 수용한 동학혁명 소재 역사소설이 등장한다.¹⁶⁾

민중적 한 개념은 한 개념 변천사에서 가장 늦게 도출되었고 일부 논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었으나 논란의 소지도 컸다. 그러나 원한론과 민중적 한 개념이 등장¹⁷⁾하면서 한은 개별적으로 풀어야 할 이전의 개인적 운명을 벗고 이제 역사적이고 집단화된 트라우마로 확장되어 이전 세대의 작품에 형상화된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이른바 세대적 등질감각이라 해보면 굳이 한승원을 4.19세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이에 대한 한승원의 인식을 문학사적 관점에서 논하기가 수월해진다. 「폐촌」은 물론이고 그 앞의 한연작¹⁸⁾은 제목에서 이미 신인작가로서 한승원이 특이하게도 한에 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작품인 탓이다.

16) 1960년대에 동학혁명을 다룬 주목할 만한 소설로 서기원의 「혁명」(1964)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4.19의 영향을 받아 동학의 역사적 의의를 봉건체제의 모순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난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변하는 동학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불가피하게 역사적 허무주의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후 유현종은 본격적으로 민중사관에 입각해 「들불」을 쓴다. 「들불」은 한 개념의 변천사에서 민중의 원한(怨恨) 개념을 작품으로 구체화한 텍스트이다. 작가의 고백(恨)은 아리랑의, 아니 한국의 주조이다. 한하면 가야금의 <商> 소리로 대치될 수도 있다. 商소리는 가을을 뜻하며 죽음을 뜻한다고 雅樂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恨은 것처럼 感傷의이고 구슬픈 가을날 다듬이질소리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들불의 野性과 生活人の意志가 있다)도 고백이지만 당시 신진 평론가 김병익 역시 「들불」에 나타난 한국농민의 한이 “자기의 생존 이유까지 체념하며 운명에 철저히 의탁하는 女性的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絶地>에 이르러 어쩔 수없이 통겨나오는 반항으로 스스로의 생존이유를 투척하는 男性的인 것”이라고 하면서 농민의 단합된 분노와 힘이 빼어난 민중문학으로서 들불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김병익, 「시대상의 발견과 한의 재현」, 현대문학 1974.6, 268쪽.

반면 한승원 자신은 한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한은 패배주의적인 체념이나 포기나 눈물 같은 것이 아니고, 복수를 꿈꾸는 자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겨내려는 끈질긴 생명력, 이 민족의 아귀찬 의지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은 풍자와 해학을 동반합니다. 동반한다기보다는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킬 때, 그것은 끈질긴 생명력의 미학, 의지의 미학이 될 터입니다.”

17) 한 개념의 변천사는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참고.

18) 「한①-어머니」, 「한②-홀엄씨」, 「한③-우산도」를 묶어 한 연작으로 표기한다.

1974년부터 75에 걸쳐 발표된 한 시리즈는 이전 세대의 문학적 전통을 적극 계승하고 있다. ‘어머니’나 ‘홀엄씨’라는 부제부터가 이미 황순원의 「맹산할머니」(1943), 「필묵장수」(1955), 오영수의 「고개」의 주인공인 늙은 과부를 연상시키는데, 이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한 시리즈도 전쟁 탓에 과부가 된 어머니의 사연은 짧게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이 구체적인 관념으로서 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대조적이다. 황순원과 오영수의 한이 서사에 의해 추상화되어있다면 한승원의 한은 묘사를 통해 감각적인 형태로 구체화된다. 「맹산할머니」나 「고개」에서 독자는 인물의 한을 특정 장면에서 짧은 단문 위주로 이루어지는 인물간 대화와 서술자의 간결한 설명만으로 감지한다. 굳이 말한다면 여기서 한은 구체적인 서사 속에 추상적인 형태로 융해되어 있는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이기는 하나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배후의 서술자로부터 역사의 한 순간을 살았던, 평범하나 선량한 인물의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듣는 느낌을 자아낸다.

그러나 한 연작은 처음부터 서술자가 강하게 개입한다. 특히 홀어머니가 자식(아들)을 키우면서 겪는 고난을 보여주며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할 때는 서술자와 주인공의 거리가 거의 무시된다. 황순원이나 오영수가 절제하는 문장으로 단편의 예술성을 의식하면서 미적 여운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면 한승원은 훨씬 구체적인 디테일에 치중함으로써 저 옛날 이야기에서 풍문, 혹은 분위기로만 전해지던 한을 일상의 감각으로 구현하여, 도처에 산재한 생활로서 한을 표현하고 있다. 「한 ①」의 서두에서 홀어머니의 외양과 심경을 일치시키는 부분을 보자.

미역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를 악문 채, 왼팔과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부지런히 내저으며 옷마
을로 들어서는 늙은 어머니는 비루먹은 황소 등어리의 털빠진 살갓처럼 희끗희끗 쌓인 앞산의 눈
을 끌어 검은 들판을 건너온 찬바람이, 마을 앞 사장의 늙은 팽나무 가지를 썩 스치고, 흰 가는배
치맛자락과 반백의 머리털을 쥐어뜯을 듯이 싸고 돌았을 때. 쿨룩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게 시작되자, 차분히 쪼그리고 앉아 옷몸을 움츠리며 연거푸 쿠울룩쿠울룩을 터뜨려놓았다.(221
쪽)

한 연작에는 인용문에서처럼 생활 속에서 특정 인물을 묘사하며 구체화되는 한 감각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또 인용문에서 늙고 아픈 어머니는 오직 감옥에 갇힌 막내아들을 위하는 동물 같은 모성애를 가진 존재이다. 면회에 시큰둥한 큰아들을 “빙할 놈, 급살빙할 놈”, “독새(毒蛇)보다 더 모진 놈”이라 칭하며 노여워하는 어머니와 「한 ③」에서 형제들에게 재산을 다 내주고 빈손으로 간척지를 만들다 사고를 당한 막내 홍삼이를 살리려고 다른 형제들을 꾸짖는 늙은 어머니는 동일하다. 이렇듯 한 연작에서 묘사되는 한은 늙고 병든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시선이 붙잡아 들이는 선량한 (막내)아들이라는 관계에서 일반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보다 약한)아들을 지키지 못한 ‘모성의 자책=한’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묘사되는 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굳이 힘세고 착한 아들이 필요한 것일까. 다른 형제들이라고 출세한 것도 아닌데, 굳이 착한 막둥이가 희생자가 되는 한 연작의 메커니즘. 이러한 공식이 장남 위주의 가부장제가 작동하던 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의 무의식적 영향임을 추론할 수 있지만 한 연작은 본격적으로 이를 기술하지 않는 대신¹⁹⁾ 어머니를 내세워

19) 한 ②에서 어머니는 죽을힘을 다해 홍민이와 홍사를 공부시켰지만 생활전선에서 그들은 무능하다. 오히려 그들은 홍삼이에게 사업 자금을 뜯어가고 폐를 끼친다. 한 ③에서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은 70년대 다른 소설에서 시골 출신 인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입성한다는 3류 성공 신화에 비해도 매우 절망적인데, 아마도

여성적 슬픔으로서의 한이라는 기존 개념을 답습하는 형태로 전통적 관념에 새롭게 묘사되는 한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문제는 전통적 관념의 후광이 썩 강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짚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약한 여성의 슬픔이라는 형태로 젠더화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연작 이후 「폐촌」에서 한승원은 어떤 확신을 갖고 한의 발생 원인인 비극적 근대사를 거대한 폭력으로 파악한다. 물론 단순히 보면 이는 김동리나 황수원, 오영수가 한의 승화를 통해 근대의 폭력을 고발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 계보에 있으되 거기서 더 나아간 한승원의 독자성은 6,70년대 문단에서 퇴행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일관성이 그가 속한 계보의 방식을 심화시킨 어떤 미학적 성취일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정은 어떤가.

반복하지만 「폐촌」에서 뱀강쉬의 장수다움을 앗아간 근본적인 책임은 비극적 근대사에 있다. 그가 미륵레와 혼인하지 못한 이유는 뱀강쉬와 미륵레의 계급 갈등이 해방 후 좌우 대립으로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악질 지주인 미륵레의 부친 비바우 영감과 그의 선원이었던 뱀강쉬 부친의 악연은 자식대에서 여순사건으로 재점화되어 뱀강쉬의 형은 가해자가, 미륵레 집안은 피해자가 된다. 그런데 「폐촌」에서 뱀강쉬의 형은 "영웅심에 들떠" 지주의 집안을 도륙내는 얼치기 사회주의자이다. 서술자는 이를 그의 죽음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정상으로 보면 불쌍하네마는, 잘 죽었네"-과 미륵레를 불쌍히 여기는 뱀강쉬의 태도로 요약하고 있다. 반면 미륵레의 오빠들은 우익 권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순경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오히려 귀향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약자이다. 우익을 온건한 약자로 서술하는 태도는 이들의 귀향에 겁을 먹고 집을 떠난 뱀강쉬 부친이 몇 년 후 인민위원장으로 돌아와 다시 좌/우 대립을 일으킨다는 데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튿날 어김없이 인민군이라는 군대의 일개 분대가 큰물을 거쳐 하룻머릿골로 들어왔다. 기침고개를 넘어오는 길에 뱀강쉬네 형의 무덤 앞에서 붉은 완장 두른 청년의 선창으로 「강동무 만세」를 그 골짜기가 찢어져 나갈 만큼 목청껏 부른 뒤, 하룻머릿골로 들어온 그들은 뱀강쉬의 아버지를 앞장세워 마을 사람들을 너려바위 위에 모았다. 그리고 분대장이라도 되는 듯한 나이 듬직한 군인 한 사람이 나서서

「동무, 인민 해방 전선, 혁명 대열, 부산으로 줄행랑을 친 이승만 꾀쇼 도당, 반동자 숙청, 모리배의 재산 몰수 무상분배……」

따위의 말들을 늘어놓은 뒤에...(56-57쪽)

이렇듯 좌익 사상을 서술할 때 드러나는 격한 어조와 비논리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단어, 구의 열거에 비해 미륵레의 오빠들은 부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시국 탓으로 돌린다.

저도 우리 아버지나 어무니나 여동생의 원수를 갚을 수는 있었어라우. 그라제마는, 참았읍니다. 혹시 제 동생 껌철구가 엉뚱한 짓거리를 할까만이, 이틀 사흘 걸어 꼭꼭 전화를 했어라우. 고향 사람들한테 복수를 할 생각은 꿈에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이요. 어르신들, 생각해 보시요. 우리 서로 그래서 쓰겼소? 저는 우리 아버지나 어무니나 야실이를 죽인 것은 동네 청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요. 우리가 잘못 만난 시국 탓이지라우. 그 시국이 죽인 것이지라우. 그렇게 우리 일단 이 자리서 과거지사를 썩 끌어다가 잊어뽀시다. 그라고, 그런 일이 씨도 없었던 것으로 치고, 다시 옛날맹이로 오손도손 정답게 삼썩다.(48-49쪽)

농촌도 아니고 외딴 어촌이라는 배경이 낡은 현실의 리얼리티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렇듯 온화한 인물이 돌아온 미륵레의 부친에 의해 살해된다는 설정은, 아무리 서술자나 미륵레의 오빠들이 시국을 거론해도, 결코 애매모호하게 시국 탓이 될 수도, 모두가 희생자라는 상황론으로 흐를 수 없다. 이들은 미륵레의 오빠들이 마을 어른들 앞에서 복수극을 멈추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다시 부당하게 과거를 징벌함으로써 두 사람을 무고한 희생자로 만든다. 여기에 이르면 미륵레의 부친이 악질 지주였다는 과거는 사라진다. 남은 것은 이 모든 기억을 안고 타지로 시집을 갔다가 돌아온 유일한 한 사람, 미륵레라는 약한 여성의 깊은 한이다. 그리하여 이 한은 깊고 깊어서 뱀강쉬가 그것을 만류하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로는 도저히 해소될 수 없다. 이 때 뱀강쉬와 미륵레가 가해자(좌익): 피해자(우익)의 관계에 있음이 문제적이다. 사실 우리 문학사에서 한이 좌/우 대립을 초월하여 개인의 종교적 노력에 의해 승화된다는 스토리는 적잖이 있어왔다. 태평양-한국 전쟁기를 배경으로 이러한 문제에 천착했던 황순원, 오영수의 소설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주제의식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의 작품에서 우익 편향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 바 아니나, 이는 남한에서 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폐촌」이 당시로서는 입을 열기도 쉽지 않았던 여순사건을 언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한풀이의 내용이 우익 편향적인 토속성의 해계모니를 신인의 미적 감성으로 다시 쓰고 있는 것은 70년대 문단에서 토속성이 활용되는 구조적 한계 지점을 보여준다. 「폐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매우 감정적으로 변형시켜, 과학적인 듯하나 복수에 날뛰는 좌익: 원수를 용서하는 인간적인 우익이라는 좌/우 이념의 전형적인 재현 패턴에 미적 강렬함을 씌워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문학적 독자성의 영토를 지향한다. 폐촌은 이러한 재현 패턴을 만드는 효과적인 배경이다.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된 마을이지만 기실 바닷가 마을은 풍요롭다. 바다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린 삶의 터전이고 갯것은 넘쳐난다. 미륵레와 뱀강쉬가 하필이면 문어와 해삼을 잡으며 싸움을 하는 것 역시 좌/우 대립을 본래의 과학적 태도로부터 생물학적 본능 차원으로 끌어내려 각지거나 모나지 않은 연체동물처럼 이념 역시 바구니에 담거나 대창으로 찌르면 끝나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최악의 경우에도 그것은 뱀강쉬가 때려잡을 수 있는 사나운 개 이상은 아니다.

미륵레가 달려가서 개를 얼싸안고

「위메, 위메, 내 개 어째사 쓰꼬!」

하면서 주저앉은 채 엉덩방아질을 하고 울부짖었다.

그는 몽둥이를 한편 구석으로 던지고 미륵레가 떨고 있는 추잡스런 꼬락서니를 내려다보았다. 한동안, 오줌이라도 금방 터져나오는 것을 참아내는 여자처럼 엉덩방아질을 하기도 하고, 불에 덴 벌레처럼 몸부림을 하기도 하던 미륵레가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그에게 덤벼들었다. 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팡팡 두들겨댔다. 그는 그 여자에게 마음대로 두들겨 대라는 듯 웃고름을 우두둑 뜯어, 시꺼먼 털이 부스스한 가슴팍을 내밀어 주면서 히죽 웃었다.(94-95쪽)

개를 죽인 후 뱀강쉬와 미륵레의 상황은 역전된다. 내내 궁지에 몰리던 뱀강쉬는 개를 죽임으로써 이념의 광포한 잔영을 꺾은 승리자로서 미륵레 앞에 나서 미륵레를 항복시킨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뱀강쉬는 이성을 잃고 덤비는 미륵레를 달래고 으르면서 ‘개서방 보다는 사람 서방이 나을 거’라고 단언하는 등, 이제 앞서의 광기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남성이 된다. 반면 일단 분출된 미륵레의 광기는 뱀강쉬를 연달아 물어뜯고 “웬수”라고 외치는 등 형이하학적 차원으로 전이되어버린 이념의 추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적)추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개보다 강력한 성적 에너지로 충만한 (남성적)결단이기에, 가문의 생존자로서 미륵례의 태도는 앞서의 우익 편향적 재현을 뒤집는 전략이 아니다. 이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기술을 이용해 약화된 남성 주체를 재확립하는 문학적 전술의 보편적 양태이다.²⁰⁾

그러므로 세대적 등질감각으로 설명한다면 이를 60년대 이후 신인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경향-앞세대의 문학적 자산을 심화시키는 방편으로 이념 대립의 해소책으로 토속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심미성까지 확보하는-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윤홍길의 「장마」(1973)에서 할머니와 구렁이라는 무속을 이용해 좌/우 대립을 상징적으로 해소했던 것과 유사한 발상인 셈이다. 이러한 발상에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폐촌」의 경우 미륵례와 개라는 설정이 할머니나 구렁이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느낌도 있다. 그러나 묘사를 앞세워 구체적 형상화에 경사되었던 한 시리즈에 비해 역사와의 연관성에 천착하는 「폐촌」의 한 인식이 미흡한대로 60년대의 역사의식이 허여한 방향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폐촌」은 「장마」와 더불어 문학적 수준이나 형상화 정도를 넘어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 역사의식을 어떻게 작품에 투영할 것인가는 도시 소설을 택했던 4.19세대 뿐 아니라 한승원, 박상룡, 방영웅 등 토속성에 관심을 가졌던 작가에게 공통의 숙제였던 것이다. 1960년대 신진 작가들의 세대적 등질 감각은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다.

4. 신생의 의미

운명을 초극하고 쌓인 한을 풀기 위해서는 신생(新生)해야 한다. 「고개」의 과부가 살인을 저지른 의붓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러 떠나고 「역마」의 성기가 엇목판을 들고 떠나듯이 신생은 한풀이의 종착역과도 같다. 한 시리즈의 경우 주로 한의 생성과 경과에 초점을 맞추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폐촌」에서 신생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검둥이를 때려잡고 뱀강쉬와 미륵례가 화해한 후 그들은 살림을 차린다. 그런데 이들이 살림을 차린 장소는 하룻머릿골이 아니라 찬샘골이다. 하룻머릿골에 붙어 있기 위해 용을 쓰고 덤볐던 뱀강쉬가 미륵례와 화합하자마자 순순히 이사해서 새 보금자리를 튼 셈인데, 앞에서 장수다움을 회복하는 뱀강쉬를 보더라도 어딘가 맥이 빠지는 전개이다. 물론 텍스트는 현란한 묘사를 동원하면서 이를 신생의 몸짓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득량만에 떠오른 아침해는 ‘빨간 팬티’로 대유된 미륵례의 한과 미륵례 가족들이 쏟아낸 ‘핏덩이 빗깔’을 감싸 안으며 이 모든 갈등이 이제 지나간 과거라고 말한다. 천연덕스럽게도 해는 지나간 모든 상처를 용해시킨다. 미륵례는 “한참 신이 나서” 샘가에서 “「시시 시이 시시 시이」 하는 소리를 하며” 개를 삶을 솥을 씻는다.

「폐촌」의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결말은 필연적이다. 근대사의 비극을 두 가족사로 축소했으므로 구성원의 화해가 곧 비극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보금자리가 하룻머릿골에서 떨어진 ‘그들만의 장소’라는 결말은 한 시리즈에서 일상의 감각으로 구체화했고 나아가 그것을 다시 역사의식으로 확장시키려 한 시도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는 「장마」의 절정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가문의 어른들이 주재하는 화해의 제의임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제의란 참여하여 공동의 책임을 질 때 효력을 발휘

20) 한승원 소설에는 이렇듯 불안한 여성, 광기어린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해 남성주체의 (재)정립을 시도하는 내용이 흔하다.

한다. 그런데 「폐촌」에서 때려잡은 개를 뱀강쉬와 미륵레가 삶아먹는다는 제의는 전혀 엄숙하거나 신성하지 않다. 텍스트가 개의 상징성을 묘사하는 데 들인 공을 생각해도 이는 여의주를 얻고도 이무기로 있으려는 장수에게 맞는 속된 방식이라는 느낌 이상을 주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또 하나 중요한 갈등 축인 마을 사람들: 뱀강쉬, 미륵레의 관계가 사실상 결말에 이르러서도 해결되지 않은 탓이 크다. 앞에서 보았듯이 뱀강쉬에게 한은 이 중의 토대에서 생성되었으므로 미륵레와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뱀강쉬와 미륵레의 출생을 기뻐했던 마을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들을 위험한 존재로 파악하고 내치려는 모습은 아기장수 설화에서 영웅의 출생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그 날개를 잘라버린 어리석은 부모의 태도와 유사하다. 비록 후반부로 가면서 아기장수의 주제의식은 약화되고, 미학화된 한의 공식이 두드러지지만 어쨌든 마을 사람들과 뱀강쉬의 관계는 한승원이 「폐촌」에서 말하고자 한 한(恨) 개념의 핵심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밀고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형상화에 실패했다는 관점에서 이는 작가적 역량의 부족을 뜻한다. 반면, 김동리의 후예로서, 그 문학적 전통의 계승자로서 그는 무엇보다 전통적 미학을 택했다.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서 한 시리즈와 「폐촌」을 분석했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예컨대 김동리가 「황토기」를 썼던 시대에 두 번째 해석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수 있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적 근대의 초극이라는 민족의식과 떨어져 논의될 수 없었기에 미학으로서도, 세계관으로서도 주체적일 수 있었고, (적대적)대상에 대한 결기가 미적인 날카로움으로 전이되었다.

한승원의 시대는 어떠했던가. 주지하듯 70년대 후반은 문학 행위의 정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대였다. 60년대 중반과도 또 다른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민중적 한 개념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은, 달리 말해 한이 논의되는 담론 장이 바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한의 담론장은 50년대로 넘어오면서도 변화했다. 전술했듯 50년대 문학에서 한의 담론장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역사를 전경화하고 아득하고 초월적인 공간-절, 고갯마루와 같은 비일상적인 공간-을 점유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 시리즈와 「폐촌」은 사람들이 싸우는 바닷가 마을이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한 담론을 직조했다. 여기에는 일본 제국주의도, 폭력적 근대라는 괴물도 없다. 대신에 좌/우 이데올로기를 용해시키면서 색깔로 구체화된 생존욕이라는 한이 선을 보인다.

이 점에서 「폐촌」은 민중적 한과 전통적 한 개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다. 요약하자면 60년대 후반부터 갈리기 시작한 민족주의²¹⁾가 「폐촌」 안에서 동거하면서 제3의 길을 찾고 있는 형국. 그 길은 근대화 프로젝트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인 '전통'이 나갈 만한, 수월하면서도 앞날이 보장된 길이다. 그러므로 이 앞에서는 이데올로기 편향성도, 건드리다만 민중 영웅 이야기도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문협의 좌장으로 김동리가 해방기에 정식화한 (탈)정치적 문학 이념-구경적 생의 형식으로서의 문학-이 꺾어야 했던 모순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 구경적 생의 형식이 그랬듯이, 그것은 후대로 갈수록 파장이 커질 '문학적 보편성'이라는 틀을 갖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민중적 한이든 전통적 한이든 모두 용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승원이 이를 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폐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폐촌」은 여태껏 신비로운 풍문

21) 흔히 60년대의 민족주의는 관제/저항 담론으로 나뉘어 설명되어왔지만, 양 진영의 차이는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심각해지는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확실해진다. 또 진영이 갈린 후에도 '근대화'를 지향하고 민족 전통을 옹호하는 등 근대적 조국에 대한 열망 자체는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박사논문에서 자세히 밝혀놓았다.

으로 전하던 민족 집단의 미적 전통에 공감한 한 신인이 그들 세대의 감각을 더해 통속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깊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작품이다. 이는 산업화 이후 각광받을 새로운 민족지 기술의 서막을 여는 행위로서, 60년대에 민속의 미의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재해석했던 이청준보다 전통에 대해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승원의 존재는 남도의 전통을 대중적으로 인지시켰던 이청준의 ‘남도소리’ 연작을 이끌어낸 전사(前事)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첨언하면 토속성이 주로 신세대의 유용한 문학적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던 70년대 문단에서 그것이 스승에 필적하는 이념이나 혹은 스승과 구분되는 세계관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사회적 압력에 노출될 필요가 있었다. 등단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한승원이 묘사되는 한과 같은 미학적 표현에 열중한 것도 그런 처지에 있는 신인의 사정을 드러내는지도 모른다. 한에 선명한 생활의 색깔을 입힘으로써 한의 초월성을 약화시킨 것은 분명히 한승원의 공이다. 허나 「들불」과 「장길산」, 「태백산맥」이 알려주듯 토속성의 색깔은 묘사에서 다시 서사로 돌아오는 순간 역설적으로 더 선명해진다. 「폐촌」의 결말이 흔히 전통에 호의적인 작가들이 빠지기 쉬운 선택의 본보기라는 예단을 피하기 힘든 까닭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現代時調의 表記 樣相 考察

- 艸丁 金相沃 時調를 중심으로 -

崔興烈 (중앙대학교)

<차례>

1. 序 論
2. 艸丁의 時調集別 表記方式
3. 艸丁 時調 表記方式의 變貌樣相
4. 結 論

1. 序論

오늘날 現代時調¹⁾는 詩作에 있어 다양한 表記 方法들이 동원되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表記 樣相의 多樣化는 現代시조인지 現代 自由詩인지 조차 구별을 어렵게 하는 문제에 이르고 있다. 現代시조는 現代 자유시와 並存하는 시대의 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現代시조는 자유시와의 辨別性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現代시조의 표기 양상을 염두에 두면서 現代시조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艸丁 金相沃 시조의 표기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艸丁 金相沃(1920~2004)은 現代시조의 새로운 경지를 추구하였다. 특히 시작 활동기간 동안 꾸준히 形式實驗을 하여 그의 시조문학에는 다양한 표기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論文이 艸丁의 時調文學에 나타나는 표기 방식에 주목하고자 하는 의도도 여기에 있다. 또한 이 논문은 現代시조 창작의 일부에서 만연하고 있는 現代 자유시와 유사한 표기 방식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논문의 한계는 現代시조의 표기 양상을 다 살피지 못하고 艸丁 時調의 표기 방식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現代시조가 古時調와의 단절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여도 고시조의 속성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고시조는 唱과 연관되면서 三章式, 五章式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唱과 연관을 떠나 文學的面과 연관되면서 六切式, 七切式, 九切式, 나아가 十二切式 등의 다양한 표기 방식을 보이고 있다. 現代시조는 唱의 속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축소되어 왔고 唱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도 않는다. 現代시조는 唱의 구속력이 없어짐으로써 放漫性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유시에 영향을 받아 詩法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어왔다. 이것은 과거의 기준으

1) 시조사의 구분에 있어 (1) 고시조와 現代시조의 2분법 (2) 고시조, 근대시조(신시조), 現代시조의 3분법 (3) 고시조, 신시조, 근대시조, 現代시조의 4분법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3분법을 따르고 있다. 現代시조의 기점에 관하여는 六堂의 『百八煩惱』 이후 설과 『嘉藍 時調集』 이후 등의 여러 설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가람 시조 집 이후로 現代시조의 기점으로 잡고자 한다.

로 보면 시조로서의 破格을 의미한다. 특히 艸丁 金相沃은 시조의 音樂性보다 文學性 중심의 연구를 주장하여¹⁾ 후기 시조집으로 갈수록 방만성을 드러내면서 파격을 보이고 있다. 인간의 意圖的 記號 體系인 시조는 文字, 音韻, 形態, 語彙, 文體論 등의 여러 측면에서 다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일단 艸丁 金相沃 시조의 표기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艸丁의 時調集別 表記方式

艸丁은 1939년 『문장』 지에 시조 <鳳仙花>가 가람 이병기에 의해 추천되고 같은 해 11월 東亞日報에 시조 <落葉>이 當選되면서 本格的인 時調 創作을 했다. 艸丁의 시집들은 시조집인 『草笛』(1947, 水郷書軒), 『三行詩六十五篇』(1973, 亞字房), 『향기 남은 가을』(1989, 尙書閣), 『느티나무의 말』(1998, 尙書閣) 4권과 시집 『故園의 曲』(1949, 성문사), 『異端의 詩』(1949, 성문사), 『衣裳』(1953, 現代社), 『木石의 노래』(1956, 청우출판사), 『墨을 갈다가』(1980, 창작과 비평사), 5권이며 동시집 『석류꽃』(1952, 현대사), 『꽃 속에 묻힌 집』(1958, 청우 출판사) 2권을 합하여 모두 11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11권의 시집 중에서 시조집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艸丁의 문학에서 단연 빛나는 영역이 시조이기 때문이다. 艸丁의 4권의 시조집에 수록된 작품은 282편이며 중복 수록된 작품을 제외하면 188편 299수에 동원된 총 음수 13,462자 약 5,294 어휘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²⁾

시조의 정형성을 3章 6句의 4音步라 할 때, 初章·中章·終章의 各 章에서 句의 기능을 살려 內句를 1장 ~ 4행으로 外句를 1행 ~ 4행으로 한다거나, 內外句 중에서 한 句만 1행 ~ 4행으로 하는 句別 配行은 작품의 배행에 따라 律讀을 하는 表記 方式이다. 艸丁의 前期 시조집인 『草笛』과 『三行詩六十五篇』의 표기 방식은 1장 1행으로 하는 單聯式 章別 配行이다. 艸丁의 前期 시조집 작품 105편 중 長時調 14편을 제외한 91편이 1장 1행의 單聯式 章別 配行으로 되어있다. 이는 전 작품 대비 52%이다. 律讀上的 편리함을 위한 音步의 表記도 4권의 時調集에서, 音步式 表記 7편을 제외하면 모두 非音步式 表記이다. 後期 시조집인 『향기 남은 가을』과 『느티나무의 말』에 수록된 72편을 포함한 4권의 시조집 188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表記方式 樣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草笛』

『草笛』³⁾에는 총 40篇 91數의 時調가 수록되어 있으며 類型別로 분류하면 短時調가 39편 90수이며 長時調가 1편 1수이다. 短時調 39 篇 중에 單首가 6首, 連作이 33篇 84首로 92%를 차지하여 단시조의 연작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草笛』에서 나타나는 표기방식은 1장 1행의 章別 配行 非音步式 表記이다. 艸丁의 첫 번째 시조집 『草笛』의 작품 표기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草笛』의 作品의 表記 類型

-
- 1) 金相沃, 「時調 創作의 辯」, 『時調學論叢』第11集, 韓國時調學會, 1995, p127.
 - 2) 줄고 「艸丁 金相沃의 時調文學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2009, 6 p15.
 - 3) 金相沃, 『草笛』, 水郷書軒, 1947.

形式 作品	作 品	作品數	表記類型	音步表記
短時調	單首 <春宵>, <愛情>, <물소리>, <어무님>, <안해>, <廻路>	6	1장 1행 單聯式	非音步式
	2聯 <비오는 墳墓>, <江 있는 마을>, <晩秋>, <길에 서서>, <家庭>, <病床>, <僵屍>, <懷疑>, <落葉>, <집오리>, <흰돛 하나>, <路傍>, <煩惱>, <鞦韆>, <玉笛>, <大佛>, <多寶塔>, <鮑石亭>, <餘鯨山城>	19	1장 1행 單聯式	非音步式
	3聯 <思郷>, <鳳仙花>, <立冬>, <눈>, <누님의 죽음>, <自戒銘>, <邊氏村>, <十一面觀音>, <矗石樓>, <武烈王陵>, <財買井>	11	1장 1행 單聯式	非音步式
	4聯 <圀圀>, <白磁賦>	2	1장 1행 單聯式	非音步式
	5聯 <靑磁賦>	1		非音步式
長時調	<善竹橋>	1		非音步式

위 <표 1>에서 艸丁은 단시조를 즐겨 創作하였으며 短時調 중에서도 單首 形態보다 연시조 形態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草笛』의 39편의 短時調 表記 樣相은 1장 1행의 單聯式 章別 配行을 따르고 있으며, 古時調의 전통적 율격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2) 『三行詩六十五篇』

『三行詩六十五篇』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短時調가 52편 109 수이며 長時調가 13편이다. 52편의 단시조는 단수가 15편이며 연시조가 37편이다. 37편의 聯詩調는 2수 연작이 23편, 3수 연작이 9편, 4연 연작이 4편, 5연 연작이 1편 94수로 단수 대비 86%로 『草笛』과 같이 聯詩調를 選好하여 創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行詩六十五篇』에서 특이한 점은 『草笛』에 비하여 長時調가 13편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長時調 13편은 單首가 11편이며, 2편이 連作形態이다. 2편의 연작 형태는 2연이 1편, 3연의 연작형태가 1편이다. 『三行詩六十五篇』의 작품 65편의 표기 양상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三行詩六十五篇』의 作品의 表記 類型

形式 作品		作 品	作品數	表記類型	音步表記
短時調	單首	<蘭 있는 房>, <洗禮>, <無緣>, <어느 날>, <不在>, <銀杏잎>, <겨울 異蹟>, <傳說 其一>, <傳說 其二>, <寫眞>, <配置>, <今秋>, <凋落>, <물빛속에>, <門>	15	1장 1행 단연식	비음보
	2聯	<꽃피는 숨결에도>, <祝祭>, <따사롭기 말할 수 없는 無題>, <항아리>, <말에게 주는 笏記>, <꽃의 自叙>, <억새풀>, <白牡丹>, <모란>, <꽃과 乞人>, <어느 親展>, <油畫>, <안개>, <밤비소리>, <降雪>, <탐라기>, <翡翠印靈歌 破片其一>, <翡翠印靈歌 破片其二>, <착한 魔法>, <形象>, <現身>, <춤其二>, <巫歌>	23	1장 1행 단연식	비음보
	3聯	<撮影>, <李朝의 息>, <꿈의 蓮꽃>, <회를 친 얼굴>, <硯滴>, <몸>, <나의 樂器>, <일>, <樹海>	9	1장 1행 단연식	비음보
	4聯	<가을 뜨락에 서서>, <紅梅幽谷圖>, <남은 溫氣>, <달의 노래>	4	1장 1행 단연식	비음보
	5聯	<雅歌 其一>	1	1장 1행 단연식	비음보
長時調		<圖章>, <내가 네 房안에 있는 줄 아는가>, <늙가에 앉은 少年>, <關係>, <人間나라 生佛나라의 首都>, <古山子 金正浩先生頌>, <금을 넘마로 하는 術士에게>, <開眼>, <돌아온 笊이>, <춤其一>, <슬기로운 꽃나무>, <科學 非科學 非非科學的 實驗>, <雅歌其二>	13	3장	비음보

위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艸丁은 『草笛』에서 보여준 연작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艸丁의 前期 시조집 『草笛』과 『三行詩六十五篇』에 수록된 105 편 중, 장시조를 제외한 聯詩調 2~5연의 作品 70편을 포함한 全 작품 91篇이 1장 1행의 單聯式 章別 配行 非音步式 표기 방식을 보이고 있다.

3) 『향기 남은 가을』

『향기 남은 가을』⁴⁾에 수록된 103편 작품 중에 중복을 빼면 46편이다. 『草笛』의 중복 수록된 작품은 12편이다.⁵⁾ 『草笛』의 <비오는 墳墓>가 『향기 남은 가을』에서는 <비 듣는 墳墓>로 제목이 바뀌어 수록되었고 내용이 일부 개작되어 “등을 등을 넘어가서”와 종장의 “비 오는”이 『향기 남은 가을』에서는 “등성이 넘어 넘어”와 “비 듣는”으로 수록되고 나머지는 동일하여 같은 작품으로 본다. 『草笛』의 重複 收錄된 작품들은 『향기 남은 가을』에 1장 1행의 章形 配列의 非

4) 金相沃, 『향기 남은 가을』, 상서각, 1989.

5) 『草笛』의 重複 收錄 작품은 <비오는 墳墓>, <江 있는 마을>, <多寶塔>, <十日面 觀音>, <大佛>, <玉笛>, <靱轡>, <靑磁賦>, <白磁賦>, <집오리>, <病床>, <邊氏村>이다

音步式으로 『草笛』과 동일한 表記方式이다.

『三行詩六十五篇』의 26편 중복된 작품 중에 <祝祭>, <李朝의 흥>, <항아리>, <꽃의 自叙>, <樹海>, <雅歌>, <가을 뜨락에 서서>, 등은 『三行詩六十五篇』과 동일한 1장 1행의 章別 配行 表記 方式으로 『향기 남은 가을』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立春 가까운 날>은 『三行詩六十五篇』의 <洗禮>가 제목만 바뀌어 수록되었다.

長型時調인 『三行詩六十五篇』의 <늑가에 앉은 少年>, <關係>, <人間나라 生佛나라의 首都>, <古山子 金正浩 先生頌>, <슬기로운 꽃나무>, <科學 非科學 非非科學的 實驗>, 등은 『三行詩六十五篇』의 표기방식 그대로 『향기 남은 가을』에 수록되어 있다. 『三行詩六十五篇』의 <凋落>, <작한 魔法>, <蘭 있는 房>, <不在>, <억새풀>, <無緣>, <어느날>, <물빛속에>, <傳說 1>, <傳說 2>,의 작품들은 『三行詩六十五篇』에서는 1장 1행의 章別 配行의 非音步式表記이다.

<표 3> 『향기 남은 가을』의 作品 類型

		作 品	作品數	表記類型	音步表記
短時調	單首	<白磁>, <편지>, <雨後>, <失人>, <그 門前>, <싸리꽃>, <因果>, <하얀 꽃나무>, <빈 硯>, <가을 그림자>, <이 나무>, <早春>, <아침 所見>, <還生>, <꽃>, <모란 앞에서>, <近況>, <햇빛>, <封書>, <작한 魔法>, <硯滴의 銘>, <安否>, <보안 불빛>, <失明>, <무엇이 될 것인가?>, <痕跡>, <있지는 나무>, <모란>, <孤兒 말세리노 1>, <孤兒 말세리노 2>, <밤비소리>, <乙淑島>, <강아지 풀>.	33	1장 3행 구별배행 초장3행 중장3행 종장3행	非音步式
	單首	<師弟>	1	초장3행 중장2행 종장3행	非音步式
	單首	<뒤안길>, <어느 골짜기>, <못물 1>, <못물 2>, <못물 3>, <꽃과 눈물>, <香囊>	7	1장 4행 초장 4 중장 4 종장 4	音步式
	2聯	<가을 열쇠>.	1	1장 4행 첫연 중장3행 둘째연 중장3행	非音步式
	3聯	<悲歌>	1	1장 2행 구별배행	非音步式
長時調		<저 꽃처럼>	1		非音步式
其他		<돌 1>, <참파노의 노래>	2	산문식	非音步式

위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향기 남은 가을』에 수록된 작품 46편중 短時調가 41편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다. 聯詩調는 2편으로 『草笛』이나 『三行詩六十五篇』의 시조집의 단시조 連作形態가 單首 對比 92%와 86%인 것에 비하면 거의 連作 形態의 創作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조가 連作性으로 나타나는 경우 시조가 주는 단아함을 반감할 것은 물론 詩的 긴

장의 해이를 초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三行詩六十五篇』에서 13편의 長時調를 창작하였으나 여기서는 단 1편으로 長時調도 창작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前期 시조집 『草笛』이나 『三行詩六十五篇』에서 나타나는 表記方式은 모두 1장 1행의 章別配行으로 非音步式 표기이나 『향기 남은 가을』에서는 1장 2~4행의 句別配行의 表記方式을 보이고 있다. 1장 3행의 句別 配行을 選好하지만 2행도 1편 4행도 6편이나 된다. 이러한 句別 配行 表記 方式은 律讀 時間을 지연시킴으로 하여 詩的 想像力을 증가시키는 시각적 效果와 정서적 效果를 함께 노린 것으로 보인다.

4) 『느티나무의 말』

艸丁의 마지막 시조집인 『느티나무의 말』에는 74편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74편의 수록 시조 중에 시조집 『三行詩六十五篇』, 『향기 남은 가을』의 중복 수록된 작품 37편을 제외하고 37편의 작품들⁶⁾의 表記方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4편의 작품들 중에 <느티나무의 말>, <돌>, 장형시조인 <密使>, 『三行詩六十五篇』의 <늘가에 앉은 소년>과 『향기 남은 가을』의 <빈 껌 짹>, 등의 작품을 제외하고 중복 수록된 작품까지도 1장 3行 3聯式 句別 配行의 표기방식이다. 37편의 작품을 표기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느티나무의 말>

形式 作品	作 品	作品數	表記類型	音步表記
短時調	단수 <이승에서>, <周邊에서>, <對象>, <느티나무의 말>, <靜止>, <광채>, <구름>, <촉촉한 눈길>, <흔적>, <空洞>, <봄>, <꿈 같은 생시>, <돌1>, <돌2>, <무늬>, <微物>, <종적>, <눈길 한번 닿으면>, <건너다 보면>, <11월의 聯想>, <日記秒>, <돌3>, <돌4>, <胎>, <소망>, <꽃꽃과 나비>, <봄 素描>, <金을 티끌처럼>, <詩나 한 편>, <풍경>, <寒蘭>, <가랑잎 위에>, <水沒>, <동굴>, <짚단 부스럭거리는 소리>, <풀잎>.	36	1장 3행 句別配行	非音步式
長時調	<密使>	1	散文式	

위 <표 4>의 표기방식은 38편의 작품들이 單首의 단시조로 句別 配行의 無音步式 表記 이다. <느티나무의 말>과 <돌>은 3장 모두 과음보 형태이며 <密使> 등은 行의 구분을 하지 않은 장형 시조이다. 單首 36편의 작품의 총 音數는 2,095자로 한편의 音數律은 52.6자로서 古時調의 音數보다 10 音數 정도 많다. 3장 6句 4音步의 율격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各章의 內句 첫 音步는 3音數가 85%이다. <촉촉한 눈길>, <아침素描>, 의 초장 첫 음보 음수는 2이고 <꽃꽃과 나비>의 초장 첫 음보의 音數는 4 이다. <空洞>의 中章 첫 音步 音數가 2이다. <돌>의 3장 내

6) 『三行詩六十五篇』의 <억새풀>은 연시조로 수록되었으나 『느티나무의 말』에서는 <억새풀 1>, <억새풀 2>로 독립하여 2편으로 수록되었다. 『향기 남은 가을』의 <흔적>이 『느티나무의 말』에서 <표시>로 제목만 바뀌어 수록되었으며, <입춘 가까운 날>, 이 제목을 立春으로 단축하여 수록했다. 본고에서는 동일한 작품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구 첫 음보의 音數는 5로서 『느티나무의 말』에 수록된 36편의 作品의 3장 內句의 첫 音步는 <돌>의 5音數를 제외하고 33편이 3音數만으로 표기되었다.

3. 艸丁 時調 表記方式의 變貌樣相

1) 1章 1行 單聯式 章別 配行 표기 방식

『草笛』의 <白磁賦 1연>과 『三行詩六十五篇』의 <蘭이 있는 房>에 나타나는 表記 方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찬서리 눈보래에 절개 외려 푸르르고
바람이 절로 이는 소나무 굽은 가지
이제 막 백학 한쌍이 앉아 깃을 접는다

<白磁賦 1연>

蘭 있는 房이든가 마음귀도 밝아온다.
얼마를 닦았기에 눈빛마저 심심하고
흰 장지 九萬里 바깥, 손 내밀듯 뵈인다.

<蘭이 있는 房 全文>

위의 두 作品의 表記 樣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艸丁은 음보의 구별을 하지 않고 창작하고 있다. 음보의 구별은 律讀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장치이다. 非音步式 표기방식은 율독자의 재량에 맡겨 놓은 表記 方式으로 音步化하여 律讀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점도 있다. 또 시적 긴장을 강화시키거나 의미의 함축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艸丁의 非音步式 表記는 188편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단시조가 93편, 연시조가 72편, 長時調가 18편, 기타 2편이다. 音步式 表記는 『느티나무의 말』의 7편이다. 1장 1행의 章別 配行의 표기 방식은 前期 시조집인 『草笛』의 39편 『三行詩六十五篇』의 52편이다. 後期 시조집에서는 이러한 章別 配行의 표기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2) 1章 3行 1聯式 句別 配行 表記

후기 시조집인 『향기 남은 가을』에 이르면 시조의 각장을 3행 1연식으로 하는 구별 배행의 표기방식을 보이고 있다. <白磁>를 비롯한 31편과 『三行詩六十五篇』⁷⁾의 작품이 1章 3行 3聯式 句別 配行 표기 방식이다. 초정의 마지막 시조집인 『느티나무의 말』에 수록된 작품 37편 모두가 1章 3行 3聯式 句別 配行 표기 방식을 하고 있다. 『향기 남은 가을』의 <雨後> 작품에서 표기방식을 살펴보자.

빗물
고인 자리에

7) <凋落>, <작한 魔法>, <蘭 있는 房>, <不在>, <無緣>, <어느 날>, <물빛 속에>, <傳說 1>, <傳說 2> 등의 작품이 『三行詩六十五篇』에서는 1장 1행의 章別 配行의 비음보식 표기방식이, 『향기 남은 가을』에서는 1장 3행의 3聯式 句別 配行의 表記 方式을 보이고 있다.

아침 솔빛이 잠긴다

멀리서
종소리 울려와
그림자 위에 얹히고

지금은
돌도 구름도
서로 눈길을 맞춘다.

<雨後 全文>

위의 <雨後>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장의 각 장 內句 첫 音步를 1행으로 하고, 둘째 音步는 2행으로, 外句는 1행인 1章 3行 1聯式의 表記方式을 보인다.

3) 1章 3行 2聯式 句別 配行 表記

다음에서 보는 表記 方式은 1章 3行 3聯式의 句別 配行 표기와 類似하지만 내구 첫 음보를 1행으로, 둘째 음보를 1행 1연으로 하고, 외구를 한 행 띄어서 1聯으로 하는 1장 3행 2연식이다. 이러한 表記方式은 『三行詩六十五篇』의 <凋落> 『향기 남은 가을』의 <封書>와 <잎지는 나무> 등이다. 表記方式은 다음과 같다.

잠 깨인
희부연 창살

전생을 교신하는 새벽입니다.

무심도
사무치는 진정

느릅나무 연초록 속잎입니다.

봉한 글
점자와 같아

마음으로 더듬어 읽습니다.

<封書 全文>

<封書>에서 나타나는 表記 方式은 各 章의 內句를 2行으로 하는 1聯과 外句를 1行 1聯으로 하는 各 章을 2聯으로 하여 短時調 한 편을 6聯으로 하고 있다.

4) 1章 2行 2聯式 句別 配行 表記

『향기 남은 가을』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 단 한편에 나타나는 특별한 표기 방식이다. <悲歌>

에서는 1장2행 句別 配行을 따르면서 終章만 따로 떼어 1章 2行 2聯의 독특한 표기방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꼭대기에도
자옥한 귀뚜라미 소리,
이미 잃어버린 밤을
울울이 자아올린다.

알것다 알것다
그만하면 알것다.

남루한 영혼들
짜고 매운 양념으로
푸성귀 다루듯
그 살갗 치대고 있다.

알것다 알것다
그만하면 알것다

깎아지른 벼랑 밑
강물은 숨을 죽이고,
홀이불 같은 달빛
강물 위에 깔려 있다.

알것다 알것다
그만하면 알것다.

<悲歌 全文>

<悲歌>는 短時調의 3聯作으로 각각의 章을 2行으로 하였다. 그리고 終章만 떼어내 2聯의 句別 配行의 表記方式으로 “알것다 알것다 그만하면 알것다”가 終章으로 民謠와 같이 후렴구로 3회나 反復되는 독특한 構造이다.

5) 1章 2行 1聯 句別 配行 表記

1章 2行 1聯 句別 配行 表記 方式은 三章의 各 章을 内外句로 分離하여 1行으로 하는 2行 1聯의 表記方式으로 『향기 남은 가을』에 收錄된 작품들 중에 『三行詩六十五篇』의 <꿈의 蓮꽃>에 나타나는 표기방식은 다음과 같다.

물 속에 잠긴 구름
천년도 덮어 줄 너의 이불

네 혼자 귀밑머리 풀고
문풍지 우는 한밤중

어느 뉘 두레박이 퍼올리리오
저 질푸른 꿈의 蓮못.

<꿈의 蓮못 1연>

이 표기 방식은 初章·中章·終章의 內句나 外句를 分離하여 三章을 內句 3行 외구 3行으로 配行하는 表記方式이다. 일찍이 六堂 최남선의 『百八煩惱』 全 作品이 이러한 表記方式을 하고 있다. 『향기 남은 가을』에 수록된 『三行詩六十五篇』의 <꿈의 蓮못> 단 한 편에만 나타나고 있다. 各 章을 2行으로 나눈 것은 時調가 3장 6구라는 側面에서 內句와 外句를 따로 떼어 한 行으로 表記한 것이다.

6) 1章 4行 1聯 單聯式 句別 配行 表記

時調의 形式이 3章 6句이고 1장은 內句 2音步와 外句 2音步 4音步로 모두 12음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율독의 편의를 위해서 1章을 4行으로 하는 1聯式 표기 방식이다. 『향기 남은 가을』의 <뒤안길>, <어느 골짜기>, <못물 1>, <못물 2>, <못물 3>, <꽃과 눈물>, <香囊> 등이며 『三行詩六十五篇』의 <은행 잎>은 1章 1行 單聯式 章別 配行의 表記가 『향기 남은 가을』에서 1章 4行 單聯式 句別 配行으로 表記 되었다. 『향기 남은 가을』에 수록된 <뒤안길>의 表記方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 마음속
으늑한 곳에
있 지는
뒤안길 있다

이런 때
네 마음속에도
인적없는
뒤안길 있다

어쩌다
한 번쯤 되돌아보는
아무도 모르는
그 뒤안길...

<뒤안길 全文>

<뒤안길>의 1章 4行 1聯式 句別 配行은 율독의 편의를 위한 표기 방식이다. 각각의 장이 4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표기방식은 1행이 1音步로 되어 있어서 律讀 時 지연이 따르지 않는 音步式 표기 방식이다.

『향기 남은 가을』에 수록된 <師弟>는 3章 중 初章 終章은 1章 3行의 1聯式 句別 配行이나 中章만 1章 2行 1聯 句別 配行 표기 방식을 보이고 있다. <가을 열쇠>는 2연으로 된 연시조로 1章 4行 1聯의 句別 配行이나 첫째 聯의 終章만 3行으로 되어 있고 둘째 연은 中章만 1章 3行 1聯의 句別 配行 표기 방식이다. 印刷上의 오류로 보기 힘든 表記方式이다.

3. 結論

이상의 論議를 정리하면 이렇다. 表記 樣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艸丁의 前期 시조집 『草笛』과 『三行詩六十五篇』에 수록된 105 편 중 長時調를 제외한 연시조 2~5연의 작품 70편을 포함한 91편이 1章 1행의 단연식 章別 配行 표기방식을 보이고 있다. 『향기 남은 가을』에 수록된 46편의 表記方式 樣相은 1章 3行 3聯式 句別 配行 表記方式을 보인다. <白磁>를 비롯한 31편이 1장 3행 3연식 句別 配行 表記方式이다.

『느티나무의 말』의 74篇의 作品들 중에 <느티나무의 말>, <돌>, 長型時調인 <密使>, 『三行詩六十五篇』의 <늑가에 앉은 少年>과 『목을 갈다가』의 <祭器>, 『향기 남은 가을』의 <빈케짝> 등의 작품을 제외한 중복 수록된 작품까지도 1장 3행 3연식 句別 配行 表記方式이다.

表記 方式 樣相은 크게 보아 艸丁의 前期 시조집 『草笛』과 『三行詩六十五篇』에 수록된 105 편 중 長時調를 제외한 연시조 2~5연의 작품 70편을 포함한 全 作品 91편이 1장 1행의 單聯式 章別 配行 非音步式 表記方式이다.

後期 시조집인 『향기 남은 가을』과 『느티나무의 말』의 1장 2~4행의 1~3연식의 句別 配行 表記 方式 중에서 1章 3行 3聯式 句別 配行 表記는 後期 시조집 作品 87편 중 71편으로 80% 이상이다. 後期 時調集의 80% 이상이 1章 3行 3聯式의 句別 配行 表記方式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表記 方式은 1章 1行 單聯式 章別配行의 傳統的 古時調의 표기 방식에서 나타나는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았다. 艸丁의 이러한 시도는 文學性을 위주로하여 聽者보다 讀者에 철저하게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艸丁 時調에 나타나는 다양한 表記 方式은 첫째, 視覺的 효과를 목표로 形式과 內容의 美的價値를 확대하는데 있음을 알게 한다. 둘째, 律讀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셋째, 음보의 구별을 쉽게 하기도 한다. 넷째, 律讀의 시간을 遲延시킴으로서 意味의 확대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장 1행 單聯式 章別配行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表出의 獨創性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는 것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資料

- 金相沃, 『草笛』, 水郷書軒, 1947.
_____, 『三行詩六十五篇』, 亞字房, 1973.
_____, 『詩와 陶磁』, 亞字房, 1975.
_____, 『향기 남은 가을』, 尙書閣, 1989.
_____, 『느티나무의 말』, 尙書閣, 1998.
閔 暎, 『김상옥 시전집』, 창비, 2005.

2. 單行本

- 金大幸, 『韓國詩歌 構造研究』, 三英社, 1984.
李泰極, 『時調概論』, 반도출판사, 1978.
_____, 『時調의 史的 研究』, 선명문화사, 1974.
林鐘贊, 『現代時調論』, 國學資料院, 1987.
_____, 『현대시조 탐색, 국학자요원』, 2004.
張敬烈, 『불과 얼음의 시혼』, 태학사, 2007.

3. 學位論文

- 周康植, 「現代時調의 樣相 研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李滌旭, 「時調의 韻律構造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崔興烈, 「艸丁 金相沃의 時調文學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9.

4. 一般論文

- 金相沃, 「時調 創作의 辯」, 『時調學 論叢』, 제11권 제1호, 韓國時調學會, 1995.
_____, 「詩와 陶磁」, 『墨을 갈다가』, 창작과 비평사, 1980.
李滌旭, 「近代時調의 定型性 考察」, 『온지논총』, 제5권, 온지학회, 1999.
_____, 「時調의 音步 分割에 대한 一考察」, 『時調學 論叢』, 제11집, 韓國時調學會, 1995.
林鐘贊, 「時調 表記樣相 研究」, 『時調學論叢』, 제16집, 韓國時調學會, 2000.
_____, 「現代時調와 音數 統制」, 『國語國文學』, 제32집, 釜山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5.
崔興烈, 「金相沃 時調에 發現된 文學觀」 『語文論叢』, 제39집, 中央語文學會, 2008.
_____, 「艸丁 金相沃 時調에 나타난 自然觀」, 『時調學論叢』, 제30집, 韓國時調學會, 2009.

최태웅 소설의 작중 인물 고찰

-결손인물형을 중심으로-

김효석(남서울대학교)

<차례>

1. 연구의 목적
2. 최태웅 소설과 ‘결손인물’ 고찰의 의미
3. 결손인물형과 작가의식의 관계
 - 3-1. 신체적 결손 인물과 情과 관용의 미학
 - 3-2. 사회적 결손 인물과 주관적 현실인식의 한계
 - 3-3. 가정적 결손 인물과 결손 극복의 의지
4. 결론

1. 연구의 목적

1917년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난 최태웅은 1939년 <문장>에 「바보 용칠이」, 「봄」, 「항구」를 잇달아 발표하며 문단에 등장한다. 해방 직후에는 단신 월남하여 <민주일보>, <민중일보>, <부인신보>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1946년에는 조연현, 서정주, 김동리 등과 <청년 문학가 협회>를 결성하여 문단의 중심에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간다.

이후 그는 1979년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많은 소설을 창작, 발표하였으나 이민 후에는 창작활동이 뜸해진다. 1996년에는 ‘최태웅 문학 전집’의 발간으로 미주문학상을 수여받고, 1998년 8월 9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작고한다. 하지만 문학전집이 발간된 이후 현재까지 최태웅과 관련된 석,박사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에 대한 연구가 이처럼 미흡한 이유로는 1979년 도미하여 문단의 관심이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점¹⁾, 전후 최태웅이 보여주는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문학적 한계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태웅의 문학 활동은 식민지 시대는 물론 해방 전후, 한국전쟁 이후 60년대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그의 소설은 격변기에 대응하는 문학인의 현실인식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본고는 기존의 최태웅 연구²⁾가 해방전 발표되었던 소설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단순히 그를

1) 한국문학사에서 최태웅은 해방 직후 좌, 우 이데올로기의 혼란 속에서 우익 측을 대변하는 논객으로 평가되거나 전후 세대에 대한 단순한 묘사에 치중한 소설가로 언급되어 왔다. 문제는 그가 월남 이후 사상성이 농후한 문학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규명과 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2) 최태웅에 대한 논의는 1940, 50년대 문학사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전쟁, 전후문학의 일부로 최태웅을 꾸준히 언급하고 소개한 연구자로는 신영덕을 꼽을 수 있다. (신영덕, 『한국전쟁기 종군작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휴머니즘과 서정성을 보여준 작가 정도로 규정하거나, 전쟁 전후의 작가의식만을 천착하는 단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고는 최태웅 소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소설속에 등장하는 인물형과 그 형상화 방식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최태웅은 소설을 창작함에 있어 ‘사건’과 ‘스토리’ 전개보다는 다양한 인물형을 창조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원초적이고 복잡한 심리를 표현하려 애썼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 속의 인물을 현실의 작가 또는 작가 주변의 인물과 직접 접목할 수는 없다. 또한 소설이 등장인물을 아무리 훌륭히 창조해 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공적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³⁾ 하지만 동일한 논리로 소설속 인물에 대한 고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설 속의 인물은 작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의도적으로 재창조한, 사회인식의 특수성에 의해 가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설속 인물에 대한 탐구는 최태웅, 나아가 그를 포함한 전후 작가의 현실인식을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와같은 사실들을 전제로 최태웅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인물 유형과 그 형상화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당대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작가의 현실인식을 구명(究明)해보았다.

2. 최태웅 소설과 ‘결손인물’ 고찰의 의미

최태웅의 소설에는 작가, 노동자, 농민, 간호사, 매춘부, 군인 등 다양한 직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소설 속 인물들의 현실 대응방식 또한 다양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⁴⁾이 있는가 하면, 현실의 모순에 정면 대결하는 인물⁵⁾들도 있다. 전통적 여인상에 기초한 아니마적 인물형⁶⁾에서 서구적이고 유희적인 요부형의 여성⁷⁾까지 여성의 형상화 방식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은 인물형이나 형상화(묘사)방식의 다양성은 역사적 현실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설에 반영하려 했던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최태웅이 당대의 현실 반영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면 역사적 격변기에 창조된, 일제시대 「항구」(1940)의 ‘곽서방’이나, 「장손이」, 그리고 해방직후 「무엇을 할 것인가」(1946)의 ‘나’, 한국전쟁기 발표한 「전후파」(1951-1952)의 ‘동규’ 등을 대표적 인물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당대 현실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인물들로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모두, 그들을 사회의 중심과는 변별되게 만드는 결손의

또한 안미영은 전후 지방신문에 연재된 최태웅의 미발굴 장편을 발굴하여 최태웅의 전후인식을 분석한 바 있다. (안미영, 「최태웅 소설에 나타난 전후(戰後)인식」-전후(戰後) 미발굴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제 42권, 語文研究學會, 2003.8.) 이밖에 「바보 용칠이」의 바보의 의미를 분석한 김미복의 연구가 있다. (김미복, 「「바보 용칠이」에 나타난 바보의 의미」, <국어과 교육>제 12권, 부산교육대 국어교육연구회, 1992. 2.)

3) 오양호, 『한국 현대 소설과 인물형상』, 집문당, 1996, 14쪽 참조.

4) 이같은 성격의 대표적 작중인물로는 「바보 용칠이」의 ‘용칠이’, 「타인」의 ‘학수’ 등이 있다.

5) 대표적 작중인물로 「항구」의 ‘곽서방’, 「소」의 ‘용득이’, 「제삼자」의 ‘노마’, 「된서리」의 ‘김교장’ 등이 있다.

6) 「혈담」, 「유명의 경지에서」의 ‘숙희’, 「만춘」의 ‘애옥’, 「맞선」의 ‘강원도 아주머니’, 「영길의 엄마」의 ‘영길의 엄마’ 「나의 주변」의 ‘미스 박’ 「여인도」의 ‘덕실이’ 「인간가족」의 ‘정혜’, 「역풍의 계절」의 ‘아내’ 등이 이와같은 인물형에 속한다.

7) 대표적인 작중인물로 「항구」의 ‘막득이’ 「허기」의 ‘미스 마리’, 「물에서」와 「대포집에서」의 ‘평순이’ 「김노인 둘 았다」의 ‘장언니’ 등이 있다.

징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태웅 소설 속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 ‘결손’의 인물들은 작가의 개인적 상흔(컴플렉스 등)이나 독특한 사회인식이 반영된 소산물로 여겨진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최태웅 소설의 작중인물들을 그들이 가진 결손징표에 따라 ‘신체적 결손형’ ‘사회적 결손형’ ‘가정적 결손형’으로 유형화하여 고찰하였다.

하지만 이와같은 유형별 고찰에 있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우선 유형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태웅 소설 속 인물들을 모두 본고의 세 유형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가능했다.- 이에 대해선 보다 유연한 시선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손인물들의 신체적 결손은 사회적, 가정적 결손을 낳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며 반대로 사회적, 가정적 결손이 신체적 결손을 낳는 등 하나의 인물이 두가지 이상의 결손징표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또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이들 유형화된 인물들이 보여주는 정신적 결손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 세 유형의 인물들은 대체로 정신적 혼란, 정체성 상실, 심한 경우 정신적 병리 현상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 결손’ 인물들의 등장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에서 비롯되는 근대소설의 보편적 현상으로 이에 대한 유형화작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맹점에도 불구하고 유형화작업은 정밀한 인물 분석은 물론 이를 통해 작가의 숨겨진 창작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소설 속에서 주동인물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뚜렷한 결손의 원인을 기준으로 결손인물의 유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의 표는 최태웅 소설의 결손형 인물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아래 표 참조.)

*신체적 결손징표 - 불구, 병자

*사회적 결손징표 - 빈곤, 계층적 차별에서 오는 결손

*가정적 결손징표 - 사별(死別), 이혼(離婚), 파혼(破婚), 배우자의 외도

작 품	발표연도	결손징표에 따른 작중 인물의 유형		
		*신체적 결손 인물	*사회적 결손 인물	* 가정적 결손 인물
바보 용칠이	1939			용칠이, 필녀
봄	1939		사님이	
취미와 딸과	1940	선비	푸연영감, 억만	
항구	1940	곽서방	곽서방, 장손이, 막득이	곽서방
산사람들	1941		만수, 용순	원님이
매춘부	1946		간호사	
사탕	1946		순녀, 남편	
강변	1946		A	
사과	1947		윤	
혈담	1948	숙희		
유명의 경지에서	1948	숙희		
스핑크스의 미소	1948	나	경숙	
고향바람	1948		몽석	
월경자	1948		그	
소	1949		김푸언, 용득이	
참새	1949	수운		
차창	1950	윤		부옥
전후파	1951-52		여옥	동규, 여옥

대가 외 삼제	1952		나, 매춘부	
자매	1953		채경, 채옥	채경, 채옥
빠이론의 수명	1953	윤		
꿈깨인 아침	1954		수진, 복실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1954		세원	
타인	1955	아기		학수
만춘	1956	애옥		
살인문제	1956			나
맞선	1956			나, 강원도 아주머 니
속, 상처 이후	1957			나
버섯	1957	도련님	예순이	예순이
나의 주변	1957	나		
과거의 사람들	1957			윤, 김여사
제삼자	1957	노마	노마, 순자, 민돌, 영 만	노마, 순자, 민돌
문단으로 가자던 사람	1958		독각	독각
개살구	1958		동규, 켈너	동규
살처자	1959		영환	영환, 창숙
3인가족	1959			김대령
여인도	1959		덕실	덕실, 중진
인간가족	1960			준섭, 금옥모
허기	1961			창수모
된서리	1961		박교사	
그 고요하던 산간	1962		장손, 차손, 쇠돌	
물에서	1964		평순이	평순이
영길의 엄마	1964		영길모	영길모
대폿집에서	1964		평순이	
역풍의 계절	1964	아내		동준
계기	1965			동규, 유마담
서울은 하직이다	1969			진수
죽음의 자리	1970			나
김노인 돌아왔다.	1974		김마담, 장언니, 모란	
말세	1975			메기
하늘을 보아라	1976	초숙이		

3. 결손인물형과 작가의식의 관계

3-1. 신체적 결손 인물과 情과 관용의 미학

최태웅 소설의 신체적 결손인물은 ‘다리를 절거나’, ‘한쪽 팔을 못 쓰는’ 신체적 결손 징표⁸⁾를 지니거나 관절염, 결핵 등을 앓는 병자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들은 신체적 결손을 갖

8) 신체적 결손징표는 정상적인 신체를 결여한 인간형에서 나타난다.

정상에서 벗어난 몸을 지닌 인간이란 훼손, 결손된 몸, 불구자, 이상한 모습을 지닌 인물들로서 ‘-’징표로 보며, 정상적인 신체의 인간들과는 변별된다. 한국현대사문학에 나타나는 변별 자질로 병어리, 장님, 외눈, 문

고 있더라도 그들의 결손적 상태를 비유하는 卑稱(절름발이, 외다리 또는 외팔이 등)으로 불려지지 않는다. 이는 작가가 경멸이나 조롱, 또는 회화화의 대상으로 신체적 결손인물을 형상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신체적 결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곳곳히 헤쳐나가려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항구」(1940)의 ‘곽서방’은 ‘한쪽 밖에 못쓰는 팔을 허우적거리며’ 힘들게 지계를 지지만 ‘아들 죽은 손자’마냥 아끼는 ‘장손이’에게 호떡 하나 사줄 수 없을 만큼 빈곤에 허덕인다. 여기서 항상 ‘고의춤이나 저고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곽서방의 오른손은 현실의 궁핍함과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⁹⁾

「제삼자」(1957)의 노마가 지닌 ‘팔병신’의 신체적 결손 또한 그의 황폐한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허가 하숙집의 사환노릇을 했던 ‘노마’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트럭에서 뛰어 내리다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된다. 한편 노마를 마음에 두고 있던 ‘순자’는 사창가 포주인 언니의 영향으로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결국 순자는 경찰의 단속에 걸려 소년원으로 가게 되고 그 곳에서 만난 민들을 따라 무작정 상경하게 된다.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서울에서의 삶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순자는 다시 사창가를 전전하게 되고 노마와 해후하게 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노마나 순자, 민들이는 고아라는 가정적 결손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로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정을 준다. 노마는 자신을 버리고 민돌이와 도망간 순자를 미워하기는커녕 사창가를 전전하는 그녀를 동정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결국 순자는 노마의 사랑으로 그의 아이를 갖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된다.

여기서 노마의 신체적 결손은 험난한 삶의 비유이면서 동시에 노마의 의지를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적 결손은 빈곤이나 결핍을 가져온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되기보다는 주동인물이 삶의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상대자의 신체적 결손은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켜 주인공의 휴머니즘을 이끌어내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만춘」(1956)의 ‘나’는 ‘작대기 신세에 명실상부한 병신 맛까지 ’보고 있는 신체적 결손 징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애옥’은 연애에서는 불리한 ‘나’의 신체적 조건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사랑을 갈구하고, 애옥이 앓게 되는 결핵 또한 ‘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

「역풍의 계절」(1964)에서 폐결핵을 앓고 있는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내는 독수공방하는 남편이 안타까워 동준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동준은 출판사의 미스홍, 종로 뒷골목의 작부집 등을 전전하면서도 아내를 끝내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태웅 소설에서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상대자의 신체적 결손을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냄으로써 ‘정과 관용’의 미학¹⁰⁾

둥이, 외다리, 절름발이, 외팔, 왼손잡이, 긴 발가락, 추물, 곰보 등의 일차적 징표들이 있고, 불임, 긴턱, 거인, 유령, 상투, 옷 등으로 나타나는 2차적 징표들이 결손된 신체공간으로 표상된다. (한혜선, 『한국소설과 결손인물』, 국학자료원, 2007. 13쪽.)

9) 신체적 결손 징표는 시대와 사회적 고통, 도덕적 결여, 현실적 삶의 비참함을 표상하는 은유와 상징이다. 절름발이는 정상적 신체의 인물과 대비됨으로써 현신적 삶의 어려움을 보다 극명하게 시각화하고 있다. 비틀거리는 다리는 일상적 현실에서 정상적일 수 없는 일탈된 세계를 의미하는 은유이다. (위의 책, 285쪽.)

10)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주인공의 이와같은 관용적 태도는 가정적 결손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까지도 감싸안은 포용력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포용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정’의 발현으로 가능해진다. 「봄」(1939)의 숯구장이 ‘사님이’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까지 도망간 ‘암전이’를 사창굴에서 구해내고 가정까지 이루어내는 모습, 「하늘을 보아라」(1976)의 ‘한수’가 정신이상으로 자신을 칼로 찌르려한 ‘초숙’이와의 옛정을 그리워하는 장면 등은 주인공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한다. 한수는 오히려 초숙의 자살 소식에 ‘어쩌면 그 후에라도 그날 입은 상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않았는지’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을 소설 속에 구현한다.

또한 상대의 신체적 결손을 포용하는 주인공의 휴머니즘적 성격은 결손의 아픔을 공유함으로써 계층과 신분의 차이로 생긴 인간 사이의 공고한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취미와 딸과」(1940)에서 ‘선비’는 옆집 소작농의 아들 억만이가 번번히 아버지 강주사에게 혼쫓이 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본다. 강주사의 싸움닭에 물려 피압철한 몸으로 비틀거리는 억만이에 닭은 지주 강주사와 힘없는 소작농인 푸언영감과 억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선비는 계층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억만이를 스스로 없이 대하고 억만이는 이러한 선비를 연모한다. 하지만 억만이는 순응적인 푸언영감과 달리 애지중지 길러온 싸움닭으로 강주사에게 보기 좋게 복수한다. 억만이가 싸움닭을 얻기 위해 선비가 선물한 하모니카를 내어놓는 모습은 강주사에 대한 억만의 증오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보여준다. 하지만 강주사의 완력에 억만이가 쟁까도리(싸움닭)을 다시 빼앗기면서 이같은 역전 관계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싸움닭에게 선비가 공격을 당하고 선비는 ‘버통다리’의 불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선비의 불구화는 지배층의 과욕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읽혀지지만 이와같은 신체적 결손은 소작농의 아들과 지주의 딸이라는 기존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감히 넘볼수 없었던 주인집 딸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억만이를 괴롭히기만 했던 강주사도 억만이의 눈치를 보게 되는 처지가 된다. 이처럼 선비의 결손징표는 공고하게만 느껴졌던 강주사네와 푸언영감네의 계층적 차이를 무화시키고 있다.

「버섯」(1957)의 ‘예순이’와 ‘도련님’ 또한 결손으로 인한 관계의 역전을 보여준다. 예순이는 고아나 다름없는 그녀를 거두어준 주인집 도련님을 연모한다. 떠돌이 자철이를 따라나선 것도 자철이가 주인집 도련님을 닮아서였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매음굴을 전전하는 처지로 몰리게 된다. 그러나 ‘도련님’의 오랜 지병은 예순이를 다시 도련님의 슬하로 들어갈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처럼 예순이의 가정적 결손과 도련님의 신체적 결손은 신분적, 계층적 경계를 넘어 서로의 ‘정’을 다시금 확인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결손을 통한 관계의 역전은 관절염으로 오랜 병원생활을 했던 작가의 경험이 담겨진 자전적 소설들에도 드러난다.¹¹⁾ 「차창」(1950)의 ‘윤’¹²⁾은 관절염의 후유증으로 의족(義足)을 착용한 병약자로 오래전 자신을 간호한 부옥을 못 잊어 한다. ‘윤’은 부옥에게 ‘애육’을 느끼지만 자신이 가진 신체적 결함 때문에 부옥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옥 또한 결혼 후 ‘반년 만에 소박을 맞은’ 상처로 인해 ‘윤’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지다. 결국 이들은 상대가 가진 결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케 된다. 이들은 결손으로 인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기에 결손의 상대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하여 휴머니즘의 실천을 보여주기에 유리한 인물형이라 할 수 있다.

「스핑크스의 미소」(1948)에서 ‘소년’이 죽어가는 여직공 경숙을 보면서 느끼는 동류의식 또한 소년이 가진 ‘관절염과 신경통’이라는 결손징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병환’¹³⁾이란

것이다.

11) 연작 형태의 자전적 소설 「혈담」(1946), 「유명의 경지에서」(1946)의 간호사 ‘숙희’와 병약한 ‘나’의 관계설정도 이와 같다.

12) 해방 후 최태웅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윤’은 작가의 병력과 연관하여 분신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사과」(1946)와 「빠이론의 수명」(1953)의 ‘윤’, 「전후파」(1951-1952)와 「개살구」(1956)의 ‘동규’는 작가의 실제 모습이 투영된 대표적인 분신형 인물이다.

신체적 결손은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경숙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써 ‘소년’은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여직공의 얼굴에서 세상사를 초월한 스펅크스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최태웅의 소설에서 신체적 결손 징표는 작중 인물들을 보다 겸허하게 만들어 소통하기 쉽지 않은 다른 계층과의 혼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매개가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최태웅 소설 속 인물들의 결손 징표는 ‘인간 본연의 정과 관용’의 미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설 속 인물들의 신체적 결손은 그들이 처한 열등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 결손인물들은 신체적 결손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비참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또한 자전적 성향이 강한 최태웅의 신변 소설에서, 신체적 결손 인물들은 상대자의 다양한 결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휴머니즘을 발휘하는 미덕을 보인다. 때론 신변소설 속의 신체적 결손 인물들이 자신의 결손 징표로 인한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는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들로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지닌 외형적 결손을 동정하고 감싸주려는 ‘착한 심성’의 소유자들로 미화된다. 그리고 이는 최태웅 소설의 휴머니즘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작가는 자신이 앓았던 관절염과 이로 인한 후유증이 오히려 문학을 하게 하는 결정적 동인이 되었음을 토로¹⁴⁾한 바 있다. 신체적 장애와 오랜 병원생활은 작가를 인간존재 자체에 대한 천착으로 이끌었고, 작가는 ‘신체적 결손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인간의 결손을 감싸안은 휴머니즘의 구현을 꿈꾼다. 이들 ‘신체적 결손인물’들이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한국전쟁 이전의 소설들에 보다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전쟁을 겪은 후 인간 본연의 심성에 대한 작가의 회의와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2. 사회적 결손인물과 주관적 현실인식의 한계

최태웅 소설에는 사회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거나 빈곤층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¹⁵⁾ 금전적 빈곤과 사회적 지위의 결여는 인간이 보편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에 이들 결손 인물들은 외부 현실에 대해 저항적 성향을 보인다. 또한 이들 사회적 결손인물들은 신체 또는 가정적 결손을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상적인 삶에 있어 불리한 조건들은 인간을 사회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내몰아 사회적 결손 인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결손이 사회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소설 속의 사회적 결손인

13) 「참새」(1949)의 수운이나 「빠이론의 수명」(1953)의 ‘윤’도 신체적 병약함과 오랜 병환으로 세상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는 신체 결손형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4) 최태웅은 19세에 축구로 인한 고관절 탈臼로 진남포 독립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끝에 불구가 되고 만다. 작가는 자신이 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열아홉살 때 病치고 그런 기막힌 病이 어디 있을까 싶은 關節炎에 걸려 가그만치 十八個月인가를 발코락 하나 짚작못하고 알른 사이 - 중략 - 어땠든 나는 層巖絶壁과 같은 거대한 悲運이 휩쓸자 變貌는 되고 人生은 슬퍼졌을망정 다시 감돌고 빠져 平野에 받듯이 文學이라는 외골수 흐름에 나를 떠왔다. 이것이 果然 하도 여러마리의 짐승을 잡으려고 精神없이 날뛰다가 바위를 드러받고 氣絶했던 개가 다시 깨어 傷處를 할타가 보니 곁에 想像도 못했던 고기가 노여웠던 것 같은 그런 格인지, 運命의 神도 여러 가지가 있어 나는 꼭 小説의 神이 부들어야할텐데 音樂이나 스포츠니 美術이니 하는 여러 가지가 붙어서 때버리기 爲한 運命의 手段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 (최태웅, 「나의 文學回顧錄」, <백민>, 백민문화사, 1949. 3., 63쪽.)

15) 이와 관련하여 배경열은 최태웅의 작품세계를 ‘서민성의 미학’으로 규정한 바 있다. (권영민 편, 『최태웅 문학전집 2』, 태학사, 1996, 438쪽. 이후 『최태웅 문학전집』→전집으로 표기.)

물들은 당대 현실의 모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소설 속의 사회적 결손 인물들은 작가의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최태웅 소설의 사회적 결손 인물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로는 「항구」(1940)의 ‘곽서방’, ‘장손이’, ‘막득이’ 등을 꼽을 수 있다. P항의 지게꾼인 ‘곽서방’과 대장간에서 보조일을 하는 곽서방의 단짝, ‘장손이’, 그리고 몸을 밀천으로 몇푼의 돈을 긁어 모으는 곽서방의 아내 ‘막득이’ 등은 자신들의 빈궁하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작가는 곽서방의 입을 빌어 이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원인을 ‘첫째, 주소를 일러주면 물어서라도 찾아가야 하는 무식을 면하고, 일본말을 향용 돌아가는 말귀만은 통해야 한다. 그쯤이라면 요령으로 때울 수도 없지 않으나 먼저 보증이 필요한데, 사람이고 돈이고 간에 곽서방을 보증해 줄 꼬나풀이라고는 없는 진남포(鎭南浦)다. 뿐이라면 또 모를 것을 세금이란 것이 다달이 그들의 등골을 할퀴다.’(전집1, 54쪽)로 밝히고 있다. 곽서방은 빈곤의 원인을 무식함과 연줄 없음이라는 개인적 원인과 불합리한 세금징수라는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모순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 갈등의 양상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적극적 대결의 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곽서방에게 ‘지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귀중한 도구이지만 그를 사회적 결손인물로 만드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소설 속 곽서방이 지게를 장손이에게 물려주는 장면은 그가 빈곤의 원인을 사회와 제도의 모순에 두기보다는 자신의 무능력(신체적 결손, 무식, 떨어져만 가는 체력)의 탓으로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곽서방은 자신의 결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는 장손이가 지게를 질만한 장정으로 빨리 자라기를(신체적 결손의 극복방식), 일본말을 배워(사회적 결손의 극복방식) 자신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곽서방이 죽는 순간까지 장손이에게 일본말 습득을 종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결손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사회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곽서방의 대결의식은 일본 제국주의가 아닌 아내 ‘막득이’를 향해 분출된다. 곽서방은 아내인 ‘막득이’가 항구의 건달들과 놀아나는 것에 분개해 그녀를 결국 살해하는데 ‘막득이’는 ‘肉慾’과 방탕이라는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기에 마땅히 죽어도 되는 인물로 전락한다.

선과 악의 극명한 이분법적 구도로 피지배층의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 「소」(1949)와 「인」(1977)도 표면적으로는 안티고니스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나 지주에 대한 비판¹⁶⁾이 드러난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적 결손의 근본적 원인이랄 수 있는 제국주의나 계급적 모순에 대한 천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소」의 ‘김푸언과 아들 용득이’, 「인」의 ‘둘치와 며느리 옥매’ 등의 사회적 결손은 ‘백초시와 동걸이’, ‘백좌수와 관주’로 상징되는 지배층의 비인간성과 도덕성 상실에서 초래된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작가는 주인공들이 지닌 사회적 결손의 원인을 사회와 제도의 모순으로 풀어내려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결함이나 인간이 지닌 도덕성 결핍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결손 인물들의 갈등양상은 극히 사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마는 것이다.

16) 해방직후 최태웅은 청년문학가 협회의 입장에서 이원조의 정치적 성향을 공격하며 그의 친일행적을 문제삼는다. 상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 친일행적에 대한 그의 신랄한 공격은 해방직후 작가의 일본 제국주의 비판의 성격을 짐작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태웅, 「비평의 윤리」, <민주일보>, 1946.9.8. 참조.)

「월경자」(1948)의 ‘나’가 보여주는 사회모순에 대한 순응적 태도도 현실 인식의 주관성에서 비롯된다. ‘나’는 단지 소련말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다수의 청년들에게 못매를 맞는데 이같은 폭력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소련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외세에 의존하려 했던 기회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과 스스로도 직간접적으로 그로 인한 혜택을 입지 않았냐는 자기 반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자기 반성이 객관적 정세의 판단은 뒤로 한 채 스스로의 도덕성 결여만을 거론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소설 속 ‘나’가 영문도 모른채 못매를 맞아야 했던 불합리한 모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작가가 월남민으로서의 지니게 된 콤플렉스의 발로로 읽힌다. 해방공간에서 ‘월남민’이라는 특수한 결손 징표는 뿌리뽑힌 자, 연고가 없는 자로서의 자의식을 심어놓는데 월남민으로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하지 않았냐는 순응적 태도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는 월남인이라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산주의와 연결지어 바라보았던 남한 사회의 정치적 편견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소극적 현실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월남민으로서의 콤플렉스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1954)의 ‘세원’이 월남 후 지게꾼으로 살면서도 ‘십여년 만리 타국으로 구름처럼 떠돌던 망명 시절’에 비해선 그래도 지금 ‘내 나라’가 있는 형편이 ‘문전걸식을 하더라도’ 나은 것이 아니냐며 스스로 위로하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세원은 남한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는 순응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월남 전 잠시 머물렀던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세원이 ‘이 남으로 넘어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의에 대한 세원의 환멸은 ‘쏘련군 병사에 의해 희롱 당하는 부녀자들의 비명’이나 ‘대낮에 총칼을 메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보따리를 털어 먹는 강도떼’로부터 얻어진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 세원의 공산주의 비판의 핵심은 ‘공산주의 = 인간성 상실’이란 부분에 맞춰진다.¹⁷⁾ 이처럼 작가는 사회적, 제도적인 모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결여한 채 사회적 모순을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으로 끌어내린다.

이와 같은 작가의 주관적 현실인식은 사회 모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결여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다. 5·16 군사혁명 이후 발표된 「된서리」(1961)는 작가의 주관적 현실인식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김교장’이 ‘이러한 세상에서는 시골에서부터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이나 5·16 군사혁명에 대한 간접적 미화, 장면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여당의원(당시 민주당)에게서 희망을 찾는 김교장의 모습을 통해 당시 정세에 부합하려는 작가의 현실 영합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다.¹⁸⁾ 「전후파」(1951-1952)에서 여옥을 찾아온 미군에 대한 ‘동규’의 지극히 주관적이면서도 우호적인 태도 또한 외세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최태웅의 해방기 소설과 비교해 볼 때 작가의 순응적 현실인식의 단면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17) 최태웅에게 있어 ‘반공테올로지’는 월남민으로서 뿌리를 내려야 했던 생존의 문제였으며 남한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는 구실을 한다. 1950년 최태웅은 구상, 조영암 등과 함께 대북심리전 요원으로 추천받아 정보국 첩보과의 선전모략실에서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반공이데올로기는 전시, 그리고 전후 남한정권(문단)의 정책과 부합되는 것이었다. (줄고, 『전후 월남작가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58쪽 참조.)

18) 1960년 출간된 『청년 이승만』과 1961년 발표된 「된서리」를 한 자리에 놓고 보면 작가의 정세 영합적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된서리」가 발표되기 불과 1년 전인 1960년 4.19의거 직전 발표된 『청년 이승만』과 『슬픔과 고난은 가는 곳마다』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승만의 독립협회활동에 대한 찬양이 주요 내용이다. 이 소설은 1959년 방영되었던 신상옥 감독의 영화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의 대본으로도 사용되었다.

있다.

이상 최태웅 소설에서 사회적 결손 인물에 대한 형상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의 현실 참여 의식을 짐작케 한다. 최태웅은 해방직후 민주일보 정치부장을 지내는 등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같은 사실이 소설에도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소설을 통해 보여지는 사회결손형 인물의 현실인식은 객관적 정세나 현실 파악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결손의 원인을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 ‘인간의 本然之性이나 양심’의 상실 문제로 귀결짓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최태웅 소설 속의 사회적 결손인물은 표면적으로 현실 참여적 성격을 띠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당시 정세에 영합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태웅이 작중인물의 입을 빌어 행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나 북한 현실에 대한 비판, 6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정세판단이 빛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작가의 비객관적이고 순응적인 현실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3. 가정적 결손 인물과 결손 극복의 의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태웅은 사회적 결손의 원인까지도 개인의 도덕적, 인간적 측면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작중인물의 신체적, 사회적 결손은 가정적 결손으로 이어지고 결손에 대한 극복의 방식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자매」(1953)에 등장하는 채경과 채옥 자매는 전쟁으로 인해 터전을 잃고 가족을 떠나 무작정 상경한다. 하지만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어린 자매가 생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후 자매는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까지 몰리게 된다. 이들의 도둑 행각은 처음에는 친구의 핸드백 속의 돈을 훔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대범해지면서 도덕적 불감증으로 이어진다. ‘순결하고 착하고 인정에 물르던’ 자매가 이와같이 전락하게 된 데는 물론 사회적 모순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작가는 이들 자매의 도덕적 타락을 더욱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결국 빈곤과 궁핍이라는 사회적 결손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도덕적 타락의 결과를 가져온 셈인데 작가가 이에 대한 극복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부산으로의 복귀다. 감옥을 가게 된 언니 채경이 홀로 남은 채옥에게 서울을 벗어나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장면 - ‘채옥아, 이제 아모 염녀 말구 넌 곳장 부산으로 가야한다. 언니의 힘은 아직 어머니의 힘에 대면 아모 것도 아니었어’(전집 2권, 287쪽.)-은 이러한 탈서울의 의지를 보여준다. 어머니(고향)로의 복귀를 통해 가정적 결손을 메우고 서울생활로 인해 빚어진 도덕성 타락을 회복하는 일이 전후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임을 작가는 채경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다.

도덕성 有無를 잣대로 한 서울/시골의 공간 구획은 「산사람들」(1941)과 「꿈깨인 아침」(1954), 「서울은 하직이다」(1969)로 이어진다. 「산사람들」의 ‘만수’와 ‘용순’, 「꿈깨인 아침」의 ‘수진이’와 그의 아내 ‘복실이’, 「서울은 하직이다」에서 ‘상준’과 ‘진수’ 등은 서울의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탈서울의 의지를 다진다. 도망치다시피 고향을 떠난 ‘만수’와 ‘용순’의 과거를 용서하는 ‘원님’의 포용력있는 모습에서 고향을 읽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원님’이는 이들의 ‘거지와 다름 없는’ 서울 생활을 청산케 하고 고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재결합은 상징적 가족의 복원을 의미하면서 고향회귀를 통한 결손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소설들의 작중인물들이 서울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것은 도덕성이 상실된 서울에선 사회적, 가정적, 신체적 결손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공통적 현실인식에 기반하

고 있다.

연작 형태로 발표된 「물에서」(1964)와 「대곶집에서」(1964)의 평순이 험난한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도 물으로 나오며 잃어버렸던 자기 내부의 순수성과 ‘사랑’에 다시 눈뜨게 되면서부터다. 평순이 보여주는 결손 극복의 의지는 인간 본연의 순수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상의 소설들이 결손을 극복하는 한 방식으로 고향(어머니)과 순수로의 회귀를 제시했다면 「바보 용칠이」와 「타인」은 배우자의 도덕적 타락을 정과 관용으로써 감내하여 가정적 결손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장>¹⁹⁾에 발표한 「바보 용칠이」(1939)에서 ‘용칠이’는 아내 필녀와 숙근이의 불륜관계를 관용으로 용서해 준다. 아내의 외도로 인한 아픔과, 상대방의 외도를 용인했다는 세상사람들의 조롱을 정(情)으로써 감내해 내는 것이다. 「타인」(1955)의 ‘학수’ 또한 아내의 외도로 인해 ‘불구로 태어난 아기’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을 결심한다. 학수의 휴머니즘은 바람난 아내와 친구의 도덕적 타락과 대조되면서 더욱 배가되는데 가정적 결손 상황을 또다른 가족 세우기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

최태웅이 꿈꾼 이와같은 새로운 가족 세우기가 완성되는 작품이 연작 형태로 발표된 「3인가족」(1959)과 「인간가족」(1960)이다. ‘군인’은 최태웅이 소설을 통해 가장 긍정적으로 형상화한 인물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김대령’ 또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버려진 설옥이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휴머니스트로 그려진다. 전후 김대령(준섭)은 설옥을 친자식마냥 아끼는 교사 정혜와 새로운 가정을 꿈꾼다. 전쟁으로 인한 준섭과 설옥, 정혜의 가정적 결손은 혈연이 아닌 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족 세우기로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준섭은 정혜와의 보금자리를 마련차 서울로 갔다가 설옥의 친모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설옥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설옥의 친모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자수성가하여 같은 처지의 전쟁 미망인들과 고아원을 운영하는 등 많은 부를 축적한 인물로 묘사된다. 설옥의 친모는 설옥과 함께 가정을 이루자며 준섭을 유혹한다. 그러나 준섭은 ‘재력’과 ‘설옥’을 앞세운 유혹-준섭의 입장에선 가정적 결손과 사회적 결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을 물리치고 정혜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 부분은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결손의 극복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작가의 결손 극복 방식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혜와의 정을 차마 끊지 못하는 준섭의 ‘도덕성’은 정혜가 준섭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설정으로 보상받는다.

이처럼 전후의 새로운 가족 세우기도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는한 무의미하다는 작가의 결손 극복 방식은 전후 작가의 주변을 소재로 한 자전적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喪妻 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작가의 가정적 결손²⁰⁾을 소재로 한 신변소설, 「외로운 사람들」

19) 최태웅이 소설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는 <문장>의 이태준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대로 <문장>을 통해 등단한 작가들로는 시부문에 김종한, 이한직, 박두진, 박남수, 조지훈, 박목월 등이며 시조부문에 조남평, 소설부문에 최태웅, 임옥인이 있었다.

최태웅과 임옥인의 해방 후 심경소설, 신변소설적인 특징은 이미 <문장>과의 관계에서 배태된 것이었다. 이들의 심경소설들은 사회와 관계 맺고 있는 총체적 개인으로서의 천착이 사라지고 사적 문제의 토로가 주가 되어 버리는 문학적 한계를 드러낸다. 그들의 소설창작은 <문장> 등단 이후 보여주었던 사적인 글쓰기의 영향력 아래 진행되는데 인간성에 대한 강조, 주변생활에 대한 토로, 외부현실인식의 주관성 등은 이들의 문학적 공유했던 특성들이다.

20) 최태웅은 1955년 喪妻하는데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신변 소설인 「살인문제」(1956)와 「속, 상처이후」(1957)에는 아내의 죽음이 전후의 혼란과 병원의 오진 등으로 인한 억울하고 비참한 것이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1976)과 「외롭지 않은 날들」(1978)에는 상징적 가족 관계를 통해 뿌리 뽑힌 자들의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엿보인다. 자칫 애욕의 관계로 치달을 수 있는 등장인물(매춘부 ‘진숙’과 출판사의 ‘미스민’)들이 가정적 결손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은지심으로 ‘나’와 결속하는 장면은 결손극복의 과정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영길의 엄마」(1964)의 ‘영길의 엄마’도 ‘인간 본연의 순수와 도덕성 회복’이란 측면에서 「전후파」의 ‘여옥’과 대비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물이다. 사회적, 가정적 결손을 지닌 ‘영길의 엄마’는 다방 종업원과 양공주들 사이를 전전하면서도 그들과는 달리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는다. 영길의 엄마는 팜프파탈적 이미지의 ‘여옥’과는 달리 전후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나’에게 고향을 느끼게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영길의 엄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남으로써 ‘나’의 상징적 가족 세우기는 실패한다.

이처럼 최태웅의 신변 소설에 있어 결손의 극복방식의 하나로 제시되는 새로운 가족 세우기는 현실 속의 작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실패한다. 전후 과거의 여인들과의 재회는 다시금 지난 날의 애욕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가족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결국 좌절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렇다면 자전적 소설 속의 ‘나’가 ‘여옥’(「전후파」)이나 ‘김여사’(「과거의 사람들」), ‘영애’(「추억을 밟는 사람들」) 등을 욕망하면서도 결국 그들과의 로맨스를 해피엔딩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 여인들에게 갖는 ‘나’의 양가감정에서 비롯된다. 이들 과거의 여인들은 순수했던 옛날의 그 시절을 회상케 하면서도 전후 각박한 현실 앞에 도덕성이 훼손된 인물들로 그려진다. 전후 척박한 환경 앞에 놓여진 여성들의 모성성 훼손과 도덕적 타락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나’는 그들에게 안주하지 못한다.

최태웅은 불가항력적인 전후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훼손 이전을 욕망한다. 이는 월남민들이 가졌던 고향에 대한 양가감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 뿌리 뽑힌 자들에게 월남 후 떠난 고향은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리게 되는 순수의 공간으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현실의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훼손된 공간이다. 특히 최태웅에게 있어서 고향은 공산화 이후 인간성이 상실된 부정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순수했던 그 시절을 상실한 여성, 이제는 변질되어 버린 고향은 현실의 삶이 척박하기에 작가에게 더 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 전후 최태웅이 신변소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전후 현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판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은 그의 가정적 결손과도 관련 깊다.

4. 결론

지금까지 최태웅 소설 속 작중 인물이 보여주는 다양한 결손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최태웅 소설 속 인물들이 대부분 결손인물들로 형상화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시대적 요구와 개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전후 소설에 있어 전쟁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결손의 인물들의 등장은 보편적 현상의 하나일 것이다. 최태웅 소설 속 인물들이 갖는 결손의 요인들 또한 이와같은 외부 환경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일제의 수탈과 해방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폐해, 한국 전쟁으로 빚어진 민족의 비극 등은 이들 결손인물들이 가진 사회적 배경을 이룬다. 또한 불구가 된 신체, 연고자 없는 서울로의 월남, 한국 전쟁 직후 상처(喪妻) 등은 최태웅 소설 속의 결손형 인물들을 설명하는데 개별적이고 특수한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최태웅이 이러한 결손인물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현실인식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작가는 이들 결손인물들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고 또한 그것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고찰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최태웅 소설 속 작중인물들이 지닌 결손의 징표들을 중심으로 신체적 결손인물, 사회적 결손인물, 가정적 결손인물로 유형화하여 이들의 형상화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결손 인물형의 특징으로는 첫째, 작가가 등단 이후 꾸준히 경주해 왔던 ‘인간 본연의 선한 본성과 도덕성’ 회복이란 주제를 드러냄에 있어 이들 결손형 인물들이 주인공의 휴머니즘을 배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하위계층의 입장에서 지배층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저항하는 데 있어, 결손형 인물들의 형상화는 하위계층의 삶의 척박함과 비참함을 드러내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셋째, 전후 최태웅이 창조한 소설 속 결손인물들은 대부분 작가의 생체험이 바탕이 된 분신형으로 작가의 현실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소설 속 결손 인물들에 대한 고찰이 최태웅 문학의 의의와 그 한계를 규명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데 있다. 우선 최태웅 소설에 있어 신체적 결손인물들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겸허해짐으로써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가정적 결손 인물의 형상화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전후 새로운 가족 세우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최태웅은 사회적 결손 인물을 형상화하는데 있어서는 인물들의 결손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모순에 정면대결하는 적극적 성격의 인물형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들 결손 인물들이 그들의 현실적 결손을 극복하는 방식은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데 그것은 ‘인간성과 도덕성의 회복’으로 귀결된다. 물론 ‘本然之性の 옹호’라는 결손의 극복 방식은 신체적, 가정적 결손을 메우는 데 있어 결손인물이나 그 조력자의 휴머니즘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사회적 결손에 대한 극복 방식에 있어서 이같은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주제의식은 객관적 현실인식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추상적이고 현실추수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들 사회적 결손 인물들은 신체적, 가정적 결손 인물들과는 달리 보다 현실과 밀착되어 있기에 현실 모순에 대한 작가의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현실인식 아래 놓여진다. 하지만 이들 사회적 결손 인물들은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소외, 궁핍 등의 원인을 사회나 제도 등 외부적 모순에서 찾으려 하기 보다는 자신들 또는 상대자의 인간성 상실의 문제로 치부한다. 결국 이들은 현실 모순에 대한 근원적 통찰을 보여주지 못하고 눈앞의 놓인 타락된 현실에 함몰되어 버리는 소시민의 모습으로 전락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태웅은 결손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현실의 결핍을 메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감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인간성 회복과 휴머니즘 문학을 구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작가는 인간 본연의 심성에 대한 세밀한 탐구를 일관성 있게 추구하면서도 당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은 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최태웅 문학의 本流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작중 인물들이 보여주는 휴머니즘의 정수는 허무와 상실감이 팽배했던 전후문학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최태웅은 현실모순에 대한 객관적 시선을 담보로 한 인물을 형상화하는데 실패한다. 월남후 고아와도 같았던 문단생활, 전쟁으로 인한 터전의 붕괴와 아내의 죽음, 전후 독신으로 사남매를 키워야만 했던 작가에게, 격변의 현실은 객관적 시선으로 풀

어내기에 너무 버거운 것이 아니었을까. 최태웅에게 있어서는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결핍과 고통들은 식민지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도,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분단 국가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도 아니었다. 최태웅의 관심은 일관되게 인간본성에 대한 천착으로 이어진다. 그는 등단 이후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오던 60년대까지 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간의 탐욕과 물신화 현상, 도덕성 타락 등을 비판하며 인간 본연의 선한 심성의 회복을 꿈꾼다. 60년대 발표된 대부분의 소설들이 현실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한 신변소설의 형태로만 머문 이유는 이와같은 최태웅의 주관적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권영민 편, 『최태웅 문학전집』 1.2.3., 태학사, 1996.

2. <참고자료>

고 은, 『1950년대』, 민음사, 1973.

김태순, 『황순원 소설의 인물유형과 크로노토프』, 백산출판사, 2007.

오양호, 『한국 현대소설과 인물형상』, 집문당, 1996.

정현기, 『한국 근대소설의 인물 유형』, 인문당, 1983.

조미숙, 『현대소설의 인물묘사 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07.

한국소설학회, 『현대소설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한혜선, 『한국 소설과 결손 인물』, 국학자료원, 2007.

김미복, 「「바보 용칠이」에 나타난 바보의 의미」, <국어과 교육>제 12권, 부산교육대 국어교육연구회, 1992. 2.

배경열, 「최태웅의 문학세계」, 최태웅 문학전집 1, 태학사, 1996.

안미영, 「최태웅 소설에 나타난 전후 인식 - 전후(戰後) 미발굴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語文研究>제 42권, 語文研究學會, 2003.8.

최태웅, 「나의 文學回顧錄」, <백민>, 백민문화사, 1949. 3.

——, 「비평의 윤리」, <민주일보>, 1946. 9. 8.

——, 「문단 반세기 허무 80년」, 최태웅 문학전집 1, 태학사, 1996.

『소현성록』에 나타난 遊山覽의 幻想性和 意味機能 考察

강우규(중앙대학교)

<차례>

1. 緒論
2. 遊山談의 幻想性
3. 遊山談의 意味機能
4. 結論

1. 緒論

많은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의 부모가 名山大川을 찾아가 지성으로 기자정성을 드리고, 이에 천지신명이 감동하여 주인공을 잉태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또는 주인공이 산 속에서 援助者의 도움을 받아 병법이나 무예 등을 수학하거나, 산 속의 깊은 곳에서 선계를 체험하는 장면 등도 자주 등장한다. 산을 배경으로 나타난 이러한 장면들은 산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한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¹⁾라는 엘리아데의 말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산을 단순히 자연의 하나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서 천상과 지상의 교류를 표현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삼국유사에 나타난 단군신화나 가락국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 신당수로 내려오는 것, 김수로가 태어날 알이 담긴 금합이 자주색 줄에 묶여 하늘에서 구지봉으로 내려오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산을 유람하는 것은 단순히 산의 경치를 바라보기 위함은 아닐 것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화랑의 세 가지 수련방법²⁾ 중에는 ‘遊娛山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단순히 산과 물을 찾아 놀며 즐기는 것이 아니며 심신을 수련하는 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사람의 正邪를 파악하여 벼슬에 천거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遊’라는 것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고 배움의 방법이며, 앞서 언급한 산의 종교적 의미를 염두해 둘 때, ‘遊娛山水’는 ‘신과의 소통을 통한 배움’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산을 오름으로써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거나, 자연의 경이로움에 매료되는 것 등은 산에 대한 종교적 인식의 흔

1) M.엘리아데, 이은봉 역(2008), 『성과 속』, 한길사, p.121.

2)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三國史記 卷 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三十七年)

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遊山에 대한 관심과 애호는 시대를 막론한 보편적 감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산수체험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산수체험을 통해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과 기상을 배양하고자 한 것인데, 이러한 사상적 기저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는 山水記 양식이 크게 유행한다. 물론 山水記는 산과 물에 대한 기록이지만, 대부분이 산에서 노닐 체험을 기록하고 있다. 산수기 작품의 기저에는 유교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도가사상 또한 일정하게 발견된다.³⁾ 이러한 사상적 기저와 사회적 배경이 『소현성록』의 창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소현성록』에는 소현성과 소운성, 그리고 소현성과 아들들의 세 번에 걸친 산수유람 대목⁴⁾이 있다. 그동안 소현성록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걸맞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遊山談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없으며, 단지 중심 갈등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순한 삽입담 정도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삽입담을 한 번도 아닌 세 번에 걸쳐서 작품 속에 배치한 점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또한 『소현성록』은 작품 전반에 걸쳐 유교적 세계관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遊山談만큼은 환상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소현성록』의 遊山談에 나타난 환상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러한 환상성이 지니는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遊山談의 환상성

고전소설에서 환상이란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상은 현실의 논리적 또는 합리적 사유로서 파악할 수 없으며 초자연적이고 반개연적인 성격을 지닌 비현실 혹은 초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요소들은 인간의 현실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거나 현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상적으로 구상한 것이다.⁵⁾ 이는 사건의 차원에서 재생(부활), 이계체험, 인귀교환, 현몽, 예언, 우연재회, 신비체험, 변신(돈갑), 도술(신통술) 등의 모티프를 핵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인물의 차원에서 혼령, 선관선녀, 술사, 이인, 도사, 스님, 초능력의 영웅, 은일자 등으로 현실세계의 범인들로서는 갖기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의 차원에서는 천상계나 용궁 또는 명계 등의 이계, 꿈속, 속세와 절연된 자연과 산하 등으로 나타난다.⁶⁾ 이러한 환상적 요소는 인간의 존재 해명과 운명의 관독을 위한 서사 기제로 활용되며, 작중 인물이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통과의례적 기능을 담당하고, 주요인물의 위기를 예고하거나 서사적 미래를 암시하며, 영적 세계와 교통하는 감통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또한 서사 세계의 필연성 강화와 윤리적 자연관을 구현함으로써 당대인의 의식적 기반을 상상적으로 구상하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꿈과 현실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의 도구로도 활용되는 등 다

3) 박희병(1993), 「한국산수기 연구」,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p.214 참조.

4) 이하에서는 『소현성록』에서 산수를 유람하는 대목을 遊山談으로 표현한다.

5) 최기숙(1999),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p.280.

6) 김현주(2006), 「고소설의 환상담론과 도가담론의 상관관계」,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pp.488-489 참조.

양한 기능을 담당한다.⁷⁾ 이러한 환상적 요소의 다양한 기능은 작가의 초현실 또는 비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서술하는 양상을 통해 야기되고, 작품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인물의 인식과 지각, 서술자의 서술태도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소현성록』은 유교적 세계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훈서적 성격을 지닌 소설이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환상적 사건들은 ‘怪力亂神’이고 이는 ‘夫子所不語’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성인의 실천적 덕목이 요청되었던 만큼 유교적 세계관이 주를 이루고 있는 『소현성록』에서 환상적 사건은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할 사항⁸⁾인 것이다. 그러나 『소현성록』에 나타난 遊山談이나 戰爭談에는 환상적 존재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주인공이 환상적 존재를 퇴치하거나 환상적 사건을 경험하는 등 다분히 환상소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遊山談을 통해 『소현성록』이 보여주는 환상성에 대하여 주인공의 인식을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소현성의 遊山談

소현성은 대내적으로 세 번에 걸친 혼인과 그로인한 갈등이 모두 해결되어 집안이 안정되고, 대외적으로 민심이 흥흥한 지역의 안찰사 역임을 맡아 그 지역을 태평하게 만들어 국가를 안정시킨 이후 諸王들과 함께 遊山을 떠난다. 소현성의 遊山談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소현성이 칠왕, 팔왕과 친우들과 더불어 유람하다.
- ② 칠왕, 팔왕이 먼저 절에 와서 쉴 때, 괴이한 신음소리가 들린다.
- ③ 주지승은 제자가 요괴에 홀려서 신음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사연을 이야기한다.
- ④ 잠시 후 요괴는 성인이 오기에 물러난다고 하며 사라지고, 이윽고 소현성이 도착하다.
- ⑤ 소현성의 일행이 유산 도중 주지승의 제자가 요괴에 홀린 곳에 도착하다.
- ⑥ 그곳에는 수천 년 된 큰 나무가 있었는데, 소현성이 사악한 것이 접해있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돌려보내다.
- ⑦ 소현성이 나무에 글을 쓰자, 나무에 벽력이 떨어져 나무의 뿌리까지 粉碎되고, 그 옆에 지네 요괴가 죽어 있다.
- ⑧ 바위 위에 그 나무의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소현성의 필적이 아무런 손상 없이 남겨져 있다.
- ⑨ 소현성이 제왕과 함께 유람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요괴에 홀린 병자가 완쾌된다.
- ⑩ 이후 소현성은 마음을 굳게 하고 造化를 발설하지 않다.

소현성은 諸王들과 함께 遊山을 하는 도중에 사찰에 들리게 된다. 諸王들이 절에 먼저 들어섰을 때 결방에는 요괴에게 홀려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현성이 도착하자 요괴가 물러나 병이 낫게 된다. 그 때 요괴는 “이제 성인(聖人)이 오실터이니 내 엿지 이시리오? 금일은 내 소혈노 도라가리라”⁹⁾하고 물러난다. 이는 성인에게 귀신이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7) 최기숙(1999),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p.280.

8) 김성룡(1985),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6. 참조.

9) 『소현성록』 권 5. 인용문 중 중심 어휘에 대하여 한자를 併記한 것은 필자 주임. 이후 인용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

보여주는 것이고, ‘유가적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비합리주의’를 제거¹⁰⁾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절이라는 곳은 불교에 있어서 神殿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요괴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기이한 것은 오래되고 낡은 어떤 것이 억압되어 정신으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¹¹⁾는 점에서 불교라는 오래되고 낡은 문화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되고 소외됨으로써 ‘절=요괴가 나오는 곳’이라는 등식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상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소현성은 “세상의 엇지 이런 일이 이시리오? 심히 허탄(虛誕)호도쇼이다.”¹²⁾라고 말하나, 이를 심중에 삭여 듣는다. 비록 비현실적 사건에 대해 虛誕하다고 말은 하였으나 심중에 담아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성인군자 소현성이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본원에 대하여 일정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허탄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본원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의도는 소현성이 유산을 떠나기 전 한 도사로부터 기이한 보검과 서찰을 받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¹³⁾

이후 다시 유산하는 길에 소현성 일행은 수천 년 묵은 괴화나무를 발견하고, 주지승으로부터 그곳에서 자신의 제자가 요괴에 홀려 몸쓸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때 소현성은 그 나무에 사악한 것이 접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다른 일행을 돌려보낸 후 나무를 둘러 글을 쓴다. 그러자 자욱한 운무가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하더니 한줄기 벽력이 그 나무에 떨어져 나무가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고 그 옆에는 지네 요괴가 죽어 있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산산조각이 나 가루가 된 나무에서 소현성이 글을 써놓은 부분만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본 소현성은 매우 놀라고 괴이하게 여긴다. 괴화나무에 사악한 것이 접해있는 것을 미리 알고 나무에 글을 써서 벽력으로 요괴를 죽이는 것은 소현성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일행을 돌려보내는 것은 일행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이자 자신이 요괴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소현성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존재본원에 대해 일정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이 요괴를 물리친 결과에 놀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현성이 자신의 존재본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이후 현성이 이 일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는 것은 앞서

10) 정길수(2005), 『한국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p.206.

11) 심진경(2001), 「환상문학 소론」, 서강여성문화연구회, 『환상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p.22.

12) 『소현성록』 권 5.

13) 『소현성록』 권 5. “일일은 참정이 혼 도스톨 만나 일봉 서찰을 주고 괴이호 보검을 주며 왈, 이거시 이후의 쓸 곳이 잇시리이다. 호고, 문득 간디 업스니, 공이 그 허탄호를 고이 녀이고 쯔시 보니, 그 칼이 진짓 보비라. 글과 칼을 심장(深藏)호고 구의불출(口外不出)호다.” 우연한 기회에 보검과 서찰을 얻고 이를 깊이 감추어 입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본원을 일정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환상적 사건을 감추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14) 소현성이 자신의 존재 본원을 자각하고 있는 것은 현성과 운성이 출정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그 대목에서 출정길에 오른 현성과 운성의 군대가 전당강을 건너려 할 때 그 강의 적룡이 나타나 船中人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현성만이 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적룡을 질책한다. 적룡은 “낫히 칠성이 잇고 엇기의 삼티 도다시며 머리 우회 붉은 괴 붓치이고 흰 즈로 티평영도보군이라...” (『소현성록』 권 17)라고 써 있고, 일만 길이나 되는 백룡이 호위하는 현성의 모습을 보고 관원으로 변해 재배한다. 현성의 모습을 본 적룡이 현성의 존재본원을 파악하고 재배할 때, “네 나의 형도를 모를 니 업거늘 짐짓 설만호미라호고 운성을 명호여 농왕을 잡아 나리와 철편으로 수빅장을 쳐 치죄호”(『소현성록』 권 17)는 것은 소현성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본원을 명확히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일행을 돌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자신의 존재 본원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로 파악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소현성의 유산담에 나타난 환상성은 소현성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본원을 명확히 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은 주인공이 존재본원의 초월적 능력으로 ‘怪力亂神’을 물리치는 것이며, 이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수호자로서 억압되고 타자화된 불교라는 문화의 표면적 부상을 막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소운성의 遊山談

소운성의 遊山談 역시 운성의 혼사로 인한 갈등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나타난다. 운성의 혼사갈등은 자유연애의 갈망과 늑혼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면서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늑혼으로 혼인한 명현공주가 화병으로 죽음으로서 갈등이 종료된다. 혼사갈등이 종료된 이후 운성은 우연한 기회에 七星斬妖劍¹⁵⁾을 얻어 유람길에 오른다. 다음은 소운성의 유산담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① 운성은 서현의 부친 숙소에서 자신에게 전달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칠성참요검을 얻고, 청충 만리운을 타고 유람을 떠난다.
- ② 이후 계명산에 이르러 사악한 눈빛을 발산하는 한 쌍의 호랑이를 발견하고 물리친다.
- ③ 운성은 계명산 송학사에서 칠성참요검으로 산닭요괴, 흰여우요괴, 검은 뱀요괴, 거북요괴, 붉은 사자요괴 등 다섯 요괴를 물리치고, 祖父의 글을 얻는다.
- ④ 운성은 유람도중 부녀자를 위협하는 도적의 무리를 베고, 용력을 자랑하는 오악신과 겨루어 승리하고, 위험에 빠진 선비를 구한다.
- ⑤ 하루는 날이 저물어 한 촌가에 머무르는데, 그 집의 노인이 神夢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청한다.
- ⑥ 그 딸은 칠백년 묵은 구미호로, 그 집의 딸을 잡아먹고 인형을 취하여 머물러 있으면서 운성이 지나갈 것을 미리 알고 운성이 죽인 다섯 신령의 복수와 함께 삼태성의 정기를 취하고자 노인을 속여서 혼인을 주선시킨다.
- ⑦ 괴이함을 느낀 운성이 허락하여 그 여인이 요괴임을 알아보고 소부로 데리고 온다.
- ⑧ 소현성이 그 여인이 정체를 알아보고 호통을 치자 구미호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운성이 칠성참요검으로 구미호를 벤다.

운성은 서현의 부친 숙소에서 천룡의 울음소리를 듣고 칠성참요검을 발견한다. 이 검은 이미 운성이 주인으로 내정되어 있던 검으로, 현성이 태상노군에게 받으면서 “칼 님즈는 구름(雲) 아리 별(星)이라.”(『소현성록』 권 12)라는 말을 듣고 그 주인이 이미 운성인 줄 알았으나 그 무인적 기질을 돋우지 않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것이었는데, 예정된 운명에 따라 운성에게 발견된다. 운성은 “이는 하늘이 날을 주시미로다.”(『소현성록』 권 12)라고 하며

15) 칠성참요검(七星斬妖劍)이라는 이름에서 이 검의 주인이 운성이고, 이 검으로 요괴를 무찌를 것임을 알 수 있다. 모친이 삼태성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 운성이 태어난다는 점에서 七星은 운성을 가리킨다. 三台星 神話에 의하면 三台星은 해가 사라진 밤하늘에서 아침까지 해가 다시 떠오르도록 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三台星은 큰곰자리에 딸린 자미성(紫微星)을 지키는 별로 將軍星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삼태성의 이러한 성격은 소운성의 영웅성을 나타내며, 이는 遊山談에서 검의 이름대로 斬妖를 행하는 운성의 행위에서도 알 수 있다.

부친께 고하지도 않고 가져간다. 칠성참요라는 녀자로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던 칼이 현성이 감추어두었음에도 운성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알려 발견되고 주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환상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운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운성이 자신의 존재본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운성은 그 검을 얻고 천총 만리운이라는 명마를 타고 홀로 유람을 떠난다. 여기에서 현성의 문인적 성격과 대비한 운성의 무인적 성격 즉 영웅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명검과 명마를 타고 유람을 떠나는 길은 곧 운성의 영웅성이 드러날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유산담에 나타난 운성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유람을 떠난 운성은 계명산에 도착하여 사악한 눈빛을 발산하는 암 수 한 쌍의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때려잡는다. 이후 송학사라는 곳에 도착하여 하룻밤 묶으려 하는데, 그곳의 중들이 객실이 있으나 요괴가 나오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때 운성은 “너희 등이 그러다. 절이 곳 니미망냥(魑魅魍魎)이라. 군지 엇지 요괴를 피히리오? 너희는 썰이 깃당을 가르치라. 닉 홀노 가 요괴를 죽이고 너희 절을 평안케 하리라.”¹⁶⁾라고 하며 객실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객실로 들어온 산담요괴, 흰여우요괴, 검은 뱀요괴, 거북요괴, 붉은 사자요괴를 칠성참요검으로 모두 베어 죽인다. 여기에서 운성은 절이라는 곳 자체를 魑魅魍魎으로 파악하여, 절에서 요괴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선 현성의 유산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직접적인 반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운성은 요괴를 본인이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군자로서 ‘怪力亂神’을 물리친다는 의미와 함께 본인의 영웅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파악된다. 영웅성의 과시라는 측면은 소현성이 오악인과 대결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오악신은 환상적 존재가 아니라 힘이 센 장사로 축군과 파서 지역 간의 朝貢을 건 씨름대회에서 축군의 대표로 연승을 달리던 인물었는데, 파서 지역의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운성이 그 사정을 듣고, 오악신이 “동서남북으로서 날을 당할 지 잇거든 나오라.”¹⁷⁾라고 외친다. 이때 운성은 ‘제 엇던 필뵈완디 텃하의 무적흔 채히리오?’¹⁸⁾라고 忿然히 생각하고 나서 오악신과의 씨름대결에서 승리한다. 운성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결에 나설 아무런 이유가 없으나, 단지 오악신의 자만을 참지 못하여 오악신과 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악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자신의 영웅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집에 돌아와 유람하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에서 본인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운성은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어 한 촌가에 머물게 된다. 이때 그 집의 주인은 운성에게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청한다. 그런데 그 딸은 그 집의 여식을 잡아먹고 人形을 취하여 변신하고 있던 구미호였다. 구미호는 운성이 지나는 것을 알고 집주인을 속여서 혼인을 주선하게 하여 운성에게 죽은 다섯 신령의 복수와 함께 운성의 정기(삼태성의 정기)를 취하려 한다. 그러나 운성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구미호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보고 혼인을 허락하여 소부로 데려온다. 그리고는 현성에게 보이고, 현성 역시 요괴임을 파악하여 일갈을 지르자 구미호의 본 모습이 드러나 운성이 칠성참요검으로 베어버린다. 운성이 구미호가 요괴임을 파악하고 칠성참요검으로 베어버리는 것 역시 존재본원에 입각한 환상성의 발

16) 『소현성록』 권 13

17) 『소현성록』 권 13

18) 『소현성록』 권 13

휘이며, 영웅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운성이 구미호를 소부로 데려온 이유가 “원닌 드러오른 덕인이 아라 보시논가 흥미라”라는 점에서 역시 본인의 영웅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운성의 인식과 행위는 소운성이 자신의 존재본연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군자라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대표로서 환상을 철저히 부정하고 제거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현성이 유교의 성인군자로서 본인의 초월적 능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데 반해서 운성은 성인군자가 아닌 영웅호걸로서 본인의 영웅성을 시험하는 것이며, 과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소현성과 아들들의 遊山談

소운명의 혼사갈등이 모두 종료되어 집안이 평안을 되찾자, 소현성은 아들들을 데리고 태산과 형산으로 유람을 떠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소현성과 그 아들들이 태산과 형산으로 유람을 떠난다.
- ② 일행이 태산이 도착하여 유람할 때 태산 아래에 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성이 불을 지르려 한다.
- ③ 소현성은 불법을 배척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모친의 말을 들어 말리다.
- ④ 소현성이 기운이 불편하여 숙소에 머무름에 운명, 운필이 시측하고 운성과 나머지 형제들끼리 태산을 유람하다.
- ⑤ 유람도중 요괴의 소혈을 발견하고, 운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제들이 불을 지르자 수천년 묵은 범, 곰, 이리의 정령이 나타나 자신들을 해하려 한 운성 형제들을 공격한다.
- ⑥ 운성은 만형인 운경을 업고 현성에게 돌아오고, 나머지 형제들 역시 도망 온다.
- ⑦ 이윽고 쫓아온 범, 곰, 이리의 정령은 소현성과 운성이 영도보군과 삼태성임을 알아보고, 현성의 교화의 말과 제요가를 듣고 감동하여 물러난다.
- ⑧ 경사로 돌아오는 길에 운경, 운현, 운성이 부친 몰래 의논하여 태산의 절에 불을 지르고, 불상을 부순다.
- ⑨ 이때 생불이라 불리는 노승이 나오고, 운성이 활을 쏘아 맞히나 상처를 입지 않는다.
- ⑩ 화가 난 운성이 칠성검을 들고 노승을 베려고 하는데, 소현성이 나타나 세 형제를 꾸짖고 데리고 돌아간다.
- ⑪ 숙소로 돌아온 세 형제들은 소현성이 나가지 않았음을 알고, 요괴로운 부처의 희롱이라 여기나, 현성이 꿈 속에서 하늘 황제의 명으로 과도한 행동을 하는 운성 형제를 막아 데려왔음을 이야기하여 다시 가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소현성과 子弟들이 태산에 도착하였을 때, 운성이 태산 아래에 절이 있음을 보고 불을 지르려고 하자 현성은 “모친이 일즉 불법(佛法) 비척(排斥)함을 과도(過度)타 하시니 그 명(命)을 거역하여 불 지르미 인자(仁者)의 도리(道理) 아니라.”(『소현성록』 권 19)라고 하며 운성을 말린다. 이는 앞선 유산담과는 달리 불교적 세계관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긍정하는 측면으로 파악된다. 이후 소현성이 기운이 불편하여 숙소에 머무는 동안 운성은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하는데 도중에 요괴의 소혈을 발견한다. 운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요괴의 소혈에 불을 지르고, 이윽고 요괴들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때 요괴

는 영도보군(현성)과 삼태성(운성)은 범하지 못하지만 다른 이들의 死生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말하니, 현성이 “너희 등이 턴은(天恩)을 님스와 나히 장수(長壽)호고 도(道)를 어더시나 감히 군즈(君子)를 범치 못호리니 일즉 물너가지 아닌즉 여등의 공뵈 그른 뜻이 되리라.”(『소현성록』 권 19)라고 하며 制妖歌를 부른다. 이에 곶·이리·표범의 정령은 감동하여 스스로 물러난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성은 자신의 존재본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곶·이리·표범의 정령에 대하여 하늘의 은혜를 입어 도를 얻은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후 운경, 운성, 운현은 “틱산 하의 절이 잇서 부처를 공양호니 만일 녁험홀진디 엇지 요괴를 두리오? 맛당이 야야를 모로시게 볼 지를 거시라.”(『소현성록』 권 19)하여 아버지 몰래 태산의 절에 불을 지르고 부처상을 산산이 부신다. 이 때 생불이 등장하여 법어를 외우니 운성은 그를 이매망량의 무리로 치부하고 활을 쏘 죽이려고 하나 그 몸이 상하지 않는다. 이에 운성은 칠성참요검으로 그를 베려고 하는데, 그 때 현성이 나타나 세 사람을 꾸짖고 함께 돌아온다. 그러나 세 형제가 돌아왔을 때, 현성이 나간 적이 없음을 알고 요괴의 作亂으로 의심하나 현성이 “내 앓가 하늘 황제(皇帝) 명(命) 밋즈와 너희 등의 과도(過度)호를 막으려 다려오니 비록 몽중일긋트나 허탄치 아닌지라. 너희는 부절업시 다시 가지 말고 그만호여 도라갈 거시라.”(『소현성록』 권 19)라고 한다. 운성과 그의 형제들이 산 속의 절에 등장한 생불과 수행하는 요괴들을 등치시켜 이매망량의 무리로 여기고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강화라는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소현성이 天命을 받아서 말린다는 것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대립되는 환상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절, 생불, 수행하는 요괴 등은 불교적 세계관과 도가적 세계관이 반영된 환상이고, 환상이 욕망의 문학¹⁹⁾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획일화된 유교적 세계관 속의 불교적, 도가적 세계관에 대한 긍정의 욕망이 발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양부인이 현성에게 불교에 대하여 “불도(佛道) 비록 불스(不辭)호나 한(漢)적부터 삼대(三代)의 노력과 업시치 아나시니 네 붉은 정스(政事)로 스군보국(事君保國)호야 치민치정(治民治政)이 올코 스스로 불도(佛道)를 숭상(崇尙)치 아니미 울커놀 엇지 논박(論駁)호여 과도(過度)히 막으리오?”라고 말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현성과 아들들의 유산담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억압되었던 불교적, 도가적 세계관에 대한 긍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遊山談의 의미기능

1) 遊山談에 나타난 환상성의 의미기능

앞장에서 살펴본 『소현성록』의 유산담에 나타난 환상성은 ‘주인공의 존재본원과 관련된 환상성(환상성A)’과 ‘주인공과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환상성(환상성B)’으로 구분할 수 있는

19) 로즈마리 잭슨(Rodemary Jackson)은 환상을 욕망의 문학으로 해석하여 그것은 부재와 상실로서 경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상은 욕망을 드러내거나 보여줌으로써 욕망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또한 욕망이 문화적 질서와 지속성을 교란시킬 때, 환상은 그러한 욕망을 배출한다. 많은 경우에 환상문학은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욕망은 ‘이야기됨’으로써 ‘배출’되고 따라서 작가와 독자가 그 욕망을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환상은 문화적 질서의 근본 토대를 지적하거나 제안한다. 환상문학은 잠시 동안이나마 무질서와 무법을 향해, 법과 지배적 가치체계의 바깥에 놓여있는 것들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환상은 언급되지도 않은 문화, 보이지도 않던 문화를 추적한다. 즉 침묵하고 있던 문화, 보이지 않게 만든 문화, 가려졌던 문화, ‘부재’하게 만든 문화를 추적한다. (캐스린 홈·한창엽 역(2000),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p.51에서 재인용.)

데, ‘환상성A’는 초월성이나 신이성을 보여주고, ‘환상성B’는 기이성이나 괴이성을 보여준다. 먼저 ‘환상성A’는 현실의 소현성과 소운성이 천상에서 각각 영도보군과 삼태성이었다는 이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소현성과 소운성은 각각 천상의 존재본원을 둔 인물로서 초월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초월적 능력을 바탕으로 ‘환상성B’를 제거하거나 제어한다. 이때 소현성과 소운성은 각각 성인, 군자로 표상된다는 특징이 있다. 성인 혹은 군자이기에 요괴가 범접할 수 없고, 요괴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성A’는 초월성, 신이성의 성격을 지니고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환상성B’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상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이성, 괴이성을 보여준다. 이는 유교적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감추어지고 억압되었던 것, 보이지 않고 부재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표면적으로 부상하면서奇怪的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유산담에 나타난 환상성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이로 인해 억압되고 소외된 문화와의 대결이라는 측면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환상성A’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이나 ‘환상성A’와 ‘환상성B’의 대결 양상이나 결과는 가)소현성의 유산담, 나)소운성의 유산담, 다)소현성과 아들들의 유산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가)에서 소현성은 자신의 존재본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현성은 상대적 위치의 환상성을 제거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의 승리를 도출한다. 소현성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삶을 살아온 인물로서 자신의 존재본원과 ‘怪力亂神’에 해당하는 妖怪 퇴치 즉 ‘환상성A’를 외부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이는 성인군자로서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를 표면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파악된다.

다음으로 나)에서 소운성은 자신의 존재본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운성의 존재 본연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천상계에서 그를 지키고 이끌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²⁰⁾, 운성이 이러한 천상의 보이지 않는 인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존재본연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운성은 자연스럽게 ‘환상성B’를 본인이 제거해야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모두 제거한다. ‘환상성B’ 즉 유교적 이데올로기 아래 억압되고 소외되었던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가)와 나)는 주인공이 자신의 존재본원을 인식하고 있고, ‘환상성A’로 ‘환상성B’를 제거하여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현성이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인군자의 성격을 보여준다면, 운성은 이를 겉으로 표출하려는 영웅호걸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의 주인공은 소현성과 소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자신의 존재본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여주나, ‘환상성B’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소운성은 나)에서 나타난 ‘환상성B’에 대한 인식 즉 ‘환상성B’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본인이 물리쳐야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 반하여 소현성은 ‘환상성B’를 하늘의 은혜를 입어 도를 얻은 존재, 하늘의 인정을 받은 존재로 파악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대결에서 앞선 유산담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가), 나)에서는 ‘환상성B’를 제거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다)에서는 ‘환상성B’와의 相存의 결과를 도출한다. 가)와 나)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인해 억압되고 소외되었던 문화를

20) 칠성참요검이 예정된 운명대로 소운성에게 전달되는 것, 현성과 함께 출정 및 유산할 때 용왕이나 요괴가 운성을 삼태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상성A’ 즉 지배 이데올로기적 환상성을 통해 계속 억압한 것이라면, 다)에서는 ‘환상성B’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독자는 생산주체인 작가가 산출한 의미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자의 역할을 넘어설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독자들은 수용과 소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문학의 장에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에 해당한다. 실제로 작가나 출판업자들이 독자의 취향이나 독서습관에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것 역시 문학의 장 내에서 차지하는 독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²¹⁾ 이러한 점에 미루어볼 때, 『소현성록』의 유산담이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대립적인 환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을 향유한 독자들의 영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자들의 환상에 대한 욕망, 유교사상이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려졌던 또는 부재하게 만들어졌던 불교나 도가사상에 대한 욕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향유한 많은 사대부가 여성들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에게 있어 불교와 도가사상은 사회적 약자라는 동병상련의 처지이면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 진정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소현성록』의 유산담에 나타난 환상성은 불교와 도가사상에 대한 욕망이 표출된 것이고, 이에 대한 긍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대리적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遊山談 배치의 의미기능

『소현성록』은 소현성을 중심으로 한 婚姻과 婦女子들 간의 爭寵, 소운성을 중심으로 한 혼인과 부녀자들 간의 爭寵이라는 類似葛藤構造가 並列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사이사이 작은 사건들이 挿入되어 있는 敍事構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²²⁾된다. 이는 다시 소현성의 일대기를 담은 <소현성록>과 그의 아들들인 소운성, 소운명을 중심으로 한 서사를 담은 <소씨삼대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소현성록』에는 세 번에 걸쳐서 遊山談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현성록>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소씨삼대록>에 나오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현성록>에 나오는 유산담은 소현성이 제왕들과 함께 유산하며 겪는 괴이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소씨삼대록>에 나오는 유산담 중 첫 번째는 소운성이 필마단기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겪는 괴이한 사건과 무용담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는 소현성과 그 자제들이 함께 태산을 유람하며 경치를 구경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신이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遊山談은 혼사 갈등이라는 중심 갈등이 끝나는 지점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간략히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 이정옥(2003). 「대중문학과 독자」, 『대중서사연구』 10, p.10.

22) 박영희(1993).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pp.142~149 참조.

소현성의 혼사갈등	<소현성록>
소현성의 遊山談	
소운성의 혼사갈등	<유씨삼대록>
소운성의 遊山談	
소운명의 혼사갈등	
소현성과 자제들의 遊山談	

<소현성록>의 유산담은 소현성의 세 번째 혼인으로 인한 갈등이 모두 해결된 이후에 배치되어 있다. 여씨의 악행이 들어나 내친 일로 인해 악의를 품은 여상서의 계략으로 민심이 흉흉한 강주 안찰사직 맡아 그 일을 모두 수행한 이후에 소현성의 遊山談이 나타난다. 두 번째 소운성의 遊山談 역시 명현공주로 인한 갈등이 모두 해결되고 소영까지 데려오고 난 이후에 배치되어 있고, 세 번째 소현성과 아들들의 遊山談 역시 소운명의 혼사갈등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소현성록』의 유산담에 대하여 박영희는 ‘외유화소’라고 지칭하며 이야기 전개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작품 내용상 빠져도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파악하여, 소가의 이야기만으로 답답증을 느낄 독자에게 새로운 공간의 기이한 사건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고, 아울러 화소 반복을 통해 작품을 장편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그 배치에 있어서 커다란 가문내의 사건이 해결된 지점에 등장하여 새로운 가문내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한가하게 유람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예비하는 셈을 준다²³⁾고 하였다. 박영희의 이러한 견해는 장편가문소설의 창작 방식 및 장편화 방식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파악된다. 혼사갈등과 같은 커다란 單位談과 그 사이 사이에 배치된 유산담과 같은 挿話を 통해 작품 전반의 긴장과 완화를 유지하면서 분량을 늘려가는 장편가문소설의 창작 방식 및 장편화 방식을 적절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산담에서 보여주는 환상성은 현실 위주의 갈등에서 일탈하여 상상의 시공간으로 상상력을 확대하여 즐거움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유희(흥미)를 제공해준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으로써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현실에 호명하여 즐거움, 도피, 회복, 위안을 제공해주는 것이다.²⁴⁾ 『소현성록』은 세 번의 걸쳐 가정 내의 문제 즉 혼인과 부녀자들간의 쟁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환상성을 지닌 유산담을 배치하면서 잠시나마 현실에서의 일탈 가정 내 문제에서의 일탈을 줌으로써 일상에서 벗어나는 즐거움, 마치 도심 속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바다나 산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유산담의 배치 방식은 『소현성록』 작품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유씨삼대록>에서도 갈등이 종료되는 지점에 遊山談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⁵⁾ 이런

23) 박영희(1993), 앞의 논문, p.148 참조.

24) 이명현(2008), 「<김진옥전>의 대중성」, 『동아시아고대학』 18, 동아시아고대학회, pp.306-307 참조.

25) <유씨삼대록>의 유산담은 환상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않으며, 유연이 유배를 갔던 지역과 우성이 태어났던 지역을 유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작인 <유효공선행록>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점을 통해 볼 때, 遊山談의 배치는 장편가문소설의 구성 방식 중 하나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結論

이 글은 『소현성록』의 중심 갈등과 큰 연관성을 지니지 않은 遊山談이라는 작은 挿話가 작품 속에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나타난다는 점과 그 내용이 다분히 환상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산담에 나타난 환상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소현성록』의 유산담에 나타난 환상성은 주인공의 존재본원과 관련된 환상성과 주인공과 상대적 위치에 있는 환상성으로 구분된다. 이 두 환상성은 서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이는 곧 지배 이데올로기와 이로 인해 억압되고 소외된 문화와의 대결이라는 측면으로 파악된다. 이는 환상성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는 측면의 기능과 역설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자하는 욕망의 표출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소현성록』이라는 작품이 지닌 유교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환상이 지닌 이중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현성록』의 유산담에 나타난 환상성은 작품의 주조를 이루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이로 인해 억압되고 소외된 욕망의 표출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소현성록』에 나타난 유산담의 규칙적인 배치는 혼인과 부녀자간의 쟁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잠시나마 현실에서의 일탈을 줌으로써 일상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혼사갈등과 같은 커다란 單位談과 單位談 사이사이에 배치된 挿話 형식의 유산담은 작품의 긴장과 완화를 유지하면서 분량을 늘려가는 장편가문소설의 창작 방식 및 장편화 방식의 기능을 담당한다. 물론 유가주의적 작품 성격 및 작품의 방대한 분량 등으로 인해 장편가문소설을 대중성과 쉽게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산담과 같은 삽화는 이후 많은 장편소설에서 차용되고 있어 소설의 서사적 관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성의 영역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단위담과 담위담의 결합과 사이사이 삽화의 배치는 장편가문소설 구성방식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장편가문소설은 이러한 방식으로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아직 『소현성록』 한 작품에 나타난 유산담이라는 하나의 삽화에 주목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고 작품 속 배치에 따른 장편가문소설의 구성방식을 파악하는 데에 그친 아쉬움이 있으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많은 작품들을 분석하여 장편가문소설의 단위담 및 삽화의 유형과 성격을 추출해낸다면 장편가문소설의 장르적 성격과 유형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서울대 21권 21책본 『소현성록』

M.엘리아데, 이은봉 역(2008), 『성과 속』, 한길사, p.121.

캐스린 흠·한창엽 역(2000),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p.51에서 재인용.

강상순(2003),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pp.36-37, p.41 참조.

김성룡(1985),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6. 참조.

김현주(2006), 「고소설의 환상담론과 도가담론의 상관관계」,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pp.488-489 참조.

박영희(1993),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pp.142~149 참조.

박희병(1993), 「한국산수기 연구」,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p.214 참조.

심진경(2001), 「환상문학 소론」, 서강여성문화연구회, 『환상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p.22.

이명현(2008), 「<김진옥전>의 대중성」, 『동아시아고대학』 18, 동아시아고대학회, pp.306-307 참조.

이정옥(2003), 「대중문학과 독자」, 『대중서사연구』 10, p.10.

정길수(2005), 『한국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p.206.

최기숙(1999),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p.280.

해방기 오영진의 반공주의(反共主義)에 관한 고찰

심우일(중앙대학교)

<차례>

1. 문제제기
2. 계몽의식과 기능적 구성
3. <오곡타령> : 반공주의와 경사된 의식성
4.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성
5. 결론 및 남은과제

1. 문제제기

1940년대 창작한 시나리오 <맹진사댁경사>, <배뱅이굿>와 같은 일련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고전적 세계와는 다르게, 해방기 오영진의 정치적인 입장은 반공주의¹⁾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그가 공산주의가 보여준 유토피아적 세계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반공주의로서 돌아서게 된 결정적 이유는 소군정의 위협이었다. 소군정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모습은 이론적으로만 접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였다. 해방 후 과거 일제에 의한 식민지 상황에 비교하여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명의식을 더욱 직접적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면서 오영진의 정치 태도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오영진은 해방기 이후 반공의식이 담긴 작품들을 남겼는데, 이 작품들에 관하여 단순히 선전성이 짙은 작품, 미적으로 실패한 작품으로 일축하기보다는, 남겨진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가 복잡한 당대의 국면 속에서 어떻게 사유하고 복잡한 맥락들을 의미화 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역사를 개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영진은 민족주의자이며, 기독교인이고, 희곡·영화·평론·수필 등을 창작한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에 반공주의라는 화두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더 다층적으로 다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그렇기에 오영진의 작품세계와 함께 걸쳐져 있는 반공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단순히 논의될 수가 없고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1)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와 정서를 의미하여 그중에서도 북한공산주의 체제 및 정권을 절대적인 '악'과 위협으로 규정, 그것의 철저한 제거 혹은 붕괴를 전제로 하며 아울러 한국(남한) 내부의 좌파적 경향에 대하여 적대적 억압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학적 기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998, 32면.)

사실 오영진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접한 연구자라면, 몇몇 희곡 작품과 그 외의 수필이나 평론을 통해서 그가 반공주의자라는 것을 쉽게 의식할 수 있다. 문제는 오영진에 관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진의 반공주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없었다.²⁾ 1945년 해방 이후 그의 작품세계의 변모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한 연구대상임에도 오영진 작품이 지니고 있는 전통의 현대적 수용과 민족주의에 더욱 방점이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거칠고 미력하나마 오영진의 반공주의가 지닌 의미를 탐구해보려고 한다. 필자의 우둔함으로 기존의 반공주의에 관한 연구들의 논의를 다시 중언부언 하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2. 계몽의식과 기능적 구성

오영진은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1943년 국민문학에 <배뱅이굿>과 <맹진사댁경사>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희곡·시나리오 작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³⁾ 일제는 전쟁과 관계된 작품을 창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시나리오를 창작하였다. 이것은 그가 지니고 있던 민족주의사상의 한 발로였다. 또한 그가 희곡·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또한 민족주의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1937년 급성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마침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도산 안창호를 만나 영화에 관한 자신의 포부

2) 오영진에 관한 선행논문들을 각각 주제별로 나누어 연도순으로 정리하였다.

삼부작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권오만, 「오영진 삼부작에 관하여」, 『국어교육』 18~20 합병호, 1972.

김승옥, 「오영진의 삼부작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이유순, 「오영진 희곡의 판소리 수용 양상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94.

최정현, 「오영진 초기 희곡에 나타난 희극성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5.

한옥근, 『오영진 연구』, 시인사 1993.

삼부작 외에 최근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상우, 「해방직후 좌우대립기의 희곡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양상 -우익측의 유치진, 오영진, 김영수 희곡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2집, 한국극예술학회, 1992.

백로라, 「오영진 희곡 <풍운>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5집, 한국극예술학회, 1994.

김재석,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59집, 한국어문학회, 1996.

김성희, 「오영진 희곡의 대립구조와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6집, 한국극예술학회, 1996.

김일영, 「현대희곡에서 패러디 가능성 연구」, 『어문학』 제64집, 한국어문학회, 1998.

김만수,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에 대한 사례 연구 : 오영진의 경우」, 『한국극예술연구 제13집』, 한국극예술학회, 2001.

배미정, 「오영진 희곡의 <허생전> 연구 -등장인물들의 갈등양상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인문학연구』 제3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최승연, 「오영진의 맹진사댁개작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

유인경, 「근단 민예극장의 가무극 <한네의 승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3집, 2006.

배수진, 「오영진 희곡 「허생전」의 인물 간 갈등의 분석」, 『한국문예비평연구』 2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민족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미원, 「오영진 작품세계와 민족주의」, 『한국연극학』 14권, 한국연극학회, 2000.

이미원, 「오영진과 민족주의」, 『한국현대극작가연구』, 연극과 인간, 2008.

3) “대동아전쟁이 한 창 일 때 조선총독부산하 조선영화사가 오씨에게 전쟁관계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했다. 오씨는 마지못해 작품을 썼다. 그것이 <배뱅이굿>이었다. 그러나 전쟁냄새가 전혀 없다고 다시 위촉받았다. 그것이 <맹진사댁경사>이다. 향토색 짙은 희극일 뿐 전쟁을 고무하는 내용은 추호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둘 다 영화로 되지 않았다. 다행으로 여겼다.” (「금석한담」, 『조선일보』, 1972, 8, 13, 8면.)

를 밝히고 있는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가, 학자 또는 극작가나 법률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일생의 사업으로 영화를 선택한 데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물론 그 당시 나 자신이 영화를 세 끼 밥보다도 좋아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나를 영화로 이끌었다는 것은 일본 통치 밑에서 누구나가 각자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느꼈을 사명감 같은 것이었다. 나는 우리 민족을 계몽하고 무의식 대중을 감동시키는 또는 문화 예술사업이 가장 효과가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힘으로 대중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⁴⁾ (고덕체 필자 강조)

위의 인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문화예술사업이 지니고 있는 계몽성과 대중성에 일찍부터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제하에서 민족주의자로서 문화예술사업이 지니고 있던 계몽성과 대중성에 주목하고 민족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영화를 택한 것이었다. 오영진 본인이 밝힌 것처럼 계몽성을 중시하기 때문인지 그의 작품들이 갑작스러운 언급이나 구조적으로 어색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계몽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모든 작품이 미적으로 결함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아니다.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오영진 작품의 재현 방식이 무척 기능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능적이라는 것은 작품의 전개 또는 구조 그리고 인물간의 대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시되어 인과성이 상당부분 결여된 상태로 구성된다는 것에 한정한다. <배뱅이굿>의 경우 전체적인 작품의 맥락과 연관 없는 갑작스러운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고, <맹진사댁경사>의 경우 결말에 이르러서 작가의 주관적인 관념이 끼어든 ‘진정론’을 역설한다.

선녀의 우의(羽衣)처럼 펄럭이며 하늘 높이 오르는 일공단 월공단 예수 ·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루살렘의 길 처럼 땅 위에 길게 길게 흘러 깔립니다.
허풍만은 노래에 취한 듯 아무 것도 모르는 몽환경(夢幻境)입니다.⁵⁾

미 언: 사람의 “마음”이요, 참된 마음이요. 병신이나 누구에게나 한결 같이 바칠 수 있는 깨끗한 마음! 부귀에 취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들허구두 사귀어 봤소. 그들의 천박한 마음씨에는 진절머리가 났소. 내가 찾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소.(어깨에 손을 얹어 돌린다)

입분이: …… (두 뺨에 눈물이 흐른다)

미 언: 아가씨 …… 아니 아가씨든 종이든 매한가지요. 나의 아내는 틀림없는 당신이요. 진실한 애정과 순정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소. 알아주겠소? 입분이 입분이 알아주겠소?

입분이: …… 6)

이에 관하여 서연호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김미언과 김명정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에 대한 개연성 혹은 필연성이 없으며, <진정론>도 작가의 관념에 머물고 있다고 논하며, <맹진사댁경사>가 대중적 파스라고 단정 짓는다.⁷⁾ 작품에 관하여 ‘대중적 파스’라고 규정하기는 쉽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그 원인이다. 필자는 오영진이 강하게 지니고 있던 계몽

4) 오영진, 이근삼 · 서연호 편, 「도산선생이 주신말씀」, 『오영진 전집』 제5권, 범우출판사, 1989, 404면.

5) 오영진, 이근삼 · 서연호 편, 「배뱅이굿」, 『오영진 전집』 제3권, 범우출판사, 1983, 54면.

6) 오영진, 이근삼 · 서연호 편, 「시집가는 날」, 『오영진 전집』 제3권, 범우출판사, 1983, 110면.

7) 서연호, 『한국연극사 근대편』, 연극과 인간, 2003, 252면을 참조.

의식이 바로 작품의 형식을 전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 같은 경향은 1949년 발표된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결말 부분에서 죽은 줄 알았던 식민친일부르주아 이중생의 아들인 하식이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살아 돌아와 이중생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참회하지 않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한다는 작가의 강한 민족계몽의식은 희극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생의 자살로 극을 결말짓게 하고, 하식을 갑작스럽게 등장시켜서 세대 간의 대립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⁸⁾ 이 같은 작품들의 형식적 문제들은 그의 작품이 작가의식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작용해왔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3. <오곡타령> : 반공주의와 경사된 의식성

필자가 오영진의 계몽의식에 관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의 반공주의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접근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공의식과 계몽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우선 반공주의자가 된 오영진의 환경적 요인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 오영진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부터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일제하에서 살면서 나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로 또는 자유주의자로 자처하였따. 기독교의 장로의 아들로 민족주의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왜 그런지 사회주의의 환각적인 결론만이 나에게 새롭게 보였다. (중략) 이라하여 성격과 행동에 있어서 반항적인 나는 그대로 공산주의적인 세계에서 아무런 모순됨이 없이 하나의 신인간이 될 줄 굳게 믿고 있었다. 이쩌면 공산주의자의 생활양식과 인간관조의 태도와 정책과 이론이 이렇게도 나의 생각과 꼭 들어 맞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공산군이 잔주한 북한에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서는 결국 공산주의가 못되고 만 나이다. 서적의 이론과 현실은 이렇게도 추한 것인가?”⁹⁾

사회주의가 보여주는 세계는 오영진에게 하나의 유토피아적 세계상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서적이 전해주는 이론적 가능성은 그를 들뜨게 했을 것이다. 해방 후 평양에서 오영진은 고당 조만식의 측근으로 조선민주당을 창당하고 그곳의 중앙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직무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곧 그는 평양을 떠나서 월남할 수밖에 없었다. 1946년 1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반대한 이유로 조선민주당이 강제 해산되고, 1947년 10월 모스크바 문화사절단 제1진으로 선발되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검거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¹⁰⁾ 바로 오영진은 여기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진실을 대중에게 전달할 자유와 의무감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반공주의적 태도를 단순한 선전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던 계몽의식의 발로로서 반공주의를 바라보고, 점진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영진의 반공주의적 태도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1951년 썼으나 미발표된 <오곡타령>이다. 이 작품은 한 편의 음악극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목 그대로 다섯 가지 의인화된 곡식(백미 · 좁쌀 · 청콩 · 팥득이 · 밀녀 · 완두콩)들이 대화를 나누며 메시지를

8) 김성희, 앞의 논문, 230면을 참조.

9) 한옥근, 『오영진 연구』, 26면의 각주를 재인용.

10) 한옥근, 앞의 책, 24-25면을 참조.

전달하고 타령을 하는 음악극 형식이다. 그의 전 작품에서 음악극을 취하고 있다는 한 작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색적이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토지정책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에 띄는 작품이다. 음악극은 르네상스시대에 오페라가 성립되면서 음악극의 독자성이 이루어졌다. 바그너가 오페라에서 취약해진 문학적·연극적 요소를 대폭 강화하여 음악적 요소와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총체음악극을 주장하면서 생긴 용어이다.¹¹⁾ 오늘날 음악극이라는 용어는 뮤지컬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나, 더 폭넓은 범위에서 근대의 창극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곡타령>이 음악극이라고 불리는 것은 작품에 타령조의 음악적 요소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관점을 둔 분류이다. <오곡타령>은 소박한 사실주의적 극작법의 이해를 토대에 두고 음악에 애국·계몽적 가사(애국가)를 덧붙인 형태이다. <오곡타령>이 소박하게나마 형식적으로 음악극의 형태를 취한 이유는 비교적 뚜렷하다.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개폐하는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극장 안에서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작가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바로 이 같은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음악의 효과에 대한 자각은 계몽적 관점에서 이해가능하다. 형식은 작가의식과 상응하는 바, 오영진의 이 작품은 대중에 대한 계몽성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작품의 형식이 환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곡타령>은 전체 5경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다. 제1경 : 새해가 왔다는 타령과 함께 오곡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 모두가 오곡인 것과 같이 대한민국 모두는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가 애국가를 부르며 끝맺음한다. 제2경 : 카페 여급 밀녀가 객들에게 희롱을 당하는데 고학생 팻득이가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밀녀가 겪었던 농촌시절의 수난사가 고백된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떠나기로 한다. 제3경 : 밀녀와 팻득이가 꿈을 품고 전차를 타고 가는 도중 좁쌀을 만나는데, 좁쌀과 팻득이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난하고 남한의 토지개혁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4경 : 서울생활과 농촌생활이 대립시키며 완두와 청콩이 다툰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바로 뒤에 밀녀가 완두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팻득이의 오해로 서로 다툰다는 내용이다. 제5경 : 모든 것이 서로의 오해임을 알게 되고, 완두콩과 청콩 그리고 팻득이와 밀녀가 화해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서로 나아가자는 다짐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끝을 맺는다.

<오곡타령>의 내용을 주제의식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농촌사회를 재건하고, 서로간의 협력을 통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는 관념적인 사회의식이 강조된다. 특히 제3경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오영진의 반공의식이 드러나는 바,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을 위한 농민들의 협력이 바로 애국이라는 국가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남한의 토지개혁을 옹호하고 북한의 토지개혁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여 관객에게 황폐한 농촌의 현실적 상황을 알리려한다.

팻득이 : 농지개혁이 이북같은 그런 것인줄 아세요? 삼년이나 오년만 일하면, 그제 제 논밭이 되구 말거든요. 팔구 싶으면 팔구 사구 싶으면 사구,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물려줄 수도 있는, 농민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농지개혁 이랍니다.

좁쌀 : 정말?

팻득이 : 북한의 농지 개혁처럼 사구 팔구 제 땅 가지구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건줄 아서

11) 서연호, 앞의 책, 259면을 참조.

요. 현물세이나 부역이니, 애국미이니 따위의 약탈행위 같은 건줄 아서요.

좁쌀 : 정, 정말요?

밀너 :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두 좀 빠졌하니 살아 보알게 안네요. 온 세계 농민한테 떨어져서야 되겠어요. 살림살이나 지식이나…….

좁쌀 : 그렇죠.

팻득이 : 우리 한국의 농토는 우리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죠.¹²⁾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듯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은, 첫째 ‘세계 농민한테 떨어’지는 일을 면하는 것이고, 둘째 관념적으로 ‘우리 한국의 농토, 우리 것을 지키는 일’로서 관념적인 주체의식을 지켜내는 일이다. 제3경의 관념적인 주체의식은 제5경으로까지 이어져 ‘국가와 민족의 행복한 앞날을 위한 충성’으로 귀결된다. 북한에 대한 제3경에 나타난 비난과 제5경에 나타난 애국심은 서로 호응하고 있으며, 바로 공산당에 대한 국가의 반공주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다름이 아니다. 이처럼 반공주의는 민족과 국가라는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가이데올로기 장치로서 기능하면서 문학과 예술전반을 도구화하여 국민들의 내면의식을 무의식중에 규율화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오곡타령>은 관념적인 주체의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성에 의해서 인물들의 성격과 행위의 구체적인 필연성이 결여된 상태로 나타나고 이 같은 기능적 구성은 앞서 지적했듯 오영진이 <오곡타령>이전에 창작했던 다수의 작품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점이다. 그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식과 형식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정합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미의식의 분화과정이 급격한 의식화에 따른 결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곡타령>에 나타나고 있는 농민으로서의 주체의식전달이라는 계몽의식은 작품의 서사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규율화를 정당화하는 요소로 전환되는데, 이는 계몽의식과 규율화라는 국가적 욕망이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킨다.’ 혹은 ‘국가와 민족의 행복한 앞날을 위한 충성’이라는 식의 국민의식화라는 지점에서 접합된다. 어쩌면 이미 이북에서의 소군정을 경험하면서 생사(生死)의 기로에서 욕화된 오영진 반공주의는 자연스럽게 그의 계몽의식이 북한의 정책에 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 의식의 과잉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영진의 반공주의는 의식화를 넘어서 사회적 실천으로 구체화된다. <오곡타령> 탈고한지 1년 후인 1952년에는 남하한 이북출신 문인, 예술인을 규합하여 문총 북한지부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으며, 문총 북한지부 주최 및 출연으로 반공 영화제를 부산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또한 <문학예술>지를 창간하여 대표 및 주간이 되고, 출판사 중앙문화사를 창립하여 그 대표가 되어 국내외의 저명한 반공서적을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보인다.

4.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성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 1953년 휴전협정을 계기로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으로 일단락되었다. 남북간은 군사적 진영 양편은 다툼을 해결하고, 출혈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휴전협정을 통해 한반도를 나누어 다스리는 정치적 상호교환을 이룩한다. 그리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법과 법적 체계의 한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반공주의를 내세우게 된다. 흔히 말하듯 냉전체제가 구축되고, 언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각각

12) 오영진, 이근삼·서연호 편, 「오곡타령」, 『오영진 전집』 제1권, 범우출판사, 1989, 141면.

의 남북진영은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가의 재건사업과 함께 남한 내 민족통합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반공주의는 지속적으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여야 했다. 즉, 밖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안의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기 위함인데, 이로써 남한에서는 강력한 민족주의와 동시에 심상지리를 통해 적과 우리를 구분하는 속지주의를 낳았다. 반공주의는 남북이라는 지리적 구분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부의 적을 생산함으로써 공산당의 위협을 실재화하고, 정부의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정당화한다.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공산주의에 대한 본능적 증오심은 전쟁 이후 새로운 형태의 신제국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억압과 통제가 국민을 짓누르고 있었으며, 독립국가로서의 경제적 발전을 홍보했지만 계급차별의 심화가 지속되었다. 더구나 구원자로서의 미국의 신성화는 식민지 이후 신생국가의 내면에 자기 부정적인 오리엔탈리즘마저 부추겼다.¹³⁾ 기실 미국은 조선시대 때부터 문명, 제도, 세계관 문화 등에 걸쳐 문화적 지향점이 되었으며, 그것은 식민지시대 개신교를 매개로, 해방이후에는 선교사형, 미국주둔형, 즉GI형, 할리우드형, 대중매체형 등과 같은 매개고리를 통해 확대·심화된다. 미국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해방 후 자유진영의 보루라는 이미지가 덧붙여지면서 더욱 증폭되는 가운데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미국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복제에의 욕망을 야기했다.¹⁴⁾

이 같은 이해 속에서 오영진이 1950년대에 쓴 수필이나 영화평론을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영화제작 환경과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연극학교와 같은 교육여건에 대한 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¹⁵⁾ 이 글들은 그가 영화 평론가로서 당시 대표적인 영화제작국 미국 견학을 통해 구체적 실재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발전된 미국 선진적인 영화문화의 우월성을 자각하면서, 그의 계몽의식은 미국으로 표상되는 서구문화를 객관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이는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려는 정신적 긴장감에서 비롯한 태도일 것이다. 1955년에 발표한 수필 「아메리칸 라이프」를 살펴보면 미국의 문화를 바라보는 오영진의 시각이 잘 나타나있다.

아시아에도 없고 물론 구라파와도 다른 그야말로 아주 새로운 20세기적 문명이며 문화이다. 동양과 구라파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을 떠나 200년 전에 새로이 시작한 그들이 소산이 그대로 수천년의 역사와 전통과 풍습을 지녀온 우리들에게 맞으리라고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오늘의 번영과 새로움을 갖게 한 몇가지 정신적요소의 정당한 섭취는 새로운 국가를 이룩하고 발전을 꾀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모범이며 참고가 되리라 믿어 마지 않는다.¹⁶⁾

13) 박명진, 『한국현대 예술사 대계 II』,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9, 185면.

14) 이봉범, 「1950년대 문화재편과 검열」,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제34집, 2008, 10면.

15) 전쟁이 휴전되고 난 이후 1954년에 발표한 글들이다. 평론으로는 <한국 영화의 갈길>, <미국영화계의 동정>, <아메리카 영화대학>, <미국의 연극과 영화>, <뉴욕의 연극학교>, <외국영화의 수입>, <교육과 연극>, <한국영화의 근린>, <문화공세론>, <너울을 보고>, <아메리카의 소극장 운동>, <전시하의 연극 영화계>, <영화단평>이 있다. 수필에는 <배울 것과 자랑할 것>, <문화정책의 셋방향>, <하버드대학 연경학회를 보고>, 기행 <아메리카 기행> (현대공론), <아메리카 기행> (사상계), <할리웃의 인상>이 있다.

16) 오영진, 이근삼·서연호 편, 「아메리칸 라이프」, 『오영진 전집』 제5권, 범우출판사, 1989, 326면.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영진은 서구문화와 우리문화의 토대가 다르므로 그들의 문화가 우리에게 맞다고 보기 힘들며, 오늘날 변명을 누리고 있는 서구의 몇 가지 정신적 요소를 받아들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는 일종의 자강론(自強論)을 펼친다. 이 같은 취지 속에서 설정된 대상은 물론 미국이다. 하지만 1954년에 발표한 그의 다수 글들에서는, 미국 뉴욕의 연극학교에서 보여주는 교육시스템 혹은 아동용 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제작시스템 또 연극문화가 특수한 전문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도 보급되어 있는 상황 등에서 미국의 문화적인 우월감을 자각하게 된다.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확인하게 되면서 1954년 「뉴욕의 연극학교」라는 글에서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미국인들의 조롱의 시선을 호의로 해석하고 일종의 안도감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전이(轉移)를 보게 된다.

제2의 교실은 각본 낭독의 시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혹의 청춘장」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소개된 피넬로의 「애찬티드·카테지」를 학생들이 둘러앉아 선생의 지도를 받아가며 낭독을 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이 등장인물의 역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발성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단젤로 교장은 교실을 나올 때 학생들에게 『자 당신들도 이제 코리아를 보았소.』하고 나를 소개하여 일동을 웃겨버린다. 호의에 가득찬 웃음이었다. 나 역시 많은 젊은 이(여학생이 많다)들이 처음으로 본 코리아가 그다지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은 것을 알고 기뻐다.¹⁷⁾

뉴욕 학교 원장인 단젤로 교장의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오영진이 1955년에 보여주는 주체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소극적이다. 오영진은 ‘코리아’라고 소개되며 학생들에게 조롱감이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코리아’가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는 태도는 의식적으로는 미국문화에 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다가서려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미 미국이 바라보는 코리아를 상상하는 서구적 시선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 한편으로 오영진은 북한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늦추지 않으며 휴전 이후 북한의 전술이 과거 전쟁과 같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문화사상과 경제방면에 집중하여 대중선동과 파괴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부심한다.

휴전 이후 직접적인 대남한 군사행동이 휴식상태에 들어간 이후 북한 공산당의 전술은 전쟁 중과는 달리 문화사상 경제방면에 집중하고 가급적 눈에 띄는 대중 선동과 파괴행동을 피하고 관현의 눈에 띄이지 않도록 개인접촉방법과 자연스러운 장소를 공작대상으로 선택하며, 또한 인간의 심리적 껍프와 약점을 이용하리라는 것을 비전문가인 우리에게도 넉넉히 추측된다. 정체를 나타내는 적은 오히려 격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접근하는 적이야말로 적군의 탱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다.¹⁸⁾

이 글의 인용을 통하여 에서 오영진이 반공주의와 관련하여 당대를 바라보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반공주의가 전쟁과 같은 무력투쟁에서 문화사상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적에 대한 퇴치를 언급하는 부분을 통해서 반공주의에서 송공주의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보이지 않는 적을 탱크라는 물질적 대상보다 위험한

17) 오영진, 이근삼·서연호 편, 「뉴욕의 연극학교」, 『오영진 전집』 제4권, 범우출판사, 1989, 353면.

18) 오영진, 이근삼·서연호 편, 「반공영화의 몇가지 형」, 『오영진 전집』 제4권, 범우출판사, 1989, 387-388면.

것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설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는 북한 공산당의 정책이 문화사상적 침투로 바뀌었음을 보고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의 퇴치를 언급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을 의식적으로 재생산해낸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반공주의가 가지는 힘이다. 반공주의는 국민/비국민의 정체성은 물론 좋음/나쁨의 경계 짓기를 통해 집단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다.¹⁹⁾ 바로 전쟁거치면서 내면화된 반공주의는 북한을 타자와 하고 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정체성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 오영진의 글들을 살펴보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과 미국을 바라보는 문화적 시선에서는 일종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문화사상에 관해서는 강력한 거부와 함께 반공주의에서 승공주의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대결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에 대한 태도를 접할 수 있는 글들에서는 자주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영화의식의 고도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어느새 미국이 바라보는 ‘코리아’를 의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 같이 각각 대상에 대한 문화적 태도는 계몽의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계몽주의는 유럽의 신을 중심으로 하는 중세가 무너지고 18세기 세속적 이성의 형태가 발생하면서 신성에 대한 거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면서 나타난 한 사상적 조류이다.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이 의미한 이성은 그들이 속했던 유럽-백인-중산층-가부장제 사회의 가치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자기중심적 이성은 타파하여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구분 짓는다. 여기에는 일종의 우민관이 심어져 있으며 어리석은 국민을 가르치고 스스로 힘을 길러 사회적 진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 북한의 문화사상에 관해서는 강력한 거부와 함께 반공주의에서 승공주의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대결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에 대한 태도를 접할 수 있는 글들에서는 자주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영화의식의 고도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어느새 미국이 바라보는 ‘코리아’를 의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 같은 대상에 대한 문화적 태도는 계몽의식의 이중적 시선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남은과제

이 글은 그동안 반공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연구되어오지 않았던 오영진의 반공주의에 관한 간략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본 글이다. 오영진의 반공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점을 어디서 설정해야 할지 어려움이 따랐지만 필자는 그의 계몽의식에서 시작했다. 그를 둘러싼 전통 · 민족 · 반공 등의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계몽의식에 그 젖줄을 두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

19) 반공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공산주의 반대한다’는 1차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비국민(빨갱이)의 구별 짓기 · 경계짓기가 내포되어 있으며, 내면화된 정신 · 심리구조 뿐 아니라 문학적 제도로도 실체화 되어 있다. 소위 국민/비국민의 정체성 뿐 아니라 남성/여성의 젠더화, 좋은 여자 / 나쁜 여자 등 개인 정체성 및 집단 정체성 형성과도 관련된다.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8호, 2008, 203-204면.)

20) 계몽주의가 (신앙으로부터)의 해방과 (이성에 의한) 종속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는 것은 이성 자체가 그 해체의 대상이었던 신앙만큼이나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즉, 계몽주의자들이 의미한 이성은 그들이 속했던 유럽-백인-중산층-가부장제 사회의 가치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경원,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 : 계몽주의의 양면성과 식민지 타자」, 열음사, 『외국문학』 여름호 제47호, 1996, 179-180면.)

이다. 오영진의 계몽의식은 식민지시기 일본에 대한 저항적 글쓰기의 한 형태로 전통의식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그의 작품들의 구성형태는 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메시지 중심의 기능적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점은 <배뱅이굿>이나 <맹진사댁경사>와 같은 작품들에서도 나타나며,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와 같은 작품에도 다르지 않다. 또한 오영진의 <오곡타령>은 오영진의 반공주의를 잘 보여주고, 그의 음악극에 대한 이해는 무척 소박한 형태로서 사실주의를 토대로 애국계몽적 가사를 덧붙인 음악을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오곡타령>은 관념적인 주체의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성에 의해서 인물들의 성격과 행위의 구체적인 필연성이 결여된 상태로 나타나고 이 같은 기능적 구성은 앞서 지적했듯 오영진이 <오곡타령>이전에 창작했던 다수의 작품들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에 있어서 북한의 문화사상 대해서는 비난과 거부를 드러내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어느새 미국이 바라보는 ‘코리아’를 의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 같이 각각 대상에 대한 문화적 태도는 계몽의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필자는 오영진의 텍스트를 쫓아가면서 해방기 그의 반공주의가 지니고 있는 양상을 간략히 논하였다. 지금은 해방기 오영진의 반공주의에 관한 다양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공주의와 관련하여 남겨진 과제로 오영진의 반공주의와 신식민주의와의 연관성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다. 미국에 대한 문화적 수용이 신식민주의체제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1960년대 반공주의라는 장(場)안에서 자기검열이 필요한 작가들의 문학세계와는 달리 반공주의자로서 오영진의 작품세계가 지니는 위치와의 문제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오영진 전집』 1~5권

2. 단행본 및 논문자료

김성희, 「오영진 희곡의 대립구조와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6집, 한국극예술학회, 1996.

이경원,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 : 계몽주의의 양면성과 식민지 타자」, 열음사, 『외국문학』 여름호 제47호, 1996.

권혁범,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학적 기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998.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8호, 2008.

이봉범, 「1950년대 문화재편과 검열」,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제34집, 2008.

한옥근, 『오영진 연구』, 시인사 1993.

박명진, 『한국현대 예술사 대계 II』,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9.

서연호, 『한국연극사 근대편』, 연극과 인간, 2003.

3. 신문자료

「금석한담」, 『조선일보』, 1972, 8, 13, 8면.

실존 인물신앙의 등장 배경과 특징

서종원(한국문화원연합회)

<참고문헌>

- I. 서론
- II. 실존 인물신앙의 등장 배경
- III. 실존 인물신앙의 신앙적 특징
- IV. 결론

I. 서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대상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나무·바위와 같은 자연물을 비롯해 열쇠 등의 특정 물건에 이르기까지 신앙민(信仰民)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물이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앙의 대상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대상물을 자연신과 인물신이라는 큰 틀에서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자연신이라 함은 자연물을 신으로 여기는 것인데 이런 유형의 신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 등이 대표적인 자연신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인물신은 크게 허구적(虛構的) 인물과 역사적(歷史的) 인물로 구분할 수 있다¹⁾.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적 인물이라 함은 우리와 같이 한 시대를 살았던 실존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신은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런 유의 인물신은 여러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본고는 실존 인물신앙의 등장배경, 그리고 실존인물 신앙이 지닌 신앙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자연신과 대별(大別)되는 부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여타의 신앙에서 볼 수 없는 실존 인물 신앙만의 신앙적 특징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여러 형태의 신앙 대상물의 개별적인 특징을 밝히는 일은 오랜 시간이 흘러 생겨난 문화현상으로 이해하는 문제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연신, 허구적인 인물신과 구분되는 실존 인물신앙이 지닌 신앙적 특징을 밝혀내는 일은 타 신앙과의 비교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

1) 이용범은 무속신을 대상으로 정리한 연구에서 인물신의 범주에 조상, 무조신, 영웅신, 잡귀잡신을 포함시켰다. (李龍範, 韓國 巫俗의 神觀에 대한 연구 - 서울 지역 채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14쪽.)

II. 실존 인물 신앙의 등장 배경

여러 지역에서 모셔져 있는 신들을 보면, 어떤 지역에는 자연신이 모셔져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실존 인물이 마을신으로 모셔져 있기도 하다. 물론 두 유형의 신이 함께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 지역에 많은 수의 신이 함께 모셔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밝힐 수 없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신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들의 변천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는 자연신에서 인물신으로 변천(變遷)돼 간 것으로 보고 있다.²⁾ 이는 허구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 실체적인 것들이 후대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도 신들의 변이과정을 이야기 할 때 처음에는 자연신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³⁾

중국의 경우 신의 변화과정을 이야기 할 때 자연신에서 인물신으로 변이되었다는 흔적의 예로 불교와 도교를 들고 있다. 두 종교에서 숭배하고 있는 신격이 기존의 신격과 차이가 있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에서는 불교와 도교가 들어오기 전 신에 대한 관념이 하늘과 같은 자연신적 사고가 매우 강하였으나, 이 두 종교의 영향으로 인격신 혹은 인물신에 대한 신의 관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실제로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신이 되기 이전에는 모두 일반인과 같은 인간이었으며, 그들은 형이상학적이고 고고한 어떤 정신의 실체도 아니고 절대적인 우주만물의 창조자나 지배자도 아니었다.⁴⁾

이런 내용은 중국의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신에 대한 서사와 불교와 도교에서 볼 수 있는 인물신에 대한 서사는 기본적인 구성원리가 같지 않다. 자연신에 대한 서사가 일차적으로 신의 타고난 권위와 힘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인물신에 대한 서사는 그들의 성공담과 삶의 실체성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곧 중국의 신앙 체계가 후대로 갈수록 자연신의 퇴조, 인물신 가세의 추세로 변화하면서 종교 서사도 이에 맞게 변화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중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들의 변천과정 과정은 자연신에서 인물신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보편적인 사실일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과정인데,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시점과 변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고대사회에서는 산천신(山川神)으로 대표되는 자연신이 지배적이었다⁶⁾면, 후대로 오면서 점차 이러한 신들의 비중

2) 추상적인 것보다 실체적인 것들이 후대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표인주는 이러한 양상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격신이 자연신으로 변화된 것은 매우 특수한 사례이고 일반적으로 자연신에서 인격신으로 변화되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표인주, 「전남의 당신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39쪽.)

3) 박지현, 「玉皇 및 閻羅 신앙의 형성과 이야기의 역할」, 『중국문학』 39집, 한국중국어문학학회, 2002, 106쪽.

4) 박지현, 위의 논문, 111쪽.

5) 박지현, 위의 논문, 111-112쪽.

6) 고대 중국에서 신의 개념은 애초에 자연신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 자체가 그렇다. 金文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글자는 제사를 뜻하는 示와 申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의 갑골문을 보면 본래 번개의 형상을 본뜻 것이었다. 이로 보건대 고대 중국인들은 무엇보다 해와 달, 바람 비 같은 자연현상에 어떤 신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朴志珪, 「전통시기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 - 『太平廣記』 鬼部に 나타나는 신앙의 서사와 탈신앙의 서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국어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8, 29면.)

이 적어지고, 인물신이 대거 등장하였던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연신에서 인격신으로의 신들의 변화가 있었던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종교관의 변화는 물론,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인문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⁷⁾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연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격신이 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역시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자연신과 인격신은 명확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신에서 인물신 중심으로 신들의 세계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들의 체계를 이해하고, 인물신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인물신 중에서도 실존 인물이 신으로 모셔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신의 세계에 있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래 자연신적인 성격이 강했던 신격의 체계에서 점차 인격신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원인, 다시 말하자면 실존 인물신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상숭배사상의 영향

조상숭배(祖上崇拜)란 문자 그대로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만 조상과 숭배가 각각 가지는 의미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조상숭배에서의 조상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는 선조(先祖)·선대(先代)·시조(始祖)·망령(亡靈)·원조(元祖) 등이 있다. 조상과 유사한 용어의 다양성은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조령(祖靈)·선조(先祖)·조선(祖先) 등의 용어가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주로 선조(先祖)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⁸⁾

죽은 사람이 신이 되는 사례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원시종교나 고등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물론 조상숭배 사상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자연신앙과 다르게 조상숭배 사상에서의 신앙의 대상은 실제로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 점이다.

원시시대에 있어 조상숭배의 흔적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죽은 조상의 뇌를 파서 먹는 행동, 조상이 사용하던 유품(遺品)을 보관하거나 시체를 묻지 않고 그대로 시체를 보관하는 행위 등이 모두 조상숭배사상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과 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부족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시시대 있어서의 가장 큰 이유는 조상이 내지 선조가 한평생을 살면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후손들이 물려받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선정규는 중국의 영혼관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원시적인 조상숭배는 토렘숭배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주장을 달리 해석하면 토렘숭배에는 본래 약간의 조상숭배의 요인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렘 속에 나타난 조상관념은 일종의 자연숭배의

7) 표인주는 당신의 변천은 인간의 종교관의 변화 및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유방식의 태도에 따라서 계기가 되며 인간의 생업구조의 변천과 마을 형성 시기가 중요한 변수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표인주, 「전남의 당신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30-139쪽 내용 정리.)

8) 최길성, 『韓國의 祖上崇拜』, 예진, 1986, 74-75쪽.

범주에 속한다. 이것과 鬼魂崇拜의 일종의 형식으로서 발전된 조상숭배와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에 숭배하는 것은 모종 물류의 신비적인 힘이고 후자에서 숭배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귀(魂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상숭배의 기초는 영혼숭배와 혈연관계로서 원시종교 중의 비교적 진보된 일종의 형식으로 보기도 한다. 때문에 조상숭배는 그 본질에 대해 말하자면 역시 혼귀에 대한 숭배이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위 조상신은 바로 조상의 혼귀이며, 조상숭배는 조상의 혼귀에 대한 숭배가 되는 것이다.⁹⁾

그렇다고 하여 한 평생을 살다간 죽은 모든 사람이 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죽은 자에 한한다.¹⁰⁾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자격은 특정 집단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는 점에서 보면 살아생전 혹은 죽는 과정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른 무언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에는 살아생전 그가 보여준 뛰어난 능력이 될 수도 있으며, 원활하게 한 집단을 다스렸던(통치)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상숭배에서 보이는 조상이라는 관념의 폭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상숭배에 보이는 조상은 존경의 대상으로만 해석되지만, 인간에게 있어 조상은 나보다 앞서 태어나 세상을 산 사람으로서 선조(先祖)적인 성격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조상숭배의 대상은 결혼을 하지 못해 죽은 잡귀잡신을 비롯해 평범하게 한 세상을 살다 죽은 일반인까지도 조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상숭배 사상이 실존 인물신앙의 등장 배경이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실 수 있었던 조상이라는 것이 바로 실제로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좁게 한 가정에서부터 넓게 국가의 조상을 숭배하는 경우이기에 가능하다. 조상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연신과 달리 특정 집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고에서 오래 기억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¹¹⁾

실제로 자연신앙적인 요소가 지배하던 시기에, 실존 인물신이 등장했다는 점은 당시에는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일반인이 죽어서 신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자연신앙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상숭배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조상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조상이라는 개념 중에 하나는 관념적이고 전체적인 조상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을 중심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후(死後) 세계에서의 존재를 말한다.¹²⁾ 실존 인물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여러 지역에 모셔진 인물신, 그 중에서도 실존 인물신과 상반되는 허구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인물신, 가령 당산할아버지신, 도당할아버지, 골맥이 서낭님¹³⁾ 등은 자연

9) 선정규, 「중국어인의 靈魂觀」, 『동아시아의 영혼관』, 동아시아고대학회 편, 경인문화사, 2006, 182면.

10)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19쪽

11) 이용범은 한국의 무속에 나타는 신 중 인물신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간과 보다 역동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 속에 보다 명확하게 기억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용범, 「한국 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성격」, 『민속학연구』 13, 국립민속박물관, 232쪽.)

12) 김광익, 「조상숭배와 사회조직의 원리:한국과 중국의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18, 한국문화인류회, 1986, 110쪽.

13) 골맥이 서낭님은 주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마을의 수호신을 이른다. 골맥이는 마을을 막아주는 의미가 강한데 이 골맥이 서낭님에게는 성씨가 붙는다. 예컨대 골맥이 김씨할배, 골맥이 이씨할매 하는 식이

신에서 실존 인물신으로 변화돼 가는 과도기에서 등장한 신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신에서 우리는 비록 허구적이긴 하나 조상숭배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조상숭배사상의 잔재는 제주도 지역의 마을신앙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마을의 당(堂)인 본향당(本鄕堂)에 모셔져 있는 당신(堂神)을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명(神名)에 성씨(姓氏)를 붙여 부른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제주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제주시 이호동·노형동의 각 자연부락의 본향당신의 이름은 송씨할망이고, 제주시 봉개동의 본향당신은 김씨할망·강씨할망·양씨할망 셋이다.¹⁴⁾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보이는 ○○할아버지·할망·할머니 등의 신과 역사적 실존 인물이 신으로 모셔져 있는 양상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자기 지역과 관련된 조상을 신으로 모신다는 점에서 보면 조상숭배사상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상숭배사상은 기나긴 수렵·채취의 시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착 농업이 시작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정한 장소에 터를 잡고 모여 살면서부터 사회는 보다 복잡하고 분화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일정한 조직체계(組織體系)가 생겨났으며,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 마을의 연장자(年長者)는 마을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장(祭長)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¹⁵⁾ 그리고 일정한 의례와 의식이 생겨나면서 한 마을의 연장자가 죽으면 그를 위해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을 것이고, 이런 의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 바로 ‘조상신(조상숭배)’의 한 양상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풍습은 농경민족의 대가족제도를 형성한 곳의 통유현상(通有現象)이었다.¹⁶⁾ 특히 본격적인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조상신의 성격은 더욱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간 것으로 보인다.

2. 도교의 영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교(道敎)와 도가사상(道家思想)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는 종교사상이요, 후자는 철학사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둘은 처음부터 별개의 것으로 출발하였다. 물론 둘의 별개성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도교는 불교·기독교와 같이 뚜렷한 개조적(開祖的) 인물을 가지면서 처음부터 확실한 자기 사상으로서의 노선을 확보하면서 밝아 내려온 사상이나 신앙체계가 아니다. 고대의

다. 이 때 영남방언의 할배는 조부라는 뜻이 아니라 조상이라는 뜻을 가진다.(장주근, 『한국민간신앙의 조상숭배』-유교 제례 以外の 전승자료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72쪽.)

14)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174쪽.

제주도 지역의 마을신에서 볼 수 있는 조령적 성격은 이 두 가지 이외에, 당신에 붙여진 성씨와 신앙민인 부락민의 성씨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락을 개척한 실존인물을 당신으로 위하는 부락이 많다는 것이고, 과거의 걸출한 인물을 당신으로 모시고 있는 부락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녀의 사령이나 비명에 죽어간 영혼을 당신으로 모시고 있는 부락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175-176쪽.)

15) 원시농경사회에서의 지도자를 인류학적 용어로 수장(首長:Headman)이라 하며 대개 출계집단의 우두머리이거나 연장자이다. 이러한 지도자는 수렵채집사회에서와 비슷하게 비공식적 지도자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며 비전문적 정치인인 때문이다. 그는 나머지 주민들과 함께 생계행위에 참여하며 그의 생활양식과 富 축적 정도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수장에 의한 의사결정은 물리적 수단 등으로 강제적으로 집행되거나 강요될 수 없으며 그의 권력행사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보통 수장은 스스로 출선수범함으로써 주민들의 추종과 협력을 구할 수 있다.(김주희, 『문화인류학의 이해』,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52쪽.)

16) 김두헌,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대출판부, 1969, 578쪽.

다양한 민간신앙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바탕 위에서 주술적인 것으로 출발하였다. 세력의 확장과 더불어 점차 교단(敎團)의 형성과 이론적인 것의 뒷받침이 요구되자 도가·역리(易理)·음양오행(陰陽五行)·참위(讖緯)·의술(醫術)·점성(占星) 등의 것을 잡유적(雜糅的)으로 받아들이는가 한편 윤리적(倫理的)인 기반으로서 유교의 이론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단의 형성과 조직은 불교의 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민간신앙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만큼 무술적(巫術的)인 것이 항상 그 전반에 걸쳐 강하게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¹⁷⁾

도교가 발생한 중국에서의 도교 기원을 살펴보면 도교의 원시적인 교단은 후한(後漢)의 순제(順帝) 때(2세기 전반)의 도사 우길(于吉)에 의해서 태평도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늦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장릉(張陵)에 의해서 오두미도(五斗米道)가 나타났다. 전자는 부수(符水)를 마시고 주사(呪詞)를 읽음으로써 질병을 치유하는 등 현세이익에 중점을 둔 교법이었는데 하층민의 지지를 얻어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고 마침내 후한 왕조 타도를 위한 반란을 일으켰으나 수 년 만에 궤멸(潰滅)하게 되었다. 후자는 병자에게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게 하고 삼관수서(三官手書: 일종의 서약서)를 천지수(天地水)의 신에게 바치고 부수를 마시고 기도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오두미도는 장(張)씨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치외법권적 종교왕국을 이룩하기도 했으나 후한이 망한 뒤에 위(魏)·촉(蜀)의 토벌을 받아 3세기 초에 와서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름을 천사도(天師道)라 고치고 계속 교단을 유지해 나갔다. 이러한 태평도나 오두미도의 교법은 부적이나 기도 등에 의한 치병을 위한 주술이 주가 되어 있는 도교의 원시적 형태로서 흔히 원시도교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것이다.¹⁸⁾

한국의 도교는 중국으로부터 전래(傳來)가 그 기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월남 등 중국 주변국의 도교의 기원에 대해서도 모두 해당되는 자연스러운 인식이다. 더구나 한국의 역사기록은 고구려 시기에 당(唐)으로부터 도교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남기고 있다. 중국은 물론 일본·구미 제국의 도교학자들이 한국 도교의 기원에 대해 서술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전래설¹⁹⁾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근거에서다²⁰⁾. 중국에서 발생한 도교는 당나라를 통하여 우리나라 삼국으로 들어와 발전하면서 고려를 지나 이조 중기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조정에서 소격서(昭格署)를 폐할 때까지는 국가적 행사로 명맥이 이어졌다²¹⁾.

실존 인물신앙의 등장이 도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도교의 기원 등 도교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도교의 기원과 실존 인물신앙이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은 기존의 자연신의 사교가 지배하던 시기와 다르게 인간의 능력 여하(如何)에 따라 인

17) 宋恒龍, 「중국도교사상의 한국유입과 그 전개추이」, 『아세아연구』 70, 고려대아세아연구소, 197-198쪽.

18) 都眇淳, 「한국도교의 사적 연구」, 『도교학연구』 7, 도교학연구회, 1991, 18-19쪽.

19) 한국의 도교의 기원설에 대해서는 전래설과 자생설로 양분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전래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도교의 한반도예로의 공식적인 전래시기를 『三國史記』의 기록을 토대 7세기 초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고고·미술사적 자료를 볼 때 7세기 이전에 이미 도교가 들어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4세기 초까지 평양 지역에 존재하였던 낙랑(樂浪)의 유물 중에 한대(漢代)의 동경(銅鏡)이 있는데 동교는 도교의 중요한 주구(呪具)이다.(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80쪽.)

20) 정재서, 위의 책, 70-71쪽.

21) 이석호, 「중국 도가·도교 사상이 한국 고대사상에 미친 영향」 - 특히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보이는 기록을 중심으로, 『延世論叢』 15,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8, 39-40쪽.

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사고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바로 도교의 기원과 관련되는데, 중국에서 도교의 기원이 전국(戰國)시대에 유행했던 신선(神仙)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원시시대부터 전해오는 무술(巫術)과 금기(禁忌), 귀신에게 바치는 제사·민속신앙·신화와 전설·각종 방술(方術) 등이 결합돼 이루어진 것이다. 도교가 추구하는 바는 속세를 초탈하여 수련을 통해 불로장생(不老長生)하고 선인(仙人)이 되어 도탄에 빠진 인간을 구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도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신선사상에서 보이는 내용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은 장수(長壽)나 연년(延年)까지만 주장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사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의 흐름에는 반드시 삶과 죽음이 정해져 있고 그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신선사상에 근원을 둔 도교는 기를 잘 유지하면 장수를 이루는데서 멈추지 않고 정해진 생사의 질서를 갑자기 넘어버릴 수 있다는 사고까지 확대하여 생각하고 있다²³⁾. 특히 도교와 관련이 깊은 『太平經』 등의 내용을 보면 평범한 사람과 신선이 결코 원래부터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평범한 사람이라도 도를 얻어 ‘기에 자신을 내맡기고 작위하지 않는 수행을 계속하면 체내의 응결된 신기(神氣)가 하늘로 올라가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선화(仙化)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수행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교에서는 선약(仙藥)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하루 속히 수도하여 신선과 선약이 지천으로 널리 있는 복지동천(福地洞天)에 거주하면서 몸에 좋은 경장금단(瓊漿金丹)을 만들어 먹어 신선이 되어 바람을 타고 다니며 세상을 소요(逍遙)하려 하였다²⁵⁾.

이런 신선사상에 입각한 도교적 사상은 무속적인 사상과의 결부를 통해 인간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나 현실 역사에서의 패배자 내지 희생자를 신격으로 추존하여 해원시키는 무속원리를 구현시킨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모셔지고 있는 관우장에 대한 신격화이다²⁶⁾. 실제로 중국 여러 지역에 모셔진 관우신앙은 우선 중국의 전통적인 도교적 관습이 불교와 습합된 채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중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생활화되고 몸에 배게 된 민간신앙, 즉 생활종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²⁷⁾. 인간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죽어서 신으로 받들어지는 과정 역시 도교적 신론의 체계와 유사하다. 도교적 신론에서는 수련과정을 거쳐 도달한 신선과 높은 위계의 신들 간에 모호하여 서로 동일시하는 경향도 보이기 때문이다. 관운장 같이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도교적 신에 포함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²⁸⁾

실존 인물신앙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도교의 영향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도 어느 정도의 도와 기에 이르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22) 장언푸 지음, 김영진 옮김, 『한권으로 읽는 도교』, 산책자, 2008, 17쪽.

23) 최진석, 「도교의 생사관」, 『철학연구』 57집, 철학연구회, 2006, 66쪽.

24) 김성환, 「초기도교의 철학사상」 - 『태평경』과 『老子想爾注』를 중심으로-, 『中國哲學』, 132쪽

25) 장언푸 지음, 앞의 책, 18쪽.

26) 金洛必, 「道敎와 韓國民俗」, 『비교민속학』 24, 비교민속학회, 2003, 95쪽.

27) 김필래, 「관우설화 연구」, 『漢城語文學』 17, 한성대국어국문학과, 2006, 63쪽.

28) 金洛必, 앞의 논문, 95쪽.

는 기존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인간의 능력 여하에 따라 신으로 좌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도교적 사상은 이후 점차 확대되고 다른 종교적인 특성 등과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 지역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실존 인물이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중요한 종교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인간의 인지사고 발달

신들의 변천 과정을 볼 때 자연신에서 인물신으로의 성격의 변화가 본격화 된 시점이 언제 부터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오늘날에 남아 있는 다양한 신들의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들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기록 등이 전무해서 일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연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물신 중심의 세계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신앙세계에 있어 매우 커다란 변화였다는 것이다.

신앙세계가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표인주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종교관의 변화 및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유방식의 태도, 인간의 생업 구조의 변천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²⁹⁾

자연신에서 점차 인물신으로의 성격이 변화된 것은 앞서 살펴본 조상숭배와 도교사상 등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사상이 등장하여 신들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인지사고(認知思考)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종교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인지사고의 발달은 과학의 발달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인간이 두려움과 경이로운 대상으로 여겼던 자연물에 대한 법칙과 그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면서 더 이상 그러한 존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⁰⁾. 이런 계기로 인해 자연신과 같은 허구적인 신에 대한 믿음이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였고, 신앙민에게는 자연신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신이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도 당초의 천제(天帝)개념의 신이 중심이었지만, 이러한 인간 사고의 발달로 인해 인왕(人王)이 등장하게 되었다고³¹⁾ 한다.

인간의 인지사고의 발달로 인한 신앙 체계의 발달의 간접적인 사례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통해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심청전에서 심청이를 바다로 빠뜨렸다는 인신공희(人身供犧)의 행위가 인간의 인지사고가 발달되면서 사람을 직접 빠뜨리는 것에서 모형의 물건을

29) 표인주, 앞의 박사학위 논문, 139쪽.

30) 고대의 백성들은 생산력이 낮았고 각종 자연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일월성신·풍우 뇌전·山川大地·草木鳥獸 등에 신기한 기량이 있다고 믿는 등 자연계의 각종 현상에 대해 경외감을 품었다. 또 神에 대한 경외감과 숭배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각종 제사와 이와 관련된 무속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무속문화, 즉 跳神·占卜·禁忌·兆驗·讖緯·符咒 등 매 제사마다 쓰였던 무술의식이 도교로 흡수되었는데 주로 도교 符籙派에게 계승되었다.(장언푸, 앞의 책, 18쪽.)

31) 신의 세계는 지상에서 생활했던 인간의 생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신들도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인격신이였다. 지상의 인간세계에 계급이 행기고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여 전달하게 되자 신들의 세계에도 계급이 생겨나고 각기 맡은 일이 있게 되었다. 신은 본래 인간이 변화하여 발전된 것이므로 신화의 변천은 바로 고대사의 전설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의식의 발전에 따른다. 楊寬은 <中國上古史導論>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신에 대한 殷周의 관념 속에서는 본래 의식이 있는 인격신에서 發號司命할 수 있었으나 춘추전국의 문화에서는 점차 이런 관념이 지식 계층 속에서 믿어지지 않게 되었다. 지식계층은 雅馴하지 않은 신화를 윤색하여 사람의 말(人話)로 만들게 되었다. 이에 天帝가 변화하여 人王이 되었고 신화는 점차 古史로 변했다.(何新 著, 洪熹譯, 『神의 起源』, 東文選, 1990, 21-22쪽.)

만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 인간의 인지사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인지사고의 발달로 인해 인물신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신보다는 인물신이 보다 구체적인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자연신앙 보다는 인물신앙이 인간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인지사고의 발달은 특정 인물신의 업적과 행동에 대해 기억하고, 이를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 실존 인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특히 역사속의 실존 인물이 위업을 남겼을 때 그 위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고금을 막론하고 무의식 속에는 그 위업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역사속의 실존인물을 계속해서 추모하고자 하는 염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물은 신 혹은 신격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주민들의 기원과 소망 안전, 마을 수호 등의 초능력을 발휘해주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³²⁾

III. 실존 인물 신앙의 신앙적 특징

실존 인물신앙이 지닌 특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서 신앙의 체계의 변화과정을 이야기 하면서 살펴보았던 자연신앙과의 차별성, 그리고 인물신앙에서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 허구적인 인물신앙 등과의 비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실존 인물신앙이 지니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실존인물신앙이 지니는 신앙적 특징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성

실존 인물신앙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실존 인물과 특정 지역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지역에서 모셔져 있는 다양한 인물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배지인 영월지역에서 모셔져 있는 단종, 강원도 주문진 성황에 모셔진 정우복, 몽진지(蒙塵地)인 안동에 모셔진 공민왕, 곡성지역의 성황신으로 모셔져 있는 신승점 등이 대표적인 인물신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이외에 여러 지역에는 자기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 마을신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다. 도서 지역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입도조(入島祖)³³⁾의 경우는 뚜렷한 인물이 모셔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가령 ‘○○입도할 아버지·할머니’가 신으로 모신 경우가 후자의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고군산도 말도에는 영신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신당의 당신(堂神)은 이 섬에 처음으로 입도한 심판서(沈判書)가 별세한 후 이분을 모시고 있는 당으로서 이곳의 당제는 11월 중순에 마을이 조신(祖

32) 강남주,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日本 岐阜縣 治水神社 大祭의 경우, 『비교민속학』 11, 비교민속학회, 1994, 106쪽.

33)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그들의 섬에 처음 들어온 사람을 ‘입도조’라 부르며, 마치 그들을 섬의 개척자·발견자·최초 이주민인 것으로 믿고 있다. 또 이들 입도조의 생존 년대는 17세기를 전후한 시기로서 현 주민들로부터 10-15대조 정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체한 것처럼 이들 입도조라 불리우는 사람들보다 훨씬 이전에도 섬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며 오히려 조선후기보다도 살기 좋은 환경-산업구조나 생업수단, 혹은 관권의 개입면에서-이었던 그 이전의 시대에 더욱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李海濬, 「신안 도서지방의 역사문화적 성격」, 『도서문화』 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9, 57-68쪽.)

神)이라 할 수 있는 심판서의 영전에 전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거행한다.³⁴⁾

김효경은 지역에서 신으로 모셔진 인물들이 신격화되는 과정에서 마을과 일정한 연계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실제 마을과의 연관성이 찾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신앙인은 신령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즉 비역사적인 사실 혹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일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지역 연고성을 강조하는 관념은 곧 지역에 특정 신령을 봉안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곧 인물신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토대를 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다. 그러한 역사에 대한 관심은 결국 막연한 자연신에 대한 숭배에서 구체적인 인물들에 대한 숭배로 변화되어 가는 토대가 된 것이다.³⁵⁾

실존 인물신이 지역사회와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앙대상으로 모시는 이들이 다름 아닌 지역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실존 인물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지역민들은 특정의 실존 인물을 그들의 신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보다 이름이 있거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을 그들의 신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이다.

여러 지역에 모셔진 인물신에서 이러한 특징이 보이는 것은 이들을 신앙 대상으로 모시는 단위가 마을 단위라는 점도 있겠지만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들 지역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성이 맺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물신과 지역과의 관련성은 단순히 실존 인물이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지 지역 주민에게 업적을 남겼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데, 주로 특정 인물이 지역사회 큰 공을 세웠거나 지역민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했던 점 등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여러 인물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릉 주문진에 모셔진 정우복의 경우도 강릉부사로 부임을 와서 지역의 학문장려와 선정을 베풀었다.

실존 인물이 특정 지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그가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이 그의 신격화 배경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영위하고 전승시켜 나가는 주체가 바로 지역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존 인물이 지니고 있는 영험성과 영적인 능력이 지역민들의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실존 인물이 특정 지역에서 신격화 되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⁶⁾

실존 인물신의 이러한 특징은 바로 역사 속의 실존인물이 위업을 남겼을 때, 그 위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고금을 막론하고 무의식 속에 그 위업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역사 속의 실존인물을 계속해서 추모하고자 하는 염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의 신격으로 좌정되면서 주민들의 기원과 소망 안전, 마을 수호 등의 초능력을 발휘해 주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³⁷⁾

실존 인물신이 특정지역과 관련된 또 다른 이유는 지역민의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지역민들은 보다 뛰어난 인물을 신으로 모시길 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유로 인해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인물이 지역에 모셔지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인물이 여러 지역에 모셔져 있기도 하다. 후자의 경우는 최영의 경우가 대표적인

34) 韓相福·全京秀, 『韓國의 落島民俗誌』, 집문당, 1992, 212쪽.

35) 김효경, 김효경, 「한국 마을신앙의 人物神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76쪽.

36) 이런 내용과 유사한 인물이 바로 해안지역에 모셔진 임경업인데, 그가 서해안 지역에서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조기잡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37) 강남주,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日本 岐阜縣 治水神社 大祭의 경우, 『비교민속학』 11, 1994, 106쪽.

사례라 할 수 있는데, 황해도의 덕물산을 비롯해, 남해안 일대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실존 인물이 신격으로 좌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민들과 인물신의 밀접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관계에는 특정 인물과 지역사회의 관련성 못지않게 그가 지역사회 미친 공헌과 업적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성

인물 신앙이 지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구체성(具體性)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에서의 구체성이라는 함은 자연신에 있어서의 신앙의 대상물이 특정 바위와 같은 자연물인 반면, 인물 신앙이 인물신앙에서 보이는 신앙의 대상물은 비교적 구체적인 측면에 강하다는 것이³⁸⁾다. 또한 실존 인물이 신앙의 대상으로 좌정된 연유 등이 자연신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신앙을 영위하는 집단에게 있어 인물신은 막연한 신앙의 대상이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인물이고, 이들 인물이 지닌 영험성 내지 능력이 신앙민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연물에 의탁하여 막연히 기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종교집단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앙 대상인 인물신이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물신앙이 여타의 신과 달리 구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여러 인물신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널리 분포된 마조(媽祖) 신앙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가 이 일대의 해상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녀시절부터 곤경에 처한 많은 어민과 상선들을 구했고, 결국 사람을 구하다 불행하게 사망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임목낭(마조)은 죽은 후에도 계속하여 파도를 치는 바다에 나타나 위험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바다를 다스릴 항해를 보호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그녀는 사람들의 공경을 받았고 마조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점차 사람들 마음 속의 해양의 여신으로 자리 잡았다.³⁹⁾

이런 양상을 보면 산신으로 대표되는 여타의 자연신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에 인물신은 그가 지닌 탁월한 능력이 신으로 좌정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자연신에 비해 인물신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준 구체적 행동이나 뛰어난 업적, 그리고 신비로운 모습이 종교 집단에게 있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 집단들의 이러한 사고는 사람의 능력은 사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과 관련이 깊은데,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죽어서도 그가 보여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민중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의 흔적은 중국의 종교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종교사를 들여다 보면 진한 이전에는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의 신의 성격이 강하였다. 중국의 은(殷)나라는 최고의 신인 상제(上帝)고, 주(周)나라에는 천(天)이 대표적인 신이었다. 특히 진한 이전의 바로 전 시기인 주나라의 천의 관념화와 추상화 경향은 후기로 갈수록 심해졌다. 그러나 진한 이후 유교에 입각한 국가 종교의 체계가 확립되면서 인간의 본원적인 욕구를 근간으로

38) 이용범은 무속신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영역신보다 인물신이 상대적으로 인간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만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범, 「한국 무속에 나타난 신의 유형과 성격」, 『민속학연구』 13, 국립민속박물관, 2003, 230쪽.)

39) 정준, 「중국의 마조(媽祖) 신앙과 관음신앙」, 『동아시아의 해양신앙과 해신 장보고』, 2005년도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집, 2005, 66쪽.

하는 종교는 민간의 영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교와 도교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종교와 달리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신이 되기 이전에 모두 인간이었던 존재들이다. 그들은 형이상학적이고 고고한 어떤 정신의 실체도 아니고 절대적인 우주만물의 창조자나 지배자도 아니다. 그리고 자연신에 대한 서사가 신의 타고난 권위와 힘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인물신에 대한 서사는 그들의 성공담과 삶의 실제성을 증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의 신앙 체계가 후대로 갈수록 자연신의 퇴조, 인물신의 강세 추세로 변화하면서 종교의 서사도 이에 맞게 변화되었던 것이다⁴⁰⁾.

중국의 종교사적인 측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신의 추상적인 개념이 주가 되었다면 인물신은 그러한 모습보다는 한 인물의 삶의 실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신앙의 변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점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변화는 자연신 중심의 신앙체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종교적 사고관의 변화는 유교적인 사고가 등장하고 국가의 종교체계가 확립되었기에 가능했던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인물신앙의 등장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의 사고 발달과도 관련성이 있다. 인물신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종교를 자연신을 인지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졌지만, 인간 스스로가 자연의 여러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신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신격을 지닌 신 가운데서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상, 그중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지녔거나 특정 지역에 업적을 남긴 인물의 사후에 신으로 모셔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들의 변화의 흔적은 산신(山神)신앙의 성격 변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본래 산에 좌정되었던 산신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은 생업 등이 변화되고 신에 대한 개념이 인간 중심적 사고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곧 추상적인 신격이 보다 인물신격으로 변화되어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곧 신성적인 신격이 인간화 내지 신격의 인간으로의 접근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물신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구체성은 인물신의 신격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지역의 생업과 특정 인물신의 형성에 관한 것인데, 특정 지역의 생업과 실존 인물이 지역의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배경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본 연구의 대상인 임경업 신앙을 통해 알 수 있다. 서해안 지역에서 임경업 신이 신앙의 대상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조기잡이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선신적(善神的) 성격

여러 지역에서 마을신으로 모셔져 있는 실존 인물신을 살펴보면 악신(惡神)적인 모습 보다는 선신(善神)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실존 인물신앙에서 보이는 선신적 성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지역성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민에게 선정(善政)을 베푼 관리나 장군, 그리고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로 공헌을 했던 인물이 주로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지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물신으로 모셔진 실존 인물이 지역사회에 미친 업적이나 공은 인물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의 나카라카와(岐阜縣)에서 치수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히라타 유키에(平田鞠負)의 경우, 그가 이 지역에서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40) 박지현, 앞의 논문, 109-112쪽 요약.

것은 이 지역에 홍수피해가 많았는데, 그는 살아 있는 동안 몸을 헌신하면서까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이 마을은 그의 그러한 공으로 인해 마을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⁴¹⁾

실존 인물신앙에서 유독 선신적인 모습이 두드러진 두 번째 이유는 신으로 모셔진 실존 인물들 대부분이 일반인 혹은 특정 집단에게 있어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존경의 대상이라 함은 평소 특정 인물이 신앙민에게 보여준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존 인물신이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이런 행동이 집단들에게 있어 호응 내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실존 인물신앙의 특징에서 선신적 성격이 강하게 보이는 것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연신과 인물신의 비교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자연신은 자비심보다 혹독함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특징, 즉 평소에는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두려운 존재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은인(殷人)들은 자신들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조상신의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고 신앙적으로 증시했으며 후대로 갈수록 조상신에 대한 제사의 비중을 높여갔다고⁴²⁾ 한다.

비록 중국의 사례이긴 하나, 자연신과 달리 실존 인물신앙에서 보이는 인물의 경우는 마을을 수호하거나 외부로부터 나쁜 액을 막아주기도 하며, 때론 마을의 나쁜 질병을 퇴치하기도 한다. 영월지역의 마을신으로 모셔진 단종만 하더라도 기우(祈雨)에 효험을 나타내기도 하고, 17세기 중반에는 재이(災異)를 소멸시키는데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지역민들의 삶에 있어 적지 않은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⁴³⁾

특히 평소 인간들은 신이 주는 복보다도 화에 더 민감한데 세상의 뜻하지 않은 재앙이 어디에서 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종교적 돌파구를 찾게 마련이다⁴⁴⁾. 고대사회에서는 화를 피하고 복을 빌며 영생불사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결부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산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불교와 도교였다. 불교와 도교의 등장으로 인해 신앙체계를 자연신에서 인물신으로 변화를 맞이하였던 것이며, 이런 인물신의 등장은 점차 자연스런 종교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생전에 위대한 업적은 남기거나 특별했던 사람들은 사후 신으로 추대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⁴⁵⁾.

41) 카라카와 마을은 홍수의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1608년에 마을에서 제방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 공사는 마을의 사활이 걸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공사규모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공사였다. 이 어려운 일에 공사의 총책임자로 히라타 유키에가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가 공사를 맡기는 했지만 공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지노동자와 농민들간의 갈등, 자금 부족 등이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할복사살자가 늘어났고, 마을은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게 됐다. 여기에 다른 막부의 음모와 힐책으로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을 견디게 어려운 유키에는 죽게 되었다.(할복사살, 자살 등 설은 많으나 할복사살을 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국 이 제방공사는 끝나게 되어 마을은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뒤에 평전 의사, 또는 살마의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죽음이 할복으로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 추앙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그를 위한 노래가 생겨났고, 그를 숭모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역발전에 목숨을 걸고 공헌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했다.(강남주,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 『비교민속학』 11, 비교민속학회, 1994, 102-106쪽.)

42) 박지현, 앞의 논문, 108쪽 요약.

43) 김효경, 「端宗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 『민속학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1998, 273쪽.

44) 朴志珪, 전통시기 중국의 귀신 신앙과 귀신 이야기 - 『太平廣記』 鬼部に 나타나는 신앙의 서사와 탈신앙의 서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30쪽.

이렇듯 실존 인물 신앙이 선신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동양적 심상에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신에 대한 원형적 심상과도 일치한다. 특히 동양에서 보이는 많은 산신이나 지신 또는 수신(水神, 海神포함)의 경우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구신이 아닌 경우 이 신들은 선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는 귀(鬼)에 대한 이미지가 악(惡)인데 비해 꽤 대조적이다. 이 신은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초월적 주재자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면서 초능력으로 악을 물리치는 등 수호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신의 경우도 허다하다.⁴⁵⁾

실존 인물의 죽음과 관련된 귀신(鬼神)이라는 용어는 귀(鬼)와 신(神)의 합성이다. 이 두 단어인 귀와 신은 악과 선으로 구분되는데, 한 평생을 살다가 죽은 인간의 사후에는 결국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인간의 사후에 이런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귀에 해당되는 인간신은 악신에 해당되어 공식적으로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신으로 승화된 인물신은 특정 집단 내지 지역의 신으로 모셔져 매년 정기적인 제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기적인 제사를 받는 인물신은 특정한 능력을 발휘하여 때론 지역민들을 배고픔에서 구출해주기도 하고, 비가 오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하기도 하는 등 지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바로 인물신앙이 선신적인 성격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실존 인물신앙의 등장배경은 조상숭배와 도교의 영향, 그리고 인간의 인지사고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런 배경들이 개별적인 영향으로 인해 신앙의 체계가 자연신에서 차츰 인물신앙으로 변화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신앙의 체계에서 인물신앙의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존인물신앙은 자연신앙과 달리 지역성과 함께 구체성, 그리고 선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신앙과 달리 실존 인물신앙은 인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통시적인 관점에서 신앙체계의 변화양상을 정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양상으로 인한 당시의 인간의 인지사고와 사상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야만 폭넓은 관점에서 실존 인물신앙의 신앙적 특징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5) 朴志珪, 앞의 박사학위논문, 32쪽.

46) 강남주, 앞의 논문, 106-107쪽.

中央語文學會 第22次 全國學術發表會

인 쇄 2009년 8월 10일
발 행 2009년 8월 13일
편 저 자 중앙어문학회
E-mail : nightty211@paran.com
홈페이지 : <http://cakoll.or.kr>

퍼 낸 곳 이진문화사
주 소 : 서울 동작구 흑석동 190-42
전 화 : (02)814-0159

<비 매 품>

